

# 2022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집



2022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집





2022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집**



---

# 목 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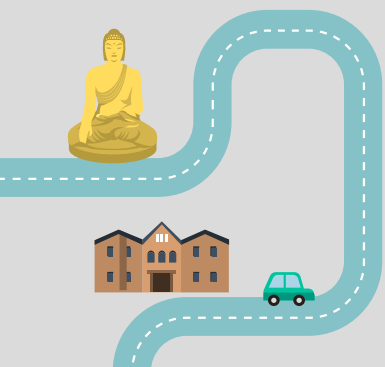
## I. 2022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

1. 건축문화재	07
- 관아건축 / 향교·서원 / 교량 / 누·정 / 주거시설 / 사묘재실 / 비석	
※ [사례분석] 안동 도산서원(2020)	
2. 사적	31
- 종교·신앙 / 관방유적 / 묘역	
※ [사례분석] 수원 화성(2019-2020)	
3. 불교문화재	49
- 불교조각 / 탕화 / 불상 / 건조물 / 탑	
※ [사례분석] 공주 마곡사(2020)	
4. 자연문화재·무형문화재	69
- 식물 / 명승 / 문화경관 / 지질지형 / 놀이	
5. 근대문화재	81
- 근대주거 / 근대교육 / 기타	
6. 동산문화재	91
- 회화 / 생활유물	
※ 사례분석 원고 /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강혜원	

## II. 2022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1.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목적	98
2.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추진과정	101
3. 2021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대국민 인식조사	105
4.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Q&A	111

III. 찾아보기	115
-----------	-----



# I

---

## 2022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

1. 건축문화재
2. 사적
3. 불교문화재
4. 자연문화재·무형문화재
5. 근대문화재
6. 동산문화재





2022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

---

# 건축문화재



관아건축 / 향교·서원 / 교량

누·정 / 주거시설 / 사묘재실 / 비석







# 성주성산관

## 星州星山館

종 목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 기존 문안

## 성주 성산관

### 星州星山館

지정별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① 제143호

② 소재지 :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286

이 건물은 조선시대에 ③ 성주목(星州牧)의 목사(牧使)가 공적인 일을 처리하던 관아 건물이다. 처음에는 지금의 성주 초등학교 자리에 있었던 것을 조선 효종(孝宗) 8년(1657)에 목사 최계훈(崔繼勳)이 현재의 군청사 자리로 옮겨지었다. 그 후 여러 차례 수리가 있었으며, 1994년 현 군청사 신축공사로 인하여 다시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

언덕 위에 남향으로 지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건물이다. 오른쪽에 2칸의 온돌방이 있고 나머지 방에는 모두 우물마루를 깔았으며 건물 정면의 주춧돌이 기둥모양으로 나열되어 있다. 마루바닥이 지면에서 높게 되어 있는데 지기(地氣)가 다습한 까닭이라 하며, 습기에 대비한 지혜가 돋보인다.

### 성주 성산관

#### 星州星山館

지정별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43호  
소재지 :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286

이 건물은 조선시대에 성주목(星州牧)의 목사(牧使)가 공적인 일을 처리하던 관아 건물이다. 처음에는 지금의 성주 초등학교 자리에 있었던 것을 조선 효종(孝宗) 8년(1657)에 목사 최계훈(崔繼勳)이 현재의 군청사 자리로 옮겨지었다. 그 후 여러 차례 수리가 있었으며, 1994년 현 군청사 신축공사로 인하여 다시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

언덕 위에 남향으로 지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건물이다. 오른쪽에 2칸의 온돌방이 있고 나머지 방에는 모두 우물마루를 깔았으며 건물 정면의 주춧돌이 기둥모양으로 나열되어 있다. 마루바닥이 지면에서 높게 되어 있는데 지기(地氣)가 다습한 까닭이라 하며, 습기에 대비한 지혜가 돋보인다.

### Seongsan-gwan in Seongju

Gyeongseonbuk-do, Tangulsa Cultural Property No. 143  
Location: 286, Gyeongseonbuk-do, Seongju-eup, Seongju-gun, Gyeongseonbuk-do

This was a government building used by a magistrate of Seongjumulok to carry out public affairs. Originally, it was located where Seongju Elementary school now stands but was moved in 1657, the 8th year of King Hyojong(孝宗) of the Choson Dynasty by a magistrate, Gyeobun Choi (崔繼勳). Since its relocation, the building has been renovated many times and was eventually moved to its present site to make way for the construction of a new county office.

It stands on a hill facing the south and has a hipped and gabled roof (Paikjijibong) building with 5 columns facing the front and 3 columns facing the side. On the right side, there are two, 2 column ondol (traditional heated floor) rooms. The rest of the rooms have checkered floors.

The foundation stones facing the front building are arranged in the shape of pillars, the floors are placed off of the ground because of the humidity generated by the ground's energy (地氣). Placing the floors off of the ground reveals the architect's wisdom in dealing with moisture.

- ① 지정번호 쓰지 않음
- ② 소재지 쓰지 않음
- ③ 옛 행정구역 명칭에 대한 설명 부족
- ④ 문화재청 연대 표기법 미준수

## 성주 성산관

星州 星山館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이 건물은 조선 시대 성주목\* 관청 건물의 하나이다. 원래의 관청 건물들은 지금의 성주 군청과 성주초등학교 자리에 있었으나 ❶ 임진왜란 때 모두 불에 탔다. 이후 성주에 부임한 여러 수령들이 다시 지었으나,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대부분 없어지고 이 건물만 남았다. 지금의 군청사 자리에 있던 이 건물은 1994년 군청사를 새로 지을 때 이곳으로 옮겨 세워졌다.

성산관은 성주목의 객사 명칭이나 이 건물이 객사의 일부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❷ 객사란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殿牌)나 대궐을 상징하는 궐패(闕牌)를 모시고 임금에 대한 예를 행하던 장소로서, 수령들은 부임하면 먼저 객사에 들러 임금이 있는 대궐을 향해 절을 올렸다. 또한 객사는 외국에서 온 사신들과 공무를 위해 파견된 중앙 관리들이 숙소로 사용하거나 고을의 인사들을 초대하여 연회를 베풀기도 하던 곳이었다.

이 건물은 마루 바닥이 지면에서 높이 올라와 있는데, 이를 흔히 ‘고상식(高床式)’이라 부른다. ❸ 이런 구조는 마루를 주로 이용하는 남방 건축에서 지면의 습기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주의 양진당에도 같은 구조가 남아 있어 서로 비교가 된다.

❹ \* 조선 시대의 성주는 행정구역상 성주목에 해당하였으며, 성주 목사가 관할하였다.

### 성주 성산관 星州 星山館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이 건물은 조선 시대 성주목\* 관청 건물의 하나이다. 원래의 관청 건물들은 지금의 성주 군청과 성주초등학교 자리에 있었으나 임진왜란 때 모두 불에 탔다. 이후 성주에 부임한 여러 수령들이 다시 지었으나,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대부분 없어지고 이 건물만 남았다. 지금의 군청사 자리에 있던 이 건물은 1994년 군청사를 새로 지을 때 이곳으로 옮겨 세워졌다.

성산관은 성주목의 객사 명칭이나 이 건물이 객사의 일부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객사란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殿牌)나 대궐을 상징하는 궐패(闕牌)를 모시고 임금에 대한 예를 행하던 장소로서, 수령들은 부임하면 먼저 객사에 들러 임금이 있는 대궐을 향해 절을 올렸다. 또한 객사는 외국에서 온 사신들과 공무를 위해 파견된 중앙 관리들이 숙소로 사용하거나 고을의 인사들을 초대하여 연회를 베풀기도 하던 곳이었다.

이 건물은 마루 바닥이 지면에서 높이 올라와 있는데, 이를 흔히 ‘고상식(高床式)’이라 부른다. ❸ 이런 구조는 마루를 주로 이용하는 남방 건축에서 지면의 습기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주의 양진당에도 같은 구조가 남아 있어 서로 비교가 된다.

\* 조선 시대의 성주는 행정구역상 성주목에 해당하였으며, 성주 목사가 관할하였다.

### Seongsangwan Hall, Seongju

[Gyeongangbuk-do Tangible Cultural Heritage]

Seongsangwan Hall was one of the buildings of the Seongju Local Government during the Joseon period(1392-1910). A name such as Seongsangwan should typically refer to the local government guesthouse, but it is unclear whether this building was part of the guesthouse or not. A guesthouse, called *gwaeksa* and *Joseon period*. The guesthouse consists of a shrine in the center, where a wooden tablet symbolizing the king was held, and a room to each side, which was used as temporary lodging for important guests or officials visiting the region on duty. The wooden tablet, enshrined in each local guesthouse, exhibited the king's sovereignty across the country. To acknowledge this sovereignty, the local magistrate and other officials regularly performed a ceremony here in which they prostrated themselves toward the royal capital.

The local government office of Seongju, established in the early Joseon period, was situated at the sites of the present-day Seongju-gun Office and Seongju Elementary School. The original government office burnt down during the Japanese invasions of 1592-1598. In 1608, magistrate Song Yeong-qui(1556-1620) rebuilt the magistrate's residence, along with this building. Other government buildings were built thereafter by succeeding magistrates. However, most of the buildings were los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1910-1945) and the Korean War(1950-1953), with only Seongsangwan Hall remaining. In 1994, the building was moved slightly due to the construction of the county office. The building's wooden floor is raised off the ground. This design prevents damage from humidity and is commonly found in traditional buildings in the southern region of Korea.

- ❶ 건물의 소실과 재건축의 이유를 밝힘
- ❷ 객사의 정의와 역할을 쉽게 풀이한 설명을 덧붙임
- ❸ 건축학적 특징을 쉬운 용어로 설명
- ❹ 각주 사용으로 옛 행정구역에 대한 설명 보완



# 예천향교

## 醴泉鄉校

종 목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 기존 문안

## 예천 향교

### 醴泉 鄉校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① 제138호

② 소재지: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199-1

이 향교는 흑응산의 동쪽에 있으며 조선

③ 태종(太宗)7년(1407) 현산 서본리에 처음

건립된 것을 동왕 18년(1418)에 군수 김겸(金謙)이 이 자리로 옮겼다고 한다. 이후 효종(孝宗) 때 ④ 증수하는 등 여러 차례의 증수가 있었다.

건축 당시에는 풍영루·전곡청·동서무·동서재·이층 문루등 9동의 건물이 있었으나 지금은 대성전과 명륜당만이 있다.

⑤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맞배집이다.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팔작집이다. 공자를 비롯한 25위의 성현을 모신 곳으로 매년 봄·가을로 석전제를 올리고 있다.



① 지정번호 쓰지 않음

② 소재지 쓰지 않음

③ 잘못된 정보

④ 동어 반복으로 어색한 문장

⑤ 명륜당 특징 뒤에 대성전의 역할을 설명하여 명륜당의 역할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음



문화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부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음

# 예천향교

## 醴泉鄕校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예천향교는 ① 조선 태조 7년(1398) 예천읍 현산에 처음 건립되었고, 태종 18년(1418) 군수 김겸(金謙)이 현재 위치로 옮겨지었다. ② 이후 효종 7년(1656), 효종 9년(1658) 등 여러 차례 다시 고쳐지었다. 오늘날 대창중·고등학교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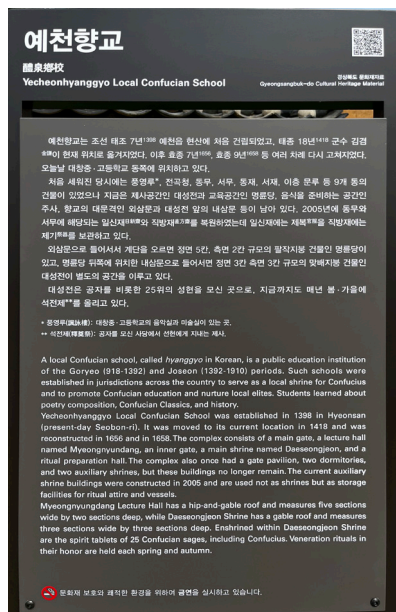
처음 세워진 당시에는 풍영루\*, 전곡청, 동무, 서무, 동재, 서재, 이층 문루 등 9개 동의 건물이 있었으나 지금은 ③ 제사 공간인 대성전과 교육공간인 명륜당, 음식을 준비하는 공간인 주사, 향교의 대문격인 외삼문과 대성전 앞의 내삼문 등이 남아 있다. ④ 2005년에 동무와 서무에 해당되는 일신재(日新齋)와 직방재(直方齋)를 복원하였는데 일신재에는 제복(官服)을 직방재에는 제기(祭器)를 보관하고 있다.

외삼문으로 들어서서 계단을 오르면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팔작지붕 건물인 명륜당이 있고, 명륜당 뒤쪽에 위치한 내삼문으로 들어서면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인 대성전이 별도의 공간을 이루고 있다.

대성전은 공자를 비롯한 25위의 성현을 모신 곳으로, 지금까지도 매년 봄·가을에 석전제\*\*를 올리고 있다.

⑤ \* 풍영루(風詠樓): 대창중·고등학교의 음악실과 미술실이 있는 곳.

\*\* 석전제(釋奠祭): 공자를 모신 사당에서 선현에게 지내는 제사.



- ① 정확한 정보로 정정
- ② 문화재의 재건축 연혁을 자세히 설명
- ③ 각 건물에 대한 설명을 건물의 명칭 앞에 서술하여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임
- ④ 최근에 복원된 건물과 역할을 소개해 현재의 모습에 대한 이해를 도움
- ⑤ 각주 사용으로 개념 설명 보완



# 고산서원

## 高山書院

**종 목** 경상북도 기념물

**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 기존 문안

## 고산서원

### 高山書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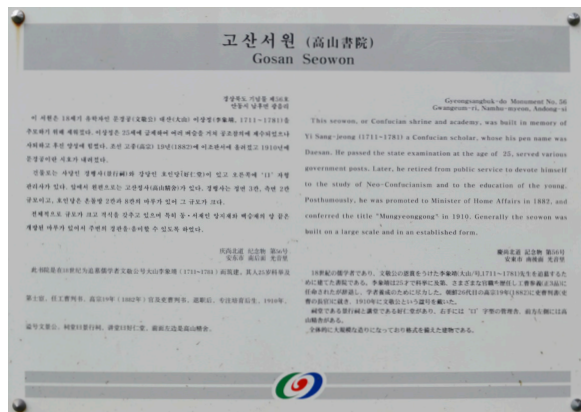
경상북도 기념물 ① 제56호

②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이 서원은 18세기 유학자인 문경공(文敬公)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 ③ 1711~1781)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졌다. 이상정은 25세에 급제하여 ④ 여러 벼슬을 거쳐 공조참의에 제수 되었으나 사퇴하고 후진 양성에 힘썼다. 조선 고종(高宗) 19년(1882)에 이조판서에 올려졌고 1910년에 문경공이란 시호가 내려졌다.

건물로는 사당인 경행사(景行祠)와 강당인 호인당(好仁堂)이 있고 오른쪽에 'ㄷ'자형 관리사가 있다. 앞에서 왼편으로는 고산정사(高山精舍)가 있다. 경행사는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이고, 호인당은 온돌방 2칸과 8칸의 마루가 있어 그 규모가 크다.

전체적으로 규모가 크고 격식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동·서 재인 양지재와 백승재의 양 끝은 개방된 마루가 있어서 주변의 경관을 음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① 지정번호 쓰지 않음
- ② 소재지 쓰지 않음
- ③ 인물 출생, 사망 연도 표기 지양
- ④ 한문을 그대로 옮겨 적어 인물이 이룬 업적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움

# 고산서원

## 高山書院

### 경상북도 기념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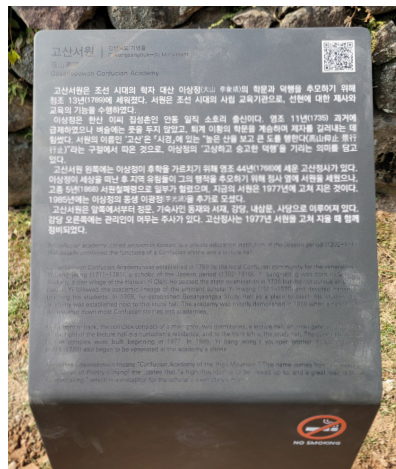
고산서원은 조선 시대의 학자 대신 이상정(大山 李象靖)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정조 13년(1789)에 세워졌다.

① 서원은 조선 시대의 사립 교육기관으로, 선현에 대한 제사와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상정은 한산 이씨 집성촌인 안동 일직 소호리 출신이다. 영조 11년(1735)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벼슬에는 뜻을 두지 않았고, 퇴계 이황의 학문을 계승하며 제자를 길러내는 데 힘썼다. ② 서원의 이름인 '고산'은 『시경』에 있는 “높은 산을 보고 큰 도를 행한다(高山仰止 景行行止)”라는 구절에서 따온 것으로, 이상정의 '고상하고 숭고한 덕행'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고산서원 왼쪽에는 이상정이 후학을 가르치기 위해 영조 44년(1768)에 세운 고산정사가 있다. ③ 이상정이 세상을 떠난 후 지역 유림들이 그의 행적을 추모하기 위해 정사 옆에 서원을 세웠으나, 고종 5년(1868) 서원철폐령으로 일부가 헐렸으며, 지금의 서원은 1977년에 고쳐 지은 것이다. 1985년에는 이상정의 동생 이광정(李光靖)을 추가로 모셨다.

고산서원은 앞쪽에서부터 정문, 기숙사인 동재와 서재, 강당, 내삼문, 사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강당 오른쪽에는 관리인이 머무는 주사가 있다. 고산정사는 1977년 서원을 고쳐 지을 때 함께 정비되었다.



- ① 문화재 개념 설명을 추가해 이해도를 높임
- ② 서원 이름의 유래를 밝혀 흥미로움
- ③ 고산정사에 대한 설명을 통해 현재 문화재 모습의 이해를 도움



# 함평 고막천 석교

咸平 古幕川 石橋

종 목 보물

지역 전라남도 함평군

## 기존 문안

## 함평 고막천 석교

咸平 古幕川 石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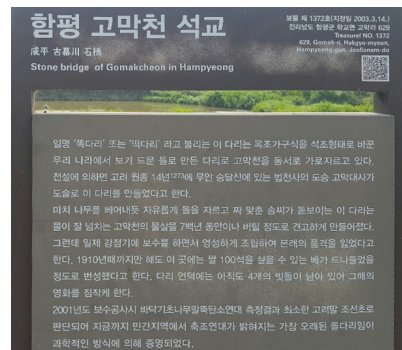
보물 ① 제 1372호(지정일 2003. 3. 14.)

②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629

일명 ‘뚝다리’ 또는 ‘떡다리’ 라고 불리는 이 다리는 목조가 구식을 석조형태를 바꾼 우리 나라에서 보기 드문 돌로 만든 다리로 고막천을 동서로 가로지르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고려 원종 14년(1273)에 무안 승달산에 있는 법천사의 도승 고막대사가 도술로 이 다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마치 나무를 베어내듯 자유롭게 돌을 자르고 짜 맞춘 솜씨가 돋보이는 이 다리는 물이 잘 넘치는 고막천의 물살을 7백년 동안이나 버틸 정도로 견고하게 만들어졌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 보수를 하면서 영성하게 조립하여 ③ 본래의 품격을 잃었다고 한다. 1910년대까지만 해도 이 곳에는 쌀 100석을 실을 수 있는 배가 드나들었을 정도로 번성했다고 한다. 다리 언덕에는 아직도 4개의 빗돌이 남아 있어 그때의 영화를 짐작케 한다.

2001년도 보수공사시 ④ 바닥기초나무말뚝탄소연대 측정결과 최소한 고려말 조선초로 판단되어 지금까지 민간지역에서 축조연대가 밝혀지는 가장 오래된 돌다리임이 과학적인 방식에 의해 증명되었다.



① 지정번호, 지정일 쓰지 않음

② 소재지 쓰지 않음

③ 견고함을 설명한 앞 문장과 상응하지 않는 표현 사용

④ 연대 측정법에 대한 풀이가 없고 띄어쓰기를 지키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움



내용은 좋으나, 문맥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구성이 아쉬움

개선 문안

# 함평 고막천석교

咸平 古幕川石橋

## 보물

함평 고막천석교는 고막천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돌다리로, 일명 ‘뚝다리’ 또는 ‘떡다리’라고 부른다. 전설에 따르면 고려 원종 14년(1273)에 무안 승달산에 있는 범천사의 도승 고막 대사가 도술을 부려 이 다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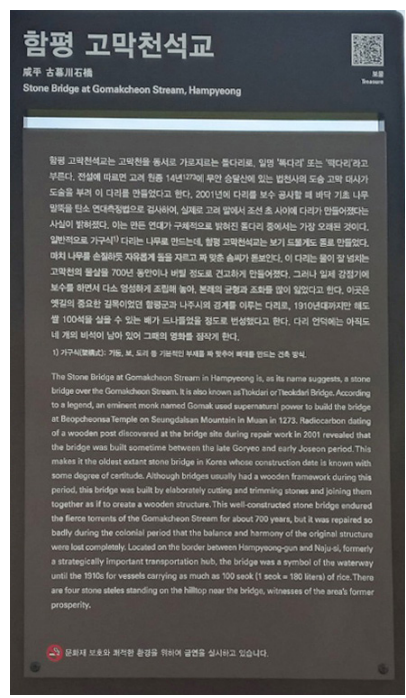
2001년에 다리를 보수 공사할 때 ❶ **바닥 기초 나무 말뚝을 탄소 연대측정법으로 검사하여**, 실제로 고려 말에서 조선 초 사이에 다리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만든 연대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돌다리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구식<sup>1)</sup> 다리는 나무로 만드는데, 함평 고막천석교는 보기 드물게 돌로 만들었다. 마치 나무를 손질하듯 자유롭게 돌을 자르고 짜 맞춘 솜씨가 돋보인다.

이 다리는 물이 잘 넘치는 고막천의 물살을 700년 동안이나 버틸 정도로 견고하게 만들어졌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보수를 하면서 다소 영성하게 조립해 놓아, 본래의 균형과 조화를 많이 잃었다고 한다.

이곳은 옛길의 중요한 길목이었던 함평군과 나주시의 경계를 이루는 다리로, 1910년대까지만 해도 쌀 100석을 실을 수 있는 배가 드나들었을 정도로 번성했다고 한다. 다리 언덕에는 아직도 네 개의 비석이 남아 있어 그때의 영화를 짐작케 한다.

❷ 1) 가구식(架構式): 기둥, 보, 도리 등 기본적인 부재를 짜 맞추어 뼈대를 만드는 건축 방식.



❶ 연대 측정 방법을 밝히고, 띄어쓰기 맞춤법을 지켜 이해를 도움

❷ 각주 사용으로 전문 용어 풀이



기존 문안과 내용은 같지만, 짜임새 있게 재구성하여 가독성이 좋게 정비됨





# 삼괴정

## 三槐亭

종 목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 기존 문안

## 삼괴정

### 三槐亭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① 제268호

이 건물은 임진왜란 때 경주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운 동호(東湖) 이방린(李芳隣, ② 1574~1624)과 동생 유린(有隣), 광린(光隣) 삼형제를 추모하기 위해 조선 순조(純祖) 15년(1815)에 세운 정자이다.

이방린은 임진왜란 때 경주판관(慶州判官) 박의장(朴毅長), 의병장 권응수(權應銖)등과 함께 영천성(永川城)전투에 참가하였고, ③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를 사용하여 경주성을 회복하는 공을 세웠다. 그리고 경주의 계연(鷄淵)전투에서도 공을 세워 안동대도호부판관 겸부사(安東大都護府判官 兼 府使)를 지냈다.

가운데에 3칸 마루를 깔고 양 옆에 온돌방을 두었으며, 가운데칸 뒤쪽 필경재(必敬齋)는 이방린을, 왼쪽의 화수당(花樹堂)과 오른쪽의 포죽헌(苞竹軒)은 두 동생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 한다. 뒷산을 배경으로 정남쪽을 향하도록 터를 잡았다. 땅 모양에 순응하여 기단을 쌓은 뒤 다락집을 꾸민 독특한 구조를 하고 있다.

#### 삼괴정 三槐亭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68호

이 건물은 임진왜란 때 경주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운 동호(東湖) 이방린(李芳隣, 1574~1624)과 동생 유린(有隣), 광린(光隣) 삼형제를 추모하기 위해 조선 순조(純祖) 15년(1815)에 세운 정자이다.

이방린은 임진왜란 때 경주판관(慶州判官) 박의장(朴毅長), 의병장 권응수(權應銖)등과 함께 영천성(永川城) 전투에 참가하였고,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를 사용하여 경주성을 회복하는 공을 세웠다. 그리고 경주의 계연(鷄淵) 전투에서도 공을 세워 안동대도호부판관 겸부사(安東大都護府判官 兼 府使)를 지냈다. 가운데칸 뒤쪽 필경재(必敬齋)는 이방린을, 왼쪽의 화수당(花樹堂)과 오른쪽의 포죽헌(苞竹軒)은 두 동생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 한다. 뒷산을 배경으로 정남쪽을 향하도록 터를 잡았다. 땅 모양에 순응하여 기단을 쌓은 뒤 다락집을 꾸민 독특한 구조를 하고 있다.

#### Samgojeong Pavilion

Gyeongangbuk-do 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268

This pavilion was built in honor of I Bang-rin (1574~1624) and his younger brothers, Yu-rin and Gwang-rin, who organized a volunteer militia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96. In 1815, the 15th year of Joseon King Sunjo.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I Bang-rin participated in Yeongcheon fortress battle along with Bak Yi-jang and General Gwon Byung-su, and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regain the Gyeongju and Gyeongcheon fortress. He also offered a great service at winning Gyeoncheon battle in Gyeongju. Later, he served the government as the magistrate of Andong.

#### 三槐亭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68호

この建物は文祿の役の際に慶州地域で義兵を起し、自戦した李芳隣(1574~1624)と弟の有隣と光隣の三兄弟を追慕するために、朝鮮時代の純祖15年(1815)に建てられたものである。

建物は凡人が人間の義の魂で、再臨にオンドル部がある。地形を利用して基壇を築き上方に上に建物を建てた。その構造が独特である。

- ① 지정번호 쓰지 않음
- ② 인물 출생, 사망 연도 표기 지양
- ③ 무기 명칭을 한문으로만 표기해 추가 설명 필요

# 삼괴정

三槐亭

유형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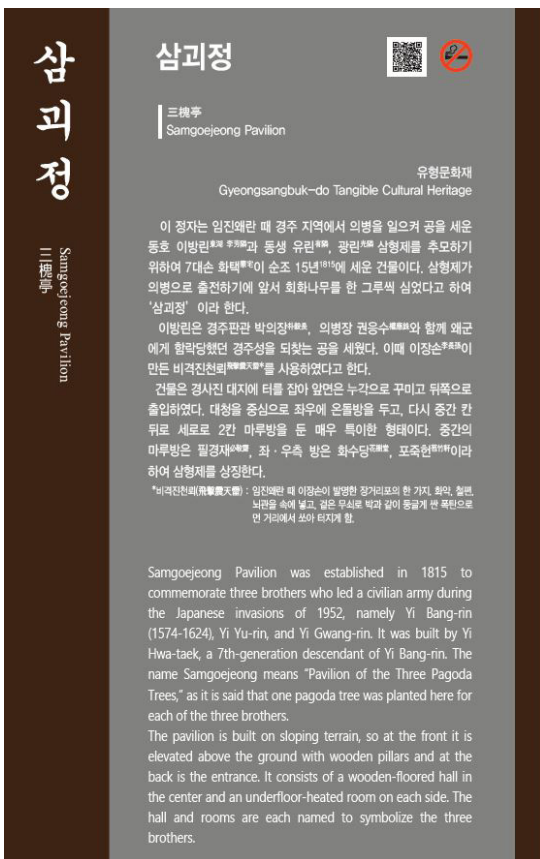
이 정자는 임진왜란 때 경주 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운 동호 이방린(東湖 李芳隣)과 동생 유린(有隣), 광린(光隣) 삼형제를 추모하기 위하여

① 7대손 화택(華宅)이 순조 15년(1815)에 세운 건물이다. ② 삼형제가 의병으로 출전하기에 앞서 회화나무를 한 그루씩 심었다고 하여 '삼괴정'이라 한다.

이방린은 경주판관 박의장(朴毅長), 의병장 권응수(權應銖)와 함께 왜군에게 함락당했던 경주성을 되찾는 공을 세웠다. 이때 이장손(李長孫)이 만든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를 사용하였다 고 한다.

③ 건물은 경사진 대지에 터를 잡아 앞면은 누각으로 꾸미고 뒤쪽으로 출입하였다.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을 두고, 다시 중간 칸 뒤로 세로로 2칸 마루방을 둔 매우 특이한 형태이다. 중간의 마루방은 필경재(必敬齋), 좌·우측 방은 화수당(花樹堂), 포죽헌(苞竹軒)이라 하여 삼형제를 상징한다.

④ \*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 : 임진왜란 때 이장손이 발명한 장거리포의 한 가지. 화약, 철편, 뇌관을 속에 넣고, 겉은 무쇠로 박과 같이 둥글게 싼 폭탄으로 먼 거리에서 쏘아 터지게 함.



## 삼괴정

三槐亭  
Samgojeong Pavilion

유형문화재  
Gyeongsangbuk-do Tangible Cultural Heritage

이 정자는 임진왜란 때 경주 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운 동호 이방린(東湖 李芳隣)과 동생 유린(有隣), 광린(光隣) 삼형제를 추모하기 위하여 7대손 화택(華宅)이 순조 15년(1815)에 세운 건물이다. 삼형제가 의병으로 출전하기에 앞서 회화나무를 한 그루씩 심었다고 하여 '삼괴정'이라 한다.

이방린은 경주판관 박의장(朴毅長), 의병장 권응수(權應銖)와 함께 왜군에게 함락당했던 경주성을 되찾는 공을 세웠다. 이때 이장손(李長孫)이 만든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건물은 경사진 대지에 터를 잡아 앞면은 누각으로 꾸미고 뒤쪽으로 출입하였다.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을 두고, 다시 중간 칸 뒤로 세로로 2칸 마루방을 둔 매우 특이한 형태이다. 중간의 마루방은 필경재(必敬齋), 좌·우측 방은 화수당(花樹堂), 포죽헌(苞竹軒)이라 하여 삼형제를 상징한다.

\*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 : 임진왜란 때 이장손이 발명한 장거리포의 한 가지. 화약, 철편, 뇌관을 속에 넣고, 겉은 무쇠로 박과 같이 둥글게 싼 폭탄으로 먼 거리에서 쏘아 터지게 함.

Samgojeong Pavilion was established in 1815 to commemorate three brothers who led a civilian army during the Japanese invasions of 1952, namely Yi Bang-rin (1574-1624), Yi Yu-rin, and Yi Gwang-rin. It was built by Yi Hwa-taek, a 7th-generation descendant of Yi Bang-rin. The name Samgojeong means "Pavilion of the Three Pagoda Trees," as it is said that one pagoda tree was planted here for each of the three brothers.

The pavilion is built on sloping terrain, so at the front it is elevated above the ground with wooden pillars and at the back is the entrance. It consists of a wooden-floored hall in the center and an underfloor-heated room on each side. The hall and rooms are each named to symbolize the three brothers.

- ① 건축 인물을 밝힘
- ② 문화재명의 유래를 밝혀 흥미로움
- ③ 기존 문안을 다듬어 가독성을 높임
- ④ 각주 사용으로 조선시대 무기에 대한 이해를 도움



# 아산 맹씨 행단

## 牙山 孟氏 杏壇

종 목 사적

지역 충청남도 아산시

### 기존 문안

## 아산 맹씨 행단

### 牙山 孟氏 杏壇

사적 ① 제109호, 1963. 1.21. 지정  
 ② 아산사 배방읍 중리 300, 조선 시대 초기

맹씨 행단은 조선초기 청백리로 유명한 맹사성(孟思誠, ③ 1360~1438)의 집안이 살던곳으로 지역 안에는 고택과 세덕사, 구괴정, 두 그루의 은행나무가 있다.

고택은 정면 4칸, 측면 3칸의 “工”자형 집이다. 중앙 2칸에 커다란 대청을 사이에 두고 왼쪽과 오른쪽에 온돌방을 둔 홀 처마의 맞배지붕 건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④ 고민가(古民家)이다. 세덕사(世德祠)에는 고려말 두문동(杜門洞) 72현인 맹유(孟裕)·맹희도(孟希道)·맹사성의 위패가 있다. 구괴정(九槐亭)에는 세종 때 황희(黃喜)·맹사성·권진(權軫) 등 3정승이 9그루의 느티나무(槐木)를 심었다고 전하는데, 지금은 2그루만이 남아 있다.

맹씨행단은 맹사성이 심었다고 전해지는 600여 년 된 은행나무가 있어 ‘행단(杏壇)’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또한 ‘행단’은 후학에게 글을 가르치고 공부하던 자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 아산 맹씨 행단

牙山 孟氏 杏壇 | Ho | e of th e Maeng Clan, Asan

맹씨 행단은 조선 초기 청백리로 유명한 맹사성(孟思誠, 1360~1438)의 집안이 살던곳으로 지역 안에는 고택과 세덕사, 구괴정, 두 그루의 은행나무가 있다. 고택은 정면 4칸, 측면 3칸의 “工”자형 집이다. 중앙 2칸에 커다란 대청을 사이에 두고 왼쪽과 오른쪽에 온돌방을 둔 홀 처마의 맞배지붕 건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민가(古民家)이다. 세덕사(世德祠)에는 고려말 두문동(杜門洞) 72현인 맹유(孟裕)·맹희도(孟希道)·맹사성의 위패가 있다. 구괴정(九槐亭)에는 세종 때 황희(黃喜)·맹사성·권진(權軫) 등 3정승이 9그루의 느티나무(槐木)를 심었다고 전하는데, 지금은 2 그루만이 남아 있다. 맹씨 행단은 맹사성이 심었다고 전해지는 600여 년 된 은행나무가 있어 ‘행단(杏壇)’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또한 ‘행단’은 후학에게 글을 가르치고 공부하던 자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This well-known site of two ginkgo trees includes the old house where members of the family of Maeng Sa seong (1360- 438) once lived. Maeng was famous for his uprightness as a government official. The “I.”-shaped house with a gable roof measures 4 f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by 3 fan. The large wood-flavored hall in the middle is flanked by two oodol rooms (Underfloor-heated Rooms). The site also includes an ancestral shrine named Seodeoksa, in which the mortuary tablets of Maeng Sa-seong, a former prime minister, his father Maeng Hui-do, and his grandfather Maeng Yu are kept. His father and grandfather were among the seventy-two people of Damsa-dong who remained faithful to the dying Goryeo Dynasty (118-1392) to the very end. It is said that three prime ministers (Hwang Hui, Maeng Sa-seong, and Gwon Jin), who served King Sejong (r. 1418-1450), planted nine relicks trees near Gwopsoong Pavilion, although only the two zelkoves we can see today remain. The name Haengdan (Ginkgo Place) was given to this spot after a ginkgo tree estimated to be over 600 years old, which is said to have been planted by Maeng Sa-seong. The name Haengdan (Ginkgo Place) also means “a place for studying and teaching young people.”

문안의 일부 글자가 훼손되어 읽기 불편함

- ① 지정번호, 지정일 쓰지 않음
- ② 소재지 쓰지 않음
- ③ 인물의 출생, 사망 연도 표기 지양
- ④ 불필요한 한문 사용



한문 병기 사용이 많아 문안의 가독성이 낮은 점이 아쉬움

개선 문안

# 아산 맹씨 행단

牙山 孟氏 杏壇

## 사적

아산 맹씨 행단은 고려 말-조선 초기의 청백리 맹사성(孟思誠, 1360~1438)이 살던 곳이다. 이곳은 원래 ❶ **최영 장군이 살던 곳으로, 그의 손녀사위인 맹사성에게 행단을 물려주면서 맹씨 집안이 대대로 살았다. 앞마당에 600여 년 된 은행나무가 있어 행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❷ ‘행단’은 공자가 은행나무 아래서 제자들에게 학문을 가르쳤다는 데서 유래한 말로, 일반적으로 학문을 갈고닦는 곳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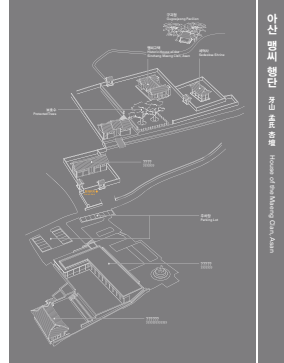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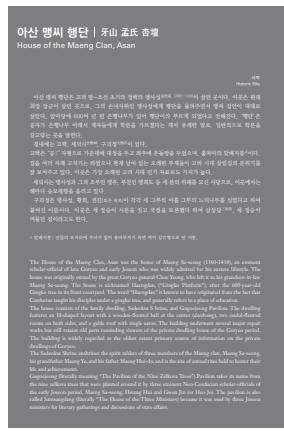
경내에는 고택, 세덕사(世德祠), 구괴정(九槐亭)이 있다.

고택은 “공(工)자형으로 가운데에 대청을 두고 좌우에 온돌방을 두었으며, 흠처마의 맞배지붕\*이다. 집을 여러 차례 고치기는 하였으나 현재 남아 있는 오래된 부재들이 고려 시대 살림집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곳은 ❸ **가장 오래된 고려 시대 민가 자료로도 가치가 높다.**

세덕사는 맹사성과 그의 조부인 맹유, 부친인 맹희도 등 세분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이곳에서는 해마다 승모제향을 올리고 있다.

구괴정은 맹사성, 황희, 권진[혹은 허조]이 각각 세 그루씩 아홉 그루의 느티나무를 심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❹ **이곳은 세 정승이 시문을 짓고 국정을 토론했다 하여 삼상당(三相堂), 세 정승이 머물던 집이라고도 한다.**

❶ \* 맞배지붕 : 건물의 모서리에 추녀가 없이 용마루까지 측면 벽이 삼각형으로 된 지붕.



맹씨 행단의 도면이 삽입된 안내판을 추가하여 문화재 규모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❶ 문화재와 관련된 역사적 인물을 언급해 더욱 친숙하고 흥미롭게 문화재를 소개
- ❷ 문화재 종류의 개념을 밝혀 이해를 도움
- ❸ 문화재의 가치를 밝힘
- ❹ 문화재의 별칭을 밝혀 흥미를 유발함
- ❺ 각주 사용으로 전문용어 풀이



기존 문안에 비해 스토리텔링이 잘 되어 있어 문안이 흥미로움



# 관동묘려

## 寬洞墓廬

종 목 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지역 대전광역시

### 기존 문안

## 관동묘려

### 寬洞墓廬

지정 번호 : 문화재자료 ① 제37호  
② 위 치 : 동구 마산동 96

쌍청당 송유(雙淸堂 宋兪, ③ 1389~1446)의

어머니 류씨부인의 묘 아래에 제향을 지내기 위해 지어 놓은 재실(齋室)이다. 양쪽 옆으로 2칸씩의 방과 공간이 달린 솥을대문 안에 ㄱ자형 평면으로 지어진 관동묘려는 안방과 건넌방, 대청, 부엌 등을 드린 민가 형태의 재실이다. 재실 대청에 “관동묘려(寬洞墓廬)”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재실 동쪽편에 류씨부인의 묘소가 있다.

**관동묘려(寬洞墓廬) Gwandongmyeryeo(a shrine)**

■ 지정 번호 : 문화재자료 제37호  
■ 위 치 : 동구 마산동 96

쌍청당 송유(雙淸堂 宋兪, 1389~1446)의 어머니 류씨부인의 묘 아래에 제향을 지내기 위해 지어 놓은 재실(齋室)이다. 양쪽 옆으로 2칸씩의 방과 공간이 달린 솥을대문 안에 ㄱ자형 평면으로 지어진 관동묘려는 안방과 건넌방, 대청, 부엌 등을 드린 민가 형태의 재실이다. 재실 대청에 “관동묘려(寬洞墓廬)”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재실 동쪽 편에 류씨부인의 묘소가 있다.

Daejeon Metropolitan City Cultural Property Material No. 37  
Location : 96 Masan-dong, Dong-gu

This house was built right below the tomb of Ms. Yu to carry out memorial services for her. She was the mother of a renowned scholar, Song Yu(1389-1446). Inside the 'Soseuldaemun' which has two rooms of two kans in both sides and a storage. 'Gwandongmyeryeo' is a 'ㄱ'-shaped house which has a women's bed room, a men's bed room, a main hall, and a kitchen. In front of the main hall, a wooden board which reads "Gwandongmyeryeo" is hanging up. To the east of the shrine, there is Ms. Yu's grave.

대전광역시

- ① 지정번호 쓰지 않음
- ② 소재지 쓰지 않음
- ③ 인물의 탄생, 사망 연도 표기 지양



전반적으로 문안이 짧고, 문화재 명칭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어 아쉬움

## 관동묘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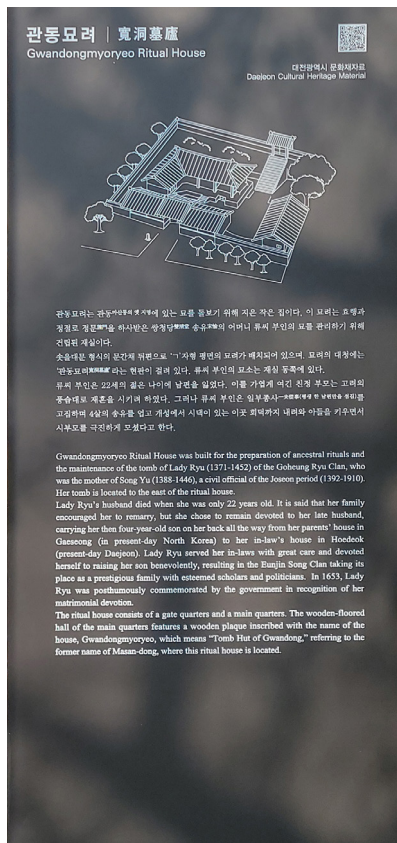
寬洞墓廬

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관동묘려는 ① 관동(마산동의 옛 지명)에 있는 묘를 돌보기 위해 지은 작은 집이다. ② 이 묘려는 효행과 정절로 정문(旌門)을 하사받은 쌍청당(雙淸堂) 송유(宋兪)의 어머니 류씨 부인의 묘를 관리하기 위해 건립된 재실이다.

솥을대문 형식의 문간채 뒤편으로 ‘ㄱ’자형 평면의 묘려가 배치되어 있으며, 묘려의 대청에는 ‘관동묘려(寬洞墓廬)’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류씨 부인의 묘소는 재실 동쪽에 있다.

③ 류씨 부인은 22세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다. 이를 가엽게 여긴 친정 부모는 고려의 풍습대로 재혼을 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류씨 부인은 일부종사(一夫從事(평생 한 남편만을 섬김))를 고집하며 4살의 송유를 업고 개성에서 시택이 있는 이곳 회덕까지 내려와 아들을 키우면서 시부모를 극진하게 모셨다고 한다.



- ① 옛 지명임을 부연 설명으로 밝힘
- ② 문화재의 개념을 설명해 이해도를 높임
- ③ 류씨 부인에 대한 인품을 설명해 문화재의 의미를 부각



문화재의 구체적인 조성배경과 관련 인물의 인품을 알 수 있는 일화를 설명해 흥미로움



# 정조 어제 채제공 뇌문비

正祖 御製 蔡濟恭 誄文碑

종 목 경기도 유형문화재

지역 경기도 용인시

## 기존 문안

### 1 정조 어제 채제공 선생 뇌문

지정번호 : 경기도 유형문화재 2 제76호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산3-12

조선 후기의 명신 정조 어제 채제공(蔡濟恭, 4 1720~1799)의 장례 일에 애도의 뜻으로 정조가 보낸 뇌문을 새긴 비석이다.

뇌문은 죽은 이의 명복을 신에게 비는 글로 5 제문이 일종이다.

정조 어제 채제공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영조 19년(1743)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영의정에까지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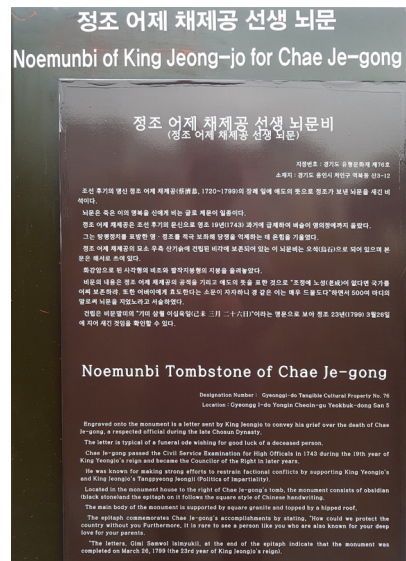
그는 탕평정치를 표방한 영·정조를 적극 보좌해 당쟁을 억제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정조 어제 채제공의 묘소 우측 산기슭에 건립된 비각에 보존되어 있는 이 뇌문비는 오석(烏石)으로 되어 있으며 본문은 해서로 쓰여 있다.

화강암으로 된 사각형의 비조와 팔작지붕형의 지붕을 올려놓았다.

비문의 내용은 정조 어제 채제공의 공적을 기리고 애도의 뜻을 표한 것으로 “조정에 노성(老成)이 없다면 국가를 어찌 보존하라. 또한 아버지에게 효도한다는 소문이 자자하니 경 같은 이는 매우 드물도다” 하면서 500여 마디의 말로써 뇌문을 지었노라고 서술하였다.

건립은 비문말미의 “기미 삼월 이십육일(己未 三月 二十六日)”이라는 명문으로 보아 정조23년(1799) 3월26일에 지어 새긴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 1 문화재청 누리집 기준 명칭과 다른 표기
- 2 지정번호 쓰지 않음
- 3 소재지 쓰지 않음
- 4 인물의 탄생, 사망 연도 표기 지양
- 5 맞춤법 오류

# 1 정조 어제 채제공 뇌문비

正祖 御製 蔡濟恭 誄文碑

경기도 유형문화재

2 정조 어제 채제공 뇌문비는 조선 후기 정조가 명재상 채제공의 죽음을 애도하며 친히 지어 보낸 뇌문을 새긴 석비이다. 뇌문은 죽은 이의 명복을 신에게 비는 글로 제문의 일종이다.

채제공은 조선 후기 영조, 정조 대의 문신이자 명재상으로 평가받는 인물로, 23세 때인 영조 19년(1743) 문과에 급제한 후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예문관\* 사관과 충청도 암행어사를 지냈으며 도승지, 병조판서, 평안도 관찰사를 거쳐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을 지냈다. 3 영조 34년(1758) 영조와 사도세자의 사이가 악화되고 세자 폐위가 결정되자 채제공은 죽음을 무릅쓰고 세자 폐위를 막아 철회시켰다. 이를 두고 후일 영조는 정조에게 “진실로 나의 사심 없는 신하이고 너의 충신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일화가 있다. 채제공은 재상으로 일했던 10여 년 동안 여러 분야에 걸쳐 정조를 보필하였다. 정조 13년(1788) 우의정에 특채된 후 영의정에 올라 수원 화성을 건립하는 성역(城役)을 담당하다가 정조 23년(1798) 사직하였다.

비는 비각 안에 있으며, 네모난 받침돌 위에 비의 몸을 세우고, 지붕돌을 얹었다. 받침돌과 지붕돌은 화강암이며 몸돌은 검은 빛갈의 오석으로 되어 있다. 비문을 누가 썼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비문에는 채제공의 공적을 기리는 내용과 애도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4 서두에 “소나무처럼 높고 높아 우뚝 솟았고, 산처럼 깎아지른 듯 험준하여라”라고 칭송하였고, “그 기개는 얽은 구름같이 넓고, 도량은 바다를 삼킬 듯 크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정조는 “경(채제공)을 알고 경을 씬에 내 독실하게 믿었노라”, “조정에 노성(老成, 채제공)이 없다면 국가를 어찌 보존하랴. 또한 어버이에게 효도한다는 소문이 자자하니 경 같은 이는 매우 드물도다”라고 하며 채제공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건립 연대는 ‘기미(己未) 삼월(三月) 이십육일(二十六日)’이라고만 쓰여 있는데 5 채제공 문집인 『번암집(樊巖集)』에 ‘무덤 길에 비를 세우도록 명했다.(命壘碑墓道)’라는 기록이 있어 1799년 채제공이 죽은 후에 바로 정조의 명령에 따라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 예문관 : 조선시대에 국왕의 말이나 명령을 담은 문서의 작성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한 관서



- 1 문화재청 누리집 기준 명칭으로 정정
- 2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 설명
- 3 왕과 인물의 일화를 통해 관계성을 설명하고, 문화재 건립 의미를 부각
- 4 인물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비문을 설명
- 5 건립 추정 시기를 기록물을 근거로 밝힘
- 6 각주 사용으로 부연 설명







## [사례분석]

### 안동 도산서원(2020)

서원은 한국 유교 문화의 핵심이 되는 양반사회와 그 정신문화가 담겨있는 문화유산이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공간(강학공간)과 이름난 학자들에게 제사를 올리기 위한 공간(제향공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공간 내의 건물들은 그 기능과 위계에 따라 배치되어 있다. 서원 유형의 안내판의 경우 다음과 같이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 1) 종합안내판: 서원의 정의, 제향인물, 역사, 공간 구성,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등
- 2) 권역안내판: 강학공간 및 제향공간 등 기능에 따른 구분, 각 공간에 배치된 건물 소개 등
- 3) 개별안내판: 각 건물의 기능, 개별적 특성 등



## 안동 도산서원 安東 陶山書院

### 사적

- ① 도산서원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대학자인 퇴계 이황(退溪 李滉)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세운 서원이다. ② 유림의 발의로 1574년 도산서당 뒤편에 세우기 시작하여 1575년 낙성이 되자 선조(1567~1608 재위)로부터 한석봉이 쓴 ‘도산서원(陶山書院)’의 편액을 받아 사액서원(賜額書院)이 되었다. 1576년에는 퇴계의 위패를 봉안하였다. 1792년에는 정조(1776~1800 재위)가 퇴계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향사에 필요한 물품을 친히 내리고 특별 과거인 별시를 도산서원에서 열기도 하였다. 그 후 도산서원은 19세기 후반 서원철폐령에도 영남 유학의 중심 역할을 해 온 중요성을 인정받아 철거되지 않았다.
- ③ 도산서원은 퇴계가 제자들을 가르쳤던 도산서당과 기숙사인 농운정사를 비롯하여 퇴계 사후에 만든 전교당, 상덕사, 전사청이 있다. 그리고 제자들이 머물며 공부하던 박약재와 홍의재, 서원에서 만든 목판을 보관하던 장관각, 서원 관리인의 숙소 등 여러 부속 건물들이 있다.
- ④ 도산서원은 2019년 7월 “한국의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8곳의 서원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 ① 도산서원 정의
- ② 도산서원의 역사 및 중요성
- ③ 도산서원을 구성하는 건물들
- ④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 개별안내판



# 안동 도산서원 상덕사 및 삼문

## 安東 陶山書院 尚德祠 및 三門

### 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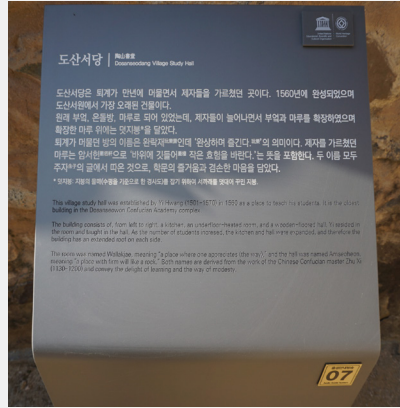
- ❶ 상덕사는 퇴계와 제자 조목(趙穆)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며, 삼문은 사당으로 들어가는 입구이다.
- ❷ 상덕사는 1574년에 지었다. 일반적으로 사당 건물은 간결하게 맞배지붕\*으로 짓는데 도산서원의 사당은 팔작지붕\*\*을 얹었다. 매년 음력 2월과 8월 중정일(申丁日)에 향사를 받드는데 3일 전부터 준비하여 당일 오전 11시에 지낸다. 사당에는 퇴계의 제자인 조목(趙穆)이 중향되어 있다.

- ❶ 상덕사 및 삼문의 기능
- ❷ 상덕사 건립 시기, 건축적 특징, 향사일
- ❸ 삼문 건립 시기, 건축적 특징

❸ 삼문은 상덕사와 같은 때에 지어졌다. 가운데 문은 흔히 다니는 문이라 하여 사람이 쓰지 않고, 사람들은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고 나온다.

\* 맞배지붕: 건물의 모서리에 추녀가 없이 용마루까지 측면 벽이 삼각형으로 된 지붕.

\*\* 팔작지붕: 팔작지붕은 사다리꼴의 맞배지붕에 측면에 지붕을 달아낸 형식의 지붕을 지칭한다. 높은 곳에서 지붕을 내려다 봤을 때 그 모습이 팔(八)자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여 팔작이라고 한다.



## 도산서당 陶山書堂

❶ 도산서당은 퇴계가 만년에 머물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곳이다. 1560년에 완성되었으며 도산서원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❷ 원래 부엌, 온돌방, 마루로 되어 있었는데, 제자들이 늘어나면서 부엌과 마루를 확장하였으며 확장한 마루 위에는 덧지붕\*을 달았다.

❸ 퇴계가 머물던 방의 이름은 완락재(玩樂齋)인데 ‘완상하며 즐긴다.(玩樂)’의 의미이다. 제자를 가르쳤던 마루는 암서헌(巖栖軒)으로 ‘바위에 깃들여(巖棲) 작은 효험을 바란다.’는 뜻을 포함한다. 두 이름 모두 주자(朱子)의 글에서 따온 것으로, 학문의 즐거움과 겸손한 마음을 담았다.

\* 덧지붕: 지붕의 물매(수평을 기준으로 한 경사도)를 잡기 위하여 서까래를 덧대어 꾸민 지붕

❶ 기능과 건립 시기

❷ 건축적 특징

❸ 이름에 담긴 뜻

## 개별안내판



### 시사단 試士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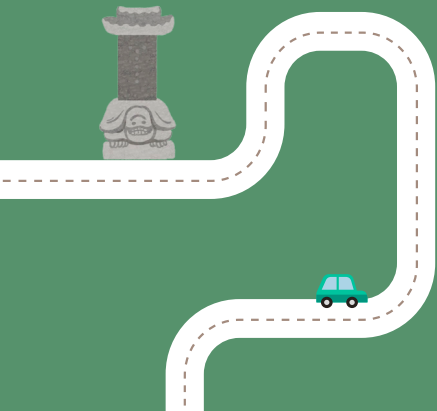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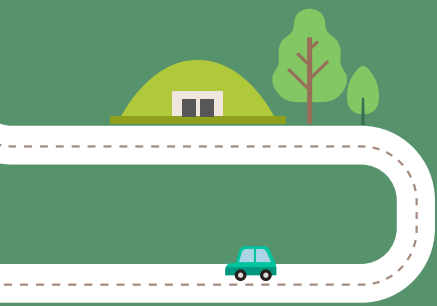
❶ 시사단은 조선시대 특별 과거시험을 보았던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과 비각\*이 있는 곳이다. ‘시사(試士)’는 선비에게 시험을 보인다는 뜻이다.

❷ 1792년 정조는 평소 존경하던 퇴계를 추모하기 위해 이곳에서 과거시험을 열고 영남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도록 하였다. 시험 응시자만 7천여 명에 이르렀고 문과급제 2명 등을 선발하였다. 시험을 기념하기 위해 1796년 이곳에 단을 마련하고 비석을 세웠는데, 비문은 당시 영의정이었던 채제공(蔡濟恭)이 지었다.

❸ 안동댐으로 수몰되기 전에는 도산서원과 마주 보이는 강변의 소나무가 우거진 곳에 비각이 세워져 있었다. 1975년 안동댐 건설 이후 원래 있던 자리에 10m 높이의 돌로 축대를 쌓아 올린 뒤 옛 건물과 비석을 원형대로 옮겨지었다.

- ❶ 시사단 정의, 이름에 담긴 뜻
- ❷ 시사단과 관련한 역사적 사건
- ❸ 이건 및 보수 내력

\* 비각: 비를 세우고 비바람 따위를 막기 위하여 그 위를 덮어 지은 집.



2022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

---

# 사적



종교·신앙 / 관방유적 / 묘역







# 전주 경기전

## 全州 慶基殿

종 목 사적

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 기존 문안

## 경기전

庆基殿  
慶基殿

사적 ① 제 339호

②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44

경기전은 조선을 건국한 ③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를 봉안한 곳이다. 경기전의 ③ 태조어진은 현존하는 유일한 조선건국자의 초상이며, 경기전 또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지방의 진전이다. 어진(御眞)은 왕의 초상, 진전(眞殿)은 어진을 봉안한 궁전을 일컫는다.

조선은 건국 후 이를 기념해 ④ 1410년(태종 10) 태조어진을 전주에 봉안하였다. 현재의 경기전은 ④ 1614년(광해군 6)에 중건한 것이다. 경기전 경내에는 진전 동편으로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던 전주사고가 있고, 구이 태실마을에서 옮겨온 예종대왕 태실이 있다. 경기전 북편에는 전주이씨 시조를 모신 조경묘가 있으며, 그 옆으로 태조 어진과 경기전의 역사를 담은 어진박물관이 있다.

경 기 전

사적 제 339호  
Historic assets the 339 th  
史迹 第 339号

Gyeonggijeon(Hall)  
庆基殿  
慶基(キョングジヨン)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44  
#44, Taejo-ro, Wansan-gu, Jeonju-si, Jeollabuk-do  
全罗北道 全州市 完山区 太祖路 44

경기전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들/봉안한 곳이다. 경기전의 태조어진은 현존하는 유일한 조선건국자의 초상이며, 경기전 또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지방의 진전이다. 어진(御眞)은 왕의 초상, 진전(眞殿)은 어진을 봉안한 궁전을 일컫는다.

조선은 건국 후 이를 기념해 1410년(태종 10) 태조어진을 전주에 봉안하였다. 현재의 경기전은 1614년(광해군 6)에 중건한 것이다. 경기전 경내에는 진전 동편으로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던 전주사고가 있고, 구이 태실마을에서 옮겨온 예종대왕 태실이 있다. 경기전 북편에는 전주이씨 시조를 모신 조경묘가 있으며, 그 옆으로 태조 어진과 경기전의 역사를 담은 어진박물관이 있다.

① 지정번호 쓰지 않음

② 소재지 쓰지 않음

③ 동일 대상에 대한 통일된 명칭 사용 필요

④ 문화재청 연대 표기법 미준수



전반적으로 내용이 매끄럽지 않아 아쉬움

# 1 전주 경기전

## 全州 慶基殿

### 사적

경기전은 전주에 건립한 태조 진전\*으로 조선 왕조를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신 곳이다. 현재 남아 있는 태조 진전으로는 경기전이 유일하다.

태종 10년(1410)에 태조 이성계의 선조들이 대대로 살았던 전주에 태조어진을 모셨으며, 세종 24년(1442)에 전주의 태조 진전을 경기전이라 이름하였다. 2 '경기'는 조선왕조가 일어난 경사스러운 터라는 의미이다. 3 경기전은 선조 30년(1597)에 일어난 정유재란 때 불에 타 사라졌는데, 광해군 6년(1614)에 이를 다시 건립하였다. 숙종 2년(1676)에는 옛 전주사고\*\*\* 자리에 별전을 세웠다. 별전은 유사시 태조어진을 임시로 모시는 곳이다. 일제강점기에 부속 건물과 별전을 철거하였는데, 1991년에 별전이 있던 자리에 전주사고를, 2004년에는 부속 건물을 복원하였다.

경기전 진전은 중앙에 태조어진을 모신 정전이 있고, 진전 동편에는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던 전주사고가 있으며, 진전 서편에는 태조어진을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한 부속 건물들이 있다. 경기전 북편으로는 조선 왕실의 시조 사당 조경묘가 있고, 그 옆으로 태조어진의 역사를 담은 어진박물관이 있다.

- 4 \* 진전(眞殿): 어진을 모신 처소
- \*\* 어진(御眞): 왕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
- \*\*\* 전주사고(全州史庫):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국가 중요 서적을 보관하는 곳

### 전주 경기전 | 全州 慶基殿

사적

경기전은 전주에 건립한 태조 진전\*으로 조선 왕조를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신 곳이다. 현재 남아 있는 태조 진전으로는 경기전이 유일하다.  
태종 10년(1410)에 태조 이성계의 선조들이 대대로 살았던 전주에 태조어진을 모셨으며, 세종 24년(1442)에 전주의 태조 진전을 경기전이라 이름하였다. 2 '경기'는 조선왕조가 일어난 경사스러운 터라는 의미이다. 경기전은 선조 30년(1597)에 일어난 정유재란 때 불에 타 사라졌는데, 광해군 6년(1614)에 이를 다시 건립하였다. 숙종 2년(1676)에는 옛 전주사고\*\*\* 자리에 별전을 세웠다. 별전은 유사시 태조어진을 임시로 모시는 곳이다. 일제강점기에 부속 건물과 별전을 철거하였는데, 1991년에 별전이 있던 자리에 전주사고를, 2004년에는 부속 건물을 복원하였다.

경기전 진전은 중앙에 태조어진을 모신 정전이 있고, 진전 동편에는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던 전주사고가 있으며, 진전 서편에는 태조어진을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한 부속 건물들이 있다. 경기전 북편으로는 조선 왕실의 시조 사당 조경묘가 있고, 그 옆으로 태조어진의 역사를 담은 어진박물관이 있다.

\*진전(眞殿): 어진을 모신 처소  
\*\*어진(御眞): 왕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  
\*\*\*전주사고(全州史庫):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국가 중요 서적을 보관하는 곳

### Gyeonggijeon Shrine, Jeonju | 全州 慶基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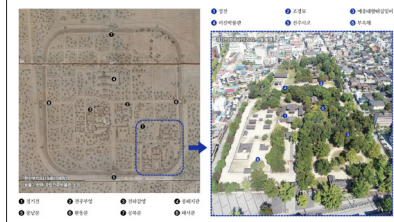
Historic Site

Gyeonggijeon Shrine was established in 1410 for the veneration of the founder of the Joseon dynasty (1392-1910), Yi Seong-gye (1335-1408), known posthumously as King Taejo (r. 1392-1398). Enshrined within its main hall is a portrait of King Taejo.

During the Joseon period, five portrait shrines were established for the veneration of King Taejo in historically significant locations across the country. These included Jeonju (the seat of the king's clan), Jeongneung (the king's birthplace), Daejeong (the capital of Goryeo) (Gyeongju (the capital of Silla), and Gyeongju (the capital of Goryeo). Among them, only this shrine in Jeonju remains. The shrine's name Gyeonggijeon means "Hall of Celebrating the Basis (of the Dynasty)," referring to how Jeonju, as the seat of the Yi clan to which King Taejo belonged, became the ancestral seat of the country.

The shrine complex consists of a main hall in the center, an archive for storing historical records to the right, and auxiliary buildings used for the preparation of veneration rituals, to the left. The entire complex was once destroyed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1597-1598. The shrine was rebuilt in 1614 on the site of the history archive, a detached shrine used to temporarily store the king's portrait in unusual circumstances, was built in 1676.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1910-1945), all of the buildings in the complex apart from the main hall were demolished. The history archive and auxiliary buildings were built anew on their original sites in 1993 and 2004, respectively.

Located behind the Gyeonggijeon Shrine complex is the Royal Portrait Museum, where King Taejo's portrait is stored, and Jigwagyo Station, dedicated to the founder of the Joseon Yi clan.



옛 지도와 오늘날 항공뷰 사진을 활용하여 경기전과 유관 문화재 건물의 위치를 상세히 설명함

- 1 지역명 포함 명칭으로 수정
- 2 문화재 명칭의 유래를 설명해 이해를 도모
- 3 문화재 소실, 재건, 복원에 대한 설명으로 현재 문화재의 이해를 도움
- 4 각주 사용으로 전문 용어 풀이



전반적으로 문장 정리가 깔끔해짐



# 산청단성사직단

## 山淸丹城社稷壇

종 목 경상남도 기념물

지역 경상남도 산청군

### 기존 문안

## 산청 단성 사직단

### 山淸丹城社稷壇

경상남도 기념물 ① 제255호

②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54-1번지

사직단은 토지신(社)과 곡신신(稷)에게 제사하기 위해 쌓은 제단이다. ③ 조선왕조에 이르러면 전국의 모든 고을에서 사직단을 건립하여 고장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행하였으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각 지방에 설치된 사직단은 거의 모두 훼손 유실되었다. 단성 사직단은 현재 경상남도 내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사직단으로, 제단의 위치나 축조 방식 등으로 미루어 ③ 조선왕조 초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 된다. 사직단 남쪽에 위치한 1칸 건물의 신실에는 사직신위패 2점을 봉안하고 있는데, 이 또한 조선 왕조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전해져 온다.

산청 단성 사직단  
(山淸丹城社稷壇)



Danseong Sajikdan, Sancheong

경상남도 기념물 제255호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54-1번지

Gyeongsangnam-do Cultural Treasure No.255  
Gyeongsangnam-do, Sancheong-gun, Danseong-myeon, Sawol-ri 54-1

사직단은 토지신(社)과 곡신신(稷)에게 제사하기 위해 쌓은 제단이다. 조선왕조에 이르러 전국의 모든 고을에서 사직단을 건립하여 고장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행하였으나,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각 지방에 설치된 사직단은 거의 모두 훼손 유실되었다. 단성 사직단은 현재 경상남도 내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사직단으로, 제단의 위치나 축조 방식 등으로 미루어 조선왕조 초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 된다. 사직단 남쪽에 위치한 1칸 건물의 신실에는 사직신위패 2점을 봉안하고 있는데, 이 또한 조선 왕조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전해져 온다.

A sajikdan is an altar built for the purpose of holding a sacrificial rite in honor of the deities of land and grain. By the time of the Joseon dynasty, all villages and towns had built a sajikdan where sacrificial rites were held to pray for peace and prosperity. Most of the sajikdan, however, were destroyed or severely damaged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zation. The Danseong sajikdan is the only sajikdan remaining in Gyeongsangnam-do. It is estimated to have been built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given the location and construction style of the altar. To the south of the sajikdan, there is a 1-compartiment sized building that houses two memorial tablets, both of which are also known to have been made in the early Joseon period.

- ① 지정번호 쓰지 않음
- ② 소재지 쓰지 않음
- ③ 문화재청 가이드라인 연대 표기법 미적용



산청단성사직단에 대한 설명이 짧고, 현재는 제사의 역할이 단절된 전통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아쉬움

# 산청 단성 사직단

山淸丹城社稷壇

경상남도 기념물

사직단은 임금이 땅의 신인 사(社)와 곡식의 신인 직(稷)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쌓은 단이다. 조선 시대에는 전국의 모든 고을에 사직단을 설치하여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으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각 지방에 설치된 사직단 대부분이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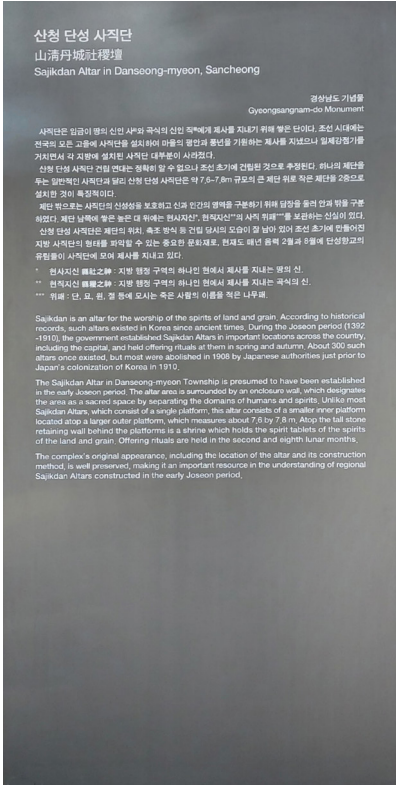
산청 단성 사직단 건립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조선 초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① 하나의 제단을 두는 일반적인 사직단과 달리 산청 단성 사직단은 약 7.6~7.8m규모의 큰 제단 위로 작은 제단을 2층으로 설치한 것이 특징적이다.

제단 밖으로는 사직단의 신성성을 보호하고 신과 인간의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담장을 둘러 안과 밖을 구분하였다. 제단 남쪽에 쌓은 높은 대 위에는 현사지신\*, 현직지신\*\*의 사직 위패\*\*\*를 보관하는 신실이 있다.

② 산청 단성 사직단은 제단의 위치, 축조 방식 등 건립 당시의 모습이 잘 남아 있어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지방 사직단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로, ③ 현재도 매년 음력 2월과 8월에 단성향교의 유림들이 사직단에 모여 제사를 지내고 있다.

- ④ \* 현사지신縣社之神: 지방 행정 구역의 하나인 현에서 제사를 지내는 땅의 신.  
 \*\* 현직지신縣稷之神: 지방 행정 구역의 하나인 현에서 제사를 지내는 곡식의 신.  
 \*\*\* 위패: 단, 묘, 원, 절 등에 모시는 죽은 사람의 이름을 적은 나무패.



- ① 다른 사직단과 구별되는 특징을 설명
- ② 사직단의 가치 부각
- ③ 오늘날까지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음을 밝힘
- ④ 각주 사용으로 전문용어 풀이



## 서생포왜성

西生浦倭城

종 목 울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 서생포왜성

西生浦倭城

울산시 지정 문화재 자료

서생포왜성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 해인 선조 26년(1593) 5월 무렵에 일본 장수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가 쌓은 일본식 평산성<sup>1)</sup>이다. 공간 배치 상 크게 내성과 외성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내성, 중성, 외성으로도 나눌 수 있다. 성벽 밖에는 방어 시설인 호가 겹겹이 둘러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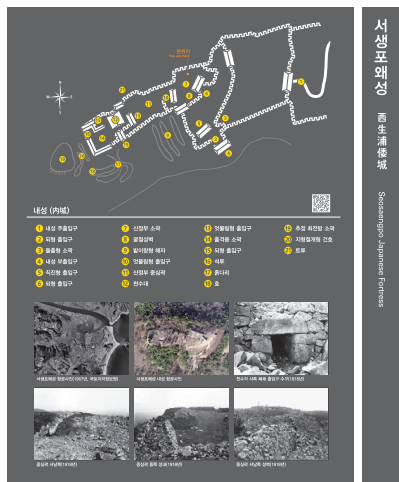
① 내성은 회야강으로 가는 포구가 보이는 산꼭대기에 있는데 이곳에는 왜군의 지휘소로 사용된 천수각 터가 남아 있다. 당시 천수각은 약 5m 높이의 건물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성은 내성의 동쪽 아래편에 있으며 중성 동쪽 아래에 있는 외성은 평지를 포함하여 넓고 길게 만들어졌다.

성곽의 전체 면적은 호를 포함하여 15,180㎡ 이다. 호를 제외한 외곽의 길이는 약 2,500m이며, 평면상의 직선거리는 동서 방향으로 약 870m, 남북 방향으로 약 370m이다. 성벽은 수직으로 쌓은 조선의 성벽과 달리, 60도 정도 기울여 경사지게 쌓았고 방어에 유리하도록 성벽을 부분적으로 꺾거나 덧붙여 복잡하게 만들었다. ② 내성은 외면과 내면을 모두 돌로 쌓은 협축식 공법을 사용했으나 중성과 외성은 성벽의 외면만 돌로 쌓고 그 안쪽은 작은 돌과 흙으로 채운 편축식 공법을 사용하였다.

선조 27년(1594)부터 시작된 사명 대사와 가토 기요마사의 평화 교섭이 이곳에서 네 차례 이루어졌다. 선조 31년(1598)에 일본군이 물러가고 명나라 마귀 장군이 이곳을 차지하였다. 선조 32년(1599)에는 왜적과 싸운 충신을 모시는 창표당이 이곳에 세워졌다. 정유재란 이후부터 1895년까지, 약 300년 동안 경상 좌수영 소속 수군이 서생포 진성으로 사용했는데 이때는 전체 왜성 중 외성만 주로 사용했다. ③ 『울산 서생진지도(1872)』를 보면 성내에는 객사와 동헌 등의 관아와 시장이 있었고 성 밖에는 전투에 쓰는 배를 정비하는 선창과 이를 관리하는 수군 시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서생포왜성은 우리나라 동남해안에 주로 분포하는 왜성 가운데에서도 가장 크고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16세기 말의 일본 성곽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⑤ \* 평산성(平山城): 평지와 산을 이어 쌓은 성.



내성 도면과 외-내성 항공사진, 성곽 사진 자료 등을 안내판에 추가하여 문화재 이해를 도움

- ① 내성-중성-외성으로 설명을 구분하여 문맥의 흐름을 정리해 가독성 높임
- ② 어려운 건축 용어 앞에 설명을 서술하여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임
- ③ 19세기 당시 문화재의 규모를 추정하는 근거로 관련 사료 설명
- ④ 문화재의 가치를 부각
- ⑤ 각주 사용으로 어려운 용어 풀이



# 용인 왕산리 지석묘

## 龍仁 旺山里 支石墓

- 종 목** 경기도 기념물
- 지역** 경기도 용인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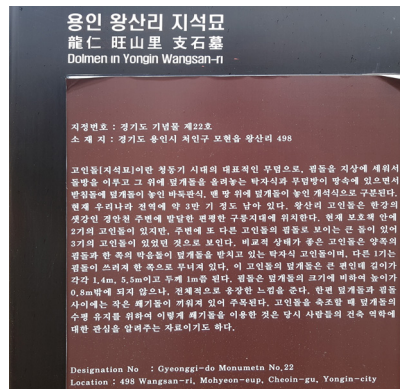
### 기존 문안

## 용인 왕산리 지석묘

### 龍仁 旺山里 支石墓

- 1 지정번호 : 경기도 기념물 제22호
- 2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498

고인돌[지석묘]이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으로, 궂돌을 지상에 세워서 돌방을 이루고 그 위에 덮개돌을 올려 놓는 탁자식과 무덤방이 땅속에 있으면서 받침돌에 덮개돌이 놓인 바둑판식, 맨 땅 위에 덮개돌이 놓인 개석식으로 구분된다. 현재 우리나라 전역에 약 3만 기 정도 남아 있다. 왕산리 고인돌은 한강의 셋강인 경안천 주변에 발달한 편평한 구릉 지대에 위치한다. 현재 보호책 안에 2기의 고인돌이 있지만, 주변에 또 다른 고인돌의 궂돌로 보이는 큰 돌이 있어 3기의 고인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비교적 상태가 좋은 고인돌은 양쪽의 궂돌과 한 쪽의 막음돌이 덮개돌을 받치고 있는 탁자식 고인돌이며, 다른 1기는 궂돌이 쓰러져 한 쪽으로 무너져 있다. 4 이 고인돌의 덮개돌은 큰 편인데 길이가 각각 1.4m, 5.5m이고 두께 1m쯤 된다. 궂돌은 덮개돌의 크기에 비하여 높이가 0.8m밖에 되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웅장한 느낌을 준다. 5 한편 덮개돌과 궂돌 사이에는 작은 켜기돌이 끼워져 있어 주목된다. 고인돌을 축조할 때 덮개돌의 수평 유지를 위하여 이렇게 켜기돌을 이용한 것은 당시 사람들의 건축 역학에 대한 관심을 알려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 1 지정번호 쓰지 않음
- 2 소재지 쓰지 않음
- 3 2기 고인돌 구분 기준을 상태(양호/무너짐)으로 표기해 대상 파악이 모호함
- 4 수치의 규격 설명이 부족
- 5 불필요한 문장 삽입



문단 구분이 없어 가독성이 낮은점이 아쉬움

# 용인 왕산리 지석묘

## 龍仁 旺山里 支石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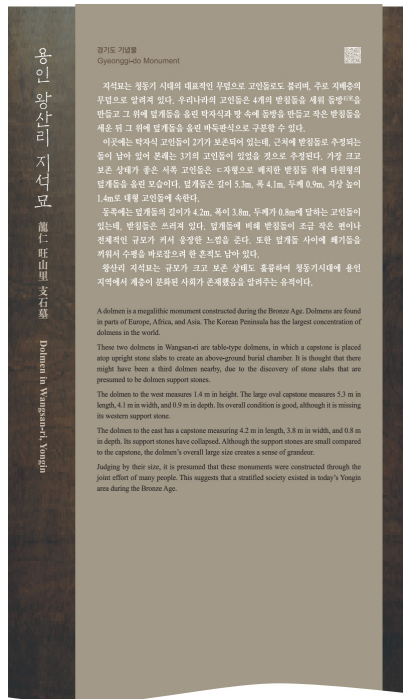
### 경기도 기념물

지석묘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으로 고인돌로도 불리며, 주로 지배층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고인돌은 4개의 받침돌을 세워 돌방(石室)을 만들고 그 위에 덮개돌을 올린 탁자식과 땅 속에 돌방을 만들고 작은 받침돌을 세운 뒤 그 위에 덮개돌을 올린 바둑판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곳에는 탁자식 고인돌이 2기가 보존되어 있는데, 근처에 받침돌로 추정되는 돌이 남아 있어 본래는 3기의 고인돌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❶ 가장 크고 보존 상태가 좋은 서쪽 고인돌은 ㄷ자형으로 배치한 받침돌 위에 타원형의 덮개돌을 올린 모습이다. 덮개돌은 ❷ 길이 5.3m, 폭 4.1m, 두께 0.9m, 지상 높이 1.4m로 대형 고인돌에 속한다.

동쪽에는 덮개돌의 길이가 4.2m, 폭이 3.8m, 두께가 0.8m에 달하는 고인돌이 있는데, 받침돌은 쓰러져 있다. 덮개돌에 비해 받침돌이 조금 작은 편이나 전체적인 규모가 커서 웅장한 느낌을 준다. ❸ 또한 덮개돌 사이에 썩기돌을 끼워서 수평을 바로잡으려 한 흔적도 남아 있다.

❹ 왕산리 지석묘는 규모가 크고 보존 상태도 훌륭하여 청동기시대에 용인 지역에서 계층이 분화된 사회가 존재했음을 알려주는 유적이다.



- ❶ 동/서를 기준으로 명확히 2기의 고인돌을 구분
- ❷ 정확한 수치의 규격과 함께 문화재의 특징 설명
- ❸ 썩기돌의 쓰임을 간결하게 설명
- ❹ 문화재 가치 부각







## [사례분석]

### 수원 화성(2019-2020)

산성·성곽 유형은 사찰, 서원 등의 문화유적지에 비해 권역이 크고 넓은 유적지이다. 따라서 전체 유적지의 접근성, 잔존 유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산성·성곽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 구분한 권역안내판의 필요성이 높은 곳이기도 하다. 산성·성곽 유형의 안내판의 경우 다음과 같이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 1) 종합안내판: 산성·성곽의 역사, 구성,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등
- 2) 권역안내판: 권역별 구분 및 특징, 각 권역 내 건조물 및 유구 소개 등
- 3) 개별안내판: 각 건조물 및 유구의 기능, 개별적 특성 등



### 수원 화성 水原 華城

#### 사적

- 1** 화성은 조선 시대 화성유수부 시가지를 둘러싼 성곽이다. 조선 정조 13년(1789)에 수원의 행정기구인 읍치를 팔달산 동쪽 아래로 옮기고, 1794년에 축성을 시작해 1796년에 완성했다. 전체 길이는 5.74km에 달한다. 4개의 성문을 비롯해 망루의 일종인 공심돈(空心墩), 대포를 둔 포루(砲樓), 요충지에 세운 누각인 각루(角樓), 군사 지휘소인 장대(將臺) 등을 두루 갖췄다.

**2** 화성은 지형을 살려 쌓는 조선의 축성 전통을 따르면서도, 새로운 방어 시설을 도입한 성곽이다. 실학자 정약용은 조선과 중국의 축성 방식을 총망라하여 성곽의 규모와 방어시설, 재료를 계획했고, 자재를 쉽게 들어 올리는 거중기와 튼튼한 수레 유형거를 발명하여 공사비용도 줄였다. 축성의 모든 과정은 『화성성역의궤』라는 공사 보고서에 꼼꼼하게 기록했다. 건축도면과 축성 기계의 그림, 사용한 재료의 치수와 수량까지 수록되어 있어 현재까지도 『화성성역의궤』를 바탕으로 수리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화성은 동서양의 기술 교류를 보여 주는 성곽 축성술의 결정체로서 지형을 살린 우수한 군사 건축물로 인정받아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3** 도산서원은 퇴계가 제자들을 가르쳤던 도산서당과 기숙사인 농운정사를 비롯하여 퇴계 사후에 만든 전교당, 상덕사, 전사청이 있다. 그리고 제자들이 머물며 공부하던 박약재와 흥의재, 서원에서 만든 목판을 보관하던 장판각, 서원 관리인의 숙소 등 여러 부속 건물들이 있다.
- 1** 정의, 축성 역사, 구조

**2** 건축적 특징, 축성 관련 기록유산,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3** 역사적 의미

권역안내판



평지남성 平地南城

- ① 평지 남성은 화성을 축성하면서 네 구간으로 나눈 성벽 중에 평지로 이루어진 남쪽 성곽이다. 남문인 팔달문을 중심으로 동쪽은 남동적대부터 남수문까지, 서쪽은 남서적대와 남은구까지 모두 7개 시설물이 있다. 팔달문 주변은 지형이 평탄하고 사람의 왕래가 많던 곳이어서 일찍부터 시장이 발달하고 집이 즐비했다. 1970년대 복원 사업 당시 무너진 성벽 대부분을 복원하였지만 도로와 시장이 있는 구간만은 모습을 되찾지 못했다.
- ② 팔달문은 비록 성벽은 없어진 채 도로 한복판에 우뚝 서 있지만 창건 당시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성문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평가된다. 아홉 개의 홍예문으로 만들어진 남수문도 이 구간의 색다른 볼거리로 꼽힌다.

👍 도면으로 권역 범위를 표시하여 관람객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



## 평지북성 平地北城

❶ 평지 북성은 화성을 축성하면서 네 구간으로 나눈 성벽 가운데 평지로 이루어진 북쪽 성곽이다. 북문인 장안문을 중심으로 동쪽은 북동적대부터 북수문(화홍문)까지, 서쪽은 북서적대부터 서북공심돈까지 모두 10개 시설물이 있다. 이 일대는 지형이 평탄한 편이어서 방어에 유리하도록 다른 곳보다 성벽을 높게 쌓았다.

❷ 장안문 주변은 성벽이 약간 바깥으로 나온 편이다. 이는 처음에 화성의 성벽 위치를 결정할 때 민가가 밀집해있는 지역을 피하고, 남문과 북문의 거리를 확보하라는 정조의 뜻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북성 구간에서 눈 여겨 볼 곳은 성문앞쪽에 적대를 세운 장안문, 수원천과 누각이 조화를 이룬 화홍문, 빼어난 군사 시설인 서북공심돈을 들 수 있다.

- ❶ 평지북성 권역의 범위 및 특징
- ❷ 건축적 특징, 권역 내 대표적 건축물

👍 도면으로 권역 범위를 표시하여 관람객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

## 개별안내판



### 서북공심돈 西北空心墩

#### 보물

① 서북공심돈은 화성 서북쪽에 세운 망루로 주변을 감시하고 공격하는 시설이다. 공심돈은 속이 빈 돈대라는 뜻으로, 우리나라 성곽 중 화성에서만 볼 수 있다. 보통 돈대(墩臺)는 성곽과 떨어진 높은 곳에 세워 적을 감시하는 시설이나, 서북공심돈은 서북쪽 성벽이 꺾이는 위치에 설치했다. 치성\* 위에 벽돌로 3층의 망루를 세우고 꼭대기에는 단층의 누각을 올려 군사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외벽에는 화포를 쏠 수 있는 구멍을 뚫어 공격 기능까지 갖추었다.

② 조선 정조 21년(1797) 정월, 완성된 화성을 둘러보던 정조는 서북공심돈 앞에 멈춰 “우리나라 성곽에는 처음 지은 것이니 마음껏 구경하라.”며 매우 만족스러워 했다. 화성에는 모두 세 곳에 공심돈을 세웠는데 서북공심돈만이 축성 당시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

\* 치성 : 성벽 일부를 돌출시켜 적을 감시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

👍 『화성성역의궤』의 그림자료와 일제강점기 사진자료를 함께 제공하여, ‘축성 당시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또한, 그림자료를 통해 서북공심돈의 내·외부 구조 또한 쉽게 파악할 수 있음.



## 창룡문 蒼龍門

① 창룡문은 수원 화성의 동문이다. 창(蒼)은 푸른색을 가리키므로 '동쪽 방향을 지키는 신령한 청룡'을 상징한다. 창룡문은 바깥쪽에서 보면 안쪽으로 휘어 들어가는 곳에 자리 잡고 있어, 돌출된 좌우 성벽이 자연스럽게 성문을 보호하는 치성\* 역할을 한다. 문 안쪽의 넓은 공터는 군사들의 훈련장으로 쓰였다.

② 조선 시대 건축에는 일정한 위계질서가 있다. 같은 성문이지만 장안문과 팔달문은 높은 격식을 갖춘 반면 창룡문과 화서문은 한 단계 격을 낮춘 형태이다. 장안문과 팔달문이 2층 문루에 우진각 지붕인 반면 창룡문과 화서문은 1층 문루에 팔작지붕이다. 웅성\*\*은 서울의 흥인지문처럼 한쪽 모서리를 열어둔 형태다.

③ 창룡문 웅성 안 석축에는 공사를 담당한 감독관과 석공 우두머리 이름을 새긴 실명판이 잘 남아 있다. 한국 전쟁 때 문루가 파괴되어 1976년에 복원했다.

\* 치성 : 성벽 일부를 돌출시켜 적을 감시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

\*\* 웅성 : 성을 지키기 위하여 성문 밖에 쌓은 작은 성

👍 『정리의궤』의 그림자료와 1960년대 사진자료를 함께 제공하여, 축성 당시의 모습, 한국전쟁 이후 파괴된 모습, 현재의 모습을 함께 비교해서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① 창룡문 이름의 유래, 문과 주변 지역의 기능

② 건축적 특징

③ 축성 관련 기록 및 복원 내용

## 개별안내판



### 서장대 西將臺

❶ 서장대는 팔달산 정상에 자리 잡은 군사 지휘소이다. 화성에는 두 곳의 장대가 있는데 동장대는 평상시 군사들이 훈련하는 장소로 쓰고, 서장대는 군사 훈련 지휘소로 썼다. 서장대는 시야가 트여 있어 멀리 용인 석성산 봉화와 현릉원 입구까지 한눈에 살필 수 있었다고 한다.

❷ 서장대는 아래층은 사면 3칸, 위층은 1칸으로 위로 가면서 좁아진 형태다. 아래층은 장수가 머물면서 군사 훈련을 지휘하고, 위층은 군사가 주변을 감시하는 용도로 썼다. 정조는 서장대에서 군사 훈련인 성조(城操)를 거행했는데 1795년의 행사 모습이 그림으로 남아 있다.

❸ 위층 처마 밑에 걸린 ‘화성장대(華城將臺)’와 ‘시문’ 현판은 모두 정조의 작품이다. 1795년 성조가 끝난 뒤 정조는 ‘화성장대’ 현판의 글씨를 직접 쓰고 만족스럽고 기쁜 마음을 시로 표현했다. 화성에서 유일하게 정조가 지은 두 개의 현판이 걸려 있다.

👉 『화성성역의궤』 및 『정리의궤』의 그림자료와 일제강점기 사진자료를 함께 제공하여 현재의 모습과 비교할 수 있게 함. 또한 「서장대성조도」를 통해 당시 서장대에서 거행된 군사 훈련 장면을 볼 수 있음.

- ❶ 서장대의 기능
- ❷ 구조적 특징, 서장대에서 거행된 역사적 사건
- ❸ 정조와 관련한 일화





2022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

---

# 불교문화재



불교조각 / 탕화 / 불상 /

건조물 / 탑





# 보문산마애여래좌상

## 寶文山磨崖如來坐像

**종 목**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

**지역** 대전광역시

### 기존 문안

## 보문산마애여래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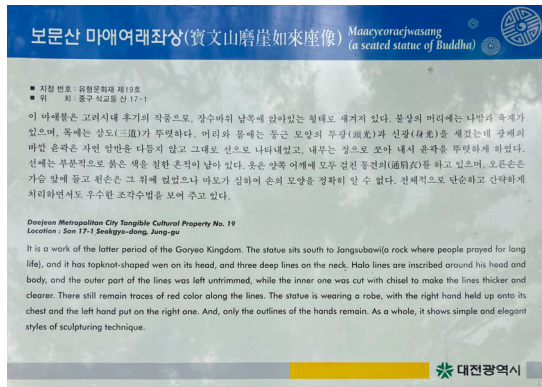
### 寶文山 磨崖如來<sup>1</sup>座像

지정번호 : 유형문화재 <sup>2</sup> 제19호

<sup>3</sup> 위치 : 중구 석교동 산 17-1

이 마애불은 <sup>4</sup> 고려시대 후기의 작품으로 장수바위 남쪽에 앉아있는 형태로 새겨져 있다. 불상의 머리에는 <sup>5</sup> 나발과 육계가 있으며, 목에는 삼도(三道)가 뚜렷하다. 머리와 몸에는 둥근 모양의 두광(頭光)과 신광(身光)을 새겼는데 광배의 바깥 윤곽은 자연 암반을 다듬지 않고 그대로 선으로 나타내었고, 내부는 정으로 쪼아 내서 윤곽을 뚜렷하게 하였다.

선에는 부분적으로 붉은 색을 칠한 흔적이 남아있다. 옷은 양쪽 어깨에 모두 걸친 통견의(通肩衣)를 하고 있으며, 오른손은 가슴 앞에 들고 왼손은 그 위에 얹었으나 마모가 심하여 손의 모양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전체적으로 단순하고 간략하게 처리하면서도 우수한 조각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 <sup>1</sup> 자리 좌(座)로 한문 요표기
- <sup>2</sup> 지정번호 쓰지 않음
- <sup>3</sup> 소재지 쓰지 않음
- <sup>4</sup> 조성 시기를 추정할 근거 설명 누락
- <sup>5</sup> 어려운 불교 용어 사용

# 보문산 마애여래좌상

寶文山 磨崖如來<sup>1</sup>坐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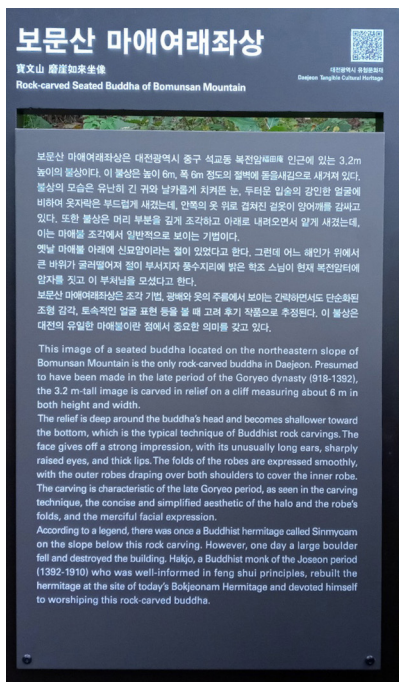
##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

보문산 마애여래좌상은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복전암(福田庵) 인근에 있는 **2** 3.2m 높이의 불상이다. 이 불상은 높이 6m, 폭 6m 정도의 절벽에 돌을새김으로 새겨져 있다.

불상의 모습은 유난히 긴 귀와 날카롭게 치켜뜬 눈, 두터운 입술의 강인한 얼굴에 비하여 옷자락은 부드럽게 새겼는데, 안쪽의 옷 위로 겹쳐진 겹옷이 양어깨를 감싸고 있다. 또한 불상은 머리 부분을 깊게 조각하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얇게 새겼는데, 이는 마애불 조각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기법이다.

**3** 옛날 마애불 아래에 신묘암이라는 절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위에서 큰 바위가 굴러떨어져 절이 부서지자 풍수지리에 밝은 학조 스님이 현재 복전암터에 암자를 짓고 이 부처님을 모셨다고 한다.

보문산 마애여래좌상은 **4** 조각 기법, 광배와 옷의 주름에서 보이는 간략하면서도 단순화된 조형 감각, 토속적인 얼굴 표현 등을 볼 때 고려 후기 작품으로 추정된다. **5** 이 불상은 대전의 유일한 마애불이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 1** 앉을 좌(坐)로 한자 표기 정정
- 2** 마애불의 규모를 설명해 기본 정보를 제공
- 3** 조성 배경 설화를 설명해 흥미 유도
- 4** 제작 시기 추정 근거를 밝힘
- 5** 문화재가 지역에서 가진 의미를 드러냄



마애불로 가는 길목에 설치된 개별1 안내판



마애불 앞에 설치된 개별2 안내판

# 고양 삼천사지 대지국사탑비

高陽 三川寺址 大智國師塔碑

종 목 경기도 유형문화재

지역 경기도 고양시



# 고양 삼천사지 대지국사 탑비

高陽 三川寺址 大智國師 塔碑

경기도 유형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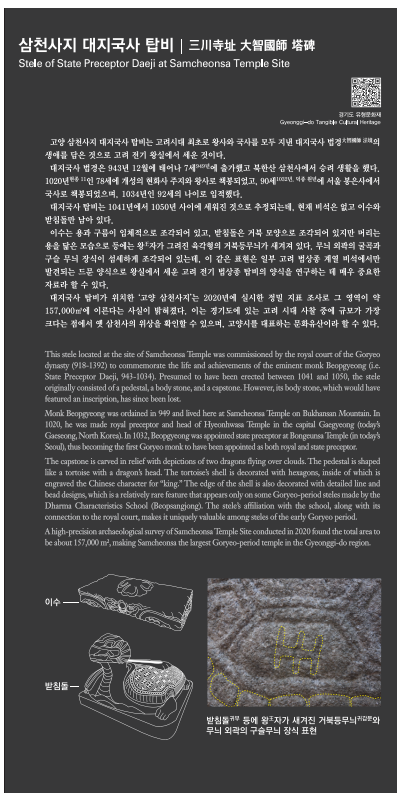
고양 삼천사지 대지국사 탑비는 ① 고려시대 최초로 왕사와 국사를 모두 지낸 대지국사 법경(大智國師 法境)의 생애를 담은 것으로 고려 전기 왕실에서 세운 것이다.

대지국사 법경은 943년 12월에 태어나 7세(949년)에 출가했고 북한산 삼천사에서 승려 생활을 했다. 1020년(현종 11)인 78세에 개성의 현화사 주지와 왕사로 책봉되었고, 90세(1032년, 덕종 원년)에 서울 봉은사에서 국사로 책봉되었으며, 1034년인 92세의 나이로 입적했다.

대지국사 탑비는 1041년에서 1050년 사이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비석은 없고 이수와 받침돌만 남아 있다.

이수는 용과 구름이 입체적으로 조각되어 있고, 받침돌은 거북 모양으로 조각되어 있지만 머리는 용을 닮은 모습으로 등에는 왕(王)자가 그려진 육각형의 거북등무늬가 새겨져 있다. ② 무늬 외곽의 굴곡과 구슬 무늬 장식이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는데, 이 같은 표현은 일부 고려 법상종 계열 비석에서만 발견되는 드문 양식으로 왕실에서 세운 고려 전기 법상종 탑비의 양식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대지국사 탑비가 위치한 ③ ‘고양 삼천사지’는 2020년에 실시한 정밀 지표 조사로 그 영역이 약 157,000㎡에 이르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경기도에 있는 고려 시대 사찰 중에 규모가 가장 크다는 점에서 옛 삼천사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양시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이수와 받침돌을 그림으로 구분하고, 받침돌에 있는 무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미지를 삽입해 관람을 도모함

- ① 제작 배경의 특별함(왕실 시주), 인물의 업적을 밝혀 역사적 가치를 설명
- ② 양식적 특징으로 제작 시기, 종파를 설명하고, 석조 미술사적으로 지닌 가치를 부각
- ③ 최근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문화재의 위상과 가치를 밝힘



# 수도사 노사나불 괘불탱

## 修道寺 盧舍那佛 掛佛幀

종 목

보물

지역

경상북도 영천시

기존 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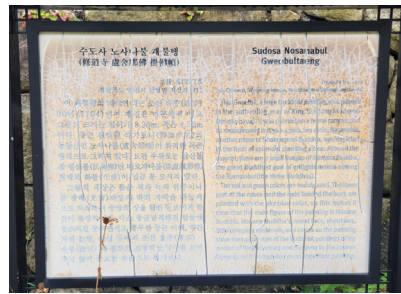
## 수도사 노사나불 괘불탱

### 修道寺 盧舍那佛 掛佛幀

- 보물 ① 제1271호
- ②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처산리 311

이 괘불탱의 제작연대는 조선 숙종(肅宗) 30년(1704)이며 재질은 ③ 마본채색 이고 그림의 크기는 길이가 가 8.36m, 폭은 4.32m이다. 둥근 원안에 ③ 석가모니(釋迦牟尼)의 동일신인 노사나불(盧舍那佛)이 화려한 독존 형식으로 그려져 있다. 보관 주위로는 삼신불 중 법신불(法身佛)인 비로자나불(毘盧蔗那佛) 형태의 화불(化佛)이 일곱 분 모셔져 있다.

그림의 색상은 붉은 색과 녹색 위주이나 몸 광배(光背) 바탕과 하의 자락을 하늘색으로 처리하여 중앙의 상을 훨씬 돋보이게 한 것이 특징적이다. 다소 ④ 둥글넓적해진 얼굴에 움츠러진 듯하면서도 풍부한 둥근 어깨, 약간 처진 눈썹, 색상 등에서 조선 효종(孝宗)·숙종(肅宗) 때 불화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주고 있어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노후화로 색이 바래고, 균열이 생겨 문안을 읽기 불편함

- ① 지정번호 쓰지 않음
- ② 소재지 쓰지 않음
- ③ 불교 문화에 대한 학술적 기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전문용어, 문체 사용
- ④ 맞춤법 오류

# 수도사 노사나불 괘불탱

修道寺 盧舍那佛 掛佛幀

## 보물

수도사 노사나불 괘불탱은 가로 4.32m, 세로 8.36m의 화폭에 노사나불을 그린 것인데, ❶ 괘불탱은 절에서 큰 법회나 의식을 진행할 때, 법당 앞 뜰에 걸여 놓기 위해 제작된 대형 불교 그림을 가리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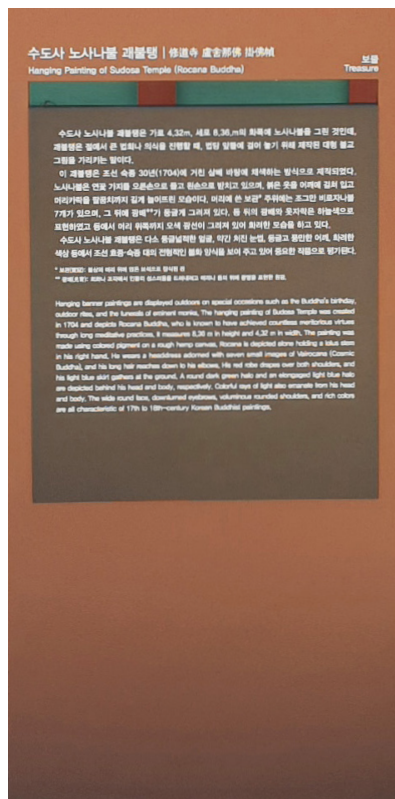
이 괘불탱은 조선 숙종 30년(1704)에 ❷ 거친 삼베 바탕에 채색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❸ 노사나불은 연꽃 가지를 오른손으로 들고 왼손으로 받치고 있으며, 붉은 옷을 어깨에 걸쳐 입고 머리카락을 팔꿈치까지 길게 늘어뜨린 모습이다. 머리에 쓴 보관\* 주위에는 조그만 비로자나불 7개가 있으며, 그 뒤에 광배\*\*가 등글게 그려져 있다. 등 뒤의 광배와 옷자락은 하늘색으로 표현하였고 등에서 머리 위쪽까지 오색 광선이 그려져 있어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다.

수도사 노사나불 괘불탱은 다소 등글넓적한 얼굴, 약간 처진 눈썹, 등글고 풍만한 어깨, 화려한 색상 등에서 조선 효종·숙종 대의 전형적인 불화 양식을 보여 주고 있어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4 \* 보관(寶冠): 불상의 머리 위에 얹은 보석으로 장식된 관

\*\* 광배(光背): 회화나 조각에서 인물의 성스러움을 드러내려고 머리나 등의 뒤에 광명을 표현한 원광



- ❶ 문화재의 개념을 설명해 이해를 도움
- ❷ 마본채색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
- ❸ 관람객의 시선에 맞춘 쉬운 설명으로 감상을 도모
- ❹ 각주 사용으로 전문 용어 풀이





# 장군 영평사 목조나한상 및 복장유물 일괄

## 將軍 永平寺 木造羅漢像 및 腹藏遺物 一括

**종 목** 세종특별자치시 유형문화재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기존 문안

### 장군 영평사 목조나한상 및 복장유물 일괄 將軍 永平寺 木造羅漢像 및 腹藏遺物 一括

세종특별자치시 유형문화재 ① 제1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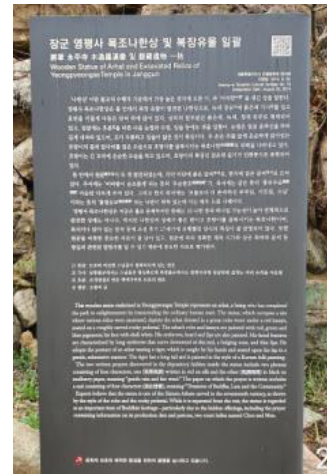
① 지정일 : 2014. 8. 20.

‘나한상’이란 불교의 수행자 가운데서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른 이, 즉 ‘아라한(나한)’을 새긴 상을 말한다. 영평사 목조나한상은 몸 안에서 복장 유물이 발견된 나한상으로, 녹색 장삼<sup>1)</sup>에 붉은색 가사<sup>2)</sup>를 입고 표면을 거칠게 다듬은 암석 위에 앉아 있다. 상의의 앞부분은 붉은색, 녹색, 청색 위주로 채색되어 있고, 얼굴에는 호분<sup>3)</sup>을 바른 다음 눈썹과 수염, 입술 등에도 색을 입혔다. 눈썹은 얼굴 윤곽선을 따라 길게 내려와 있으며, 코가 두툼하고 입술이 얇은 것이 특징이다. ② 두 손은 무릎 앞에 온순하게 앉아있는 호랑이<sup>4)</sup>의 몸과 앞다리를 잡은 모습으로 호랑이를 굴복시키는 복호나한(伏虎羅漢)의 위력을 나타내고 있다. 호랑이는 긴 꼬리에 온순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호랑이의 특징인 검은색 갈기가 민화풍으로 표현되어 있다.

몸 안에서 원문(願文)<sup>4)</sup>이 두 개 발견되었는데, 각각 비단에 붉은 글씨(주서)로, 한지에 검은 글씨(목서)로 쓰여 있다. 주서에는 ‘비바람이 순조롭게’라는 뜻의 ‘우순풍조(雨順風調)’가, 목서에는 같은 뜻의 ‘풍조우순(風調雨順)’어순만 다르게 쓰여 있다. 그리고 한지 목서에는 ‘보물보다 더 존귀하신 부처님, 가르침, 스님’이라는 뜻의 ‘불법승보(佛法僧寶)’라는 낙관이 적혀 있는데 이는 매우 드문 사례이다.

영평사 목조나한상은 지금은 홀로 존재하지만 원래는 16 나한 중의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 전체적으로 완전한 상태는 아니다. ③ 하지만 나한상의 상태가 좋은 편이고 호랑이를 굴복시키는 복호나한이며, 복식이나 앉아 있는 암석 등에 조선 후기 17세기에 유행했던 양식의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다. 또한 원문을 비롯한 중요한 자료가 잘 남아 있고, 원문에 따라 정확한 제작 시기와 상공 최씨와 문씨 등 왕실과 관련된 발원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 1) 장삼 : 도포와 비슷한 스님들이 법회의식에 입는 옷
- 2) 가사 : 남방불교에서는 스님들의 평상복인데 북방불교에서는 법회의식
- 3) 호분 : 조개껍질로 만든 백색가루로 도료의 원료
- 4) 원문 : 소원의 글



- ① 지정번호, 지정일 쓰지 않음
- ② 조각상의 특징을 묘사하는 문단에 어울리지 않는 장황한 복호나한 설명 삽입
- ③ 보존상태, 복호나한 정체, 양식적 특징의 명확한 전달을 위해 문장 분리 필요

## 장군 영평사 목조나한상 및 복장유물 일괄 將軍 永平寺 木造羅漢像 및 腹藏遺物 一括

### 세종특별자치시 유형문화재

나한상은 불교의 수행자 가운데서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른 이를 뜻하는 ‘아라한(나한)’을 새긴 상이다.

영평사 목조나한상은 녹색 장삼에 붉은색 가사를 입고 표면이 거친 돌 위에 앉아 있다. 상의 앞부분은 붉은색, 녹색, 청색 위주로 채색되어 있고, 얼굴에는 호분(胡粉)<sup>1)</sup>을 바른 다음 눈썹과 수염, 입술 등에도 색을 칠했다. **1 무릎 앞의 두 손은 온순하게 호랑이를 굴복시키는 복호나한(伏虎羅漢)의 위력을 나타내고 있다.**

나한상의 몸 안에서는 ‘비바람이 순조롭게’라는 뜻의 ‘우순 풍조(雨順風調)가 어순을 달리하여 ‘풍조우순(風調雨順)’으로 쓰여 있다. 한지 묵서에는 매우 드문 ‘불법승보(佛法僧寶)<sup>2)</sup>’라는 낙관이 찍혀 있다.

영평사 목조나한상은 현재 하나만 있어서 전체적으로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조선 후기의 유행했던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는 작품이다.

- 1) 호분: 조개껍질로 만든 백색가루로 도로의 원료
- 2) 불법승보: 불교에서의 3가지 보물. 불(佛)은 모든 부처님, 법(法)은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 승(僧)은 그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자를 뜻함.

#### 장군 영평사 목조나한상 및 복장유물 일괄 將軍 永平寺 木造羅漢像 및 腹藏遺物 一括

Wooden Arhat and Excavated Relics of Yeongpyeongs Temple, Janggun

세종특별자치시 유형문화재  
Sejong Tongdeok Cultural Heritage

나한상은 불교의 수행자 가운데서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른 이를 뜻하는 ‘아라한<sup>1)</sup>’을 새긴 상이다. 영평사 목조나한상은 녹색 장삼에 붉은색 가사를 입고 표면이 거친 돌 위에 앉아 있다. 상의 앞부분은 붉은색, 녹색, 청색 위주로 채색되어 있고, 얼굴에는 호분<sup>1)</sup>을 바른 다음 눈썹과 수염, 입술 등에도 색을 칠했다. 무릎 앞의 두 손은 온순하게 호랑이를 굴복시키는 복호나한<sup>2)</sup>의 위력을 나타내고 있다.

나한상의 몸 안에서는 ‘비바람이 순조롭게’라는 뜻의 ‘우순풍조<sup>3)</sup>가 어순을 달리하여 ‘풍조우순<sup>3)</sup>’으로 쓰여 있다. 한지 묵서에는 매우 드문 ‘불법승보<sup>3)</sup>’라는 낙관이 찍혀 있다. 영평사 목조나한상은 현재 하나만 있어서 전체적으로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조선 후기의 유행했던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는 작품이다.

1) 호분(胡粉) : 조개껍질로 만든 백색가루로 도로의 원료  
2) 복호나한(伏虎羅漢) : 용서받지 못한 죄를 용서받은 모든 부처님, 법(法)은 부처님이 펼친 가르침, 승(僧)은 그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자를 뜻함.

This painted wooden statue depicts an arhat, or a person who has received the teachings of the Buddha and achieved nirvana. It is presumed to have been made in the latter half of the Joseon period (1392-1910) and is thought to have originally been part of a set depicting the sixteen arhats. Depicted seated on a stone, the arhat wears a green monk's robe and a red monk's outer garment. The robes are decorated in red, green, and blue patterns, while the face is painted with a white pigment made of powdered shell, atop which the eyebrows, beard, and lips are depicted. Sitting on the arhat's lap is a docile tiger, which signifies the arhat's power to tame the tiger.

Found inside the statue was a piece of silk cloth inscribed with red calligraphy and traditional masonry paper marked with a seal. The inscription on the cloth consists of four Chinese characters meaning "rainy season wind and sunny rain," which is a wish for suitable weather conditions, and by extension, the prosperity of the country. The seal stamped on the paper signify the three Buddhist "jewels" in which one can seek guidance and refuge, namely the Buddha, their teachings (i.e. the dharma), and the community of those who practice to attain awakening and help laypeople to do the same (i.e. the sangha).

- 1 간략하게 정리하여 의미를 쉽게 전달
- 2 각주 사용으로 어려운 용어 설명



전체적으로 기존 문안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쉽게 읽히는 문안으로 정비함



# 문수사대웅전

## 文殊寺大雄殿

**종 목**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지역** 전라북도 고창군

### 기존 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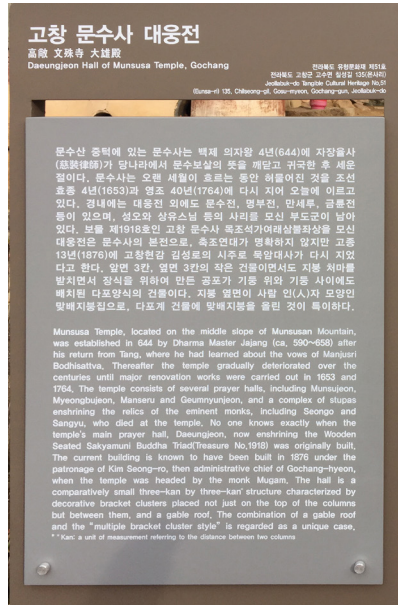
## 고창 문수사 대웅전

高敬 文殊寺 大雄殿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① 제51호

②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칠성길 135(은사리)

③ 문수산 중턱에 있는 문수사는 백제 의자왕 4년(644)에 자장율사(慈裝律師)가 당나라에서 문수보살의 뜻을 깨닫고 귀국한 후 세운 절이다. 문수사는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허물어진 것을 조선 효종 4년(1653)과 영조 40년(1764)에 다시 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내에는 대웅전 외에도 문수전, 명부전, 만세루, 금륜전 등이 있으며, 성오와 상유스님 등의 사리를 모신 부도군이 남아 있다. ④ 보물 제1918호인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을 모신 대웅전은 문수사의 본전으로, 축조연대가 명확하지 않지만 고종 13년(1876)에 고창현감 김성로의 시주로 목암대사가 다시 지었다고 한다. ⑤ 앞면 3칸, 옆면 3칸의 작은 건물이면서도 지붕 처마를 받치면서 장식을 위하여 만든 공포가 기둥 위와 기둥 사이에도 배치된 다포양식의 건물이다. 지붕 옆면이 사람 인(人)자 모양인 맞배지붕집으로, 다포계 건물에 맞배지붕을 올린 것이 특이하다.



- ① 지정번호 쓰지 않음
- ② 소재지 쓰지 않음
- ③ 창건설화를 기정사실화 하는 오류 문장
- ④ 각각 다른 내용(본존물, 축조연대, 증거기록)을 한 문장으로 연결해 설명이 장황함
- ⑤ 이해하기 어려운 전통 건축 용어 사용

# 고창 문수사 대웅전

高敞 文殊寺 大雄殿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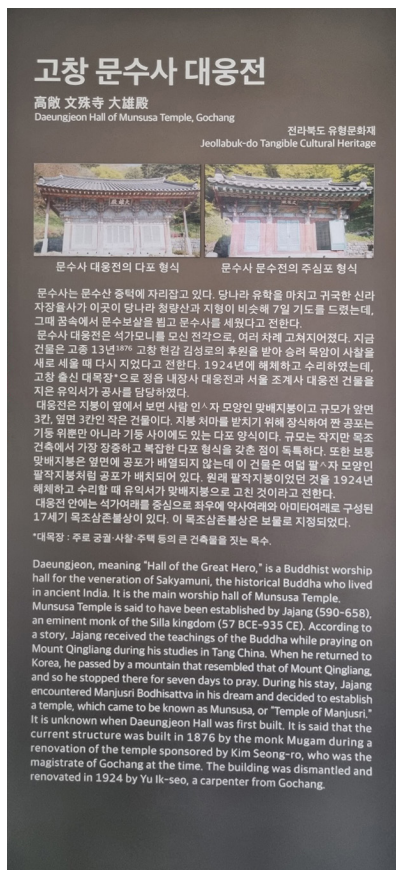
문수사는 문수산 증턱에 자리잡고 있다. ❶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신라 자장율사가 이곳이 당나라 청량산과 지형이 비슷해 7일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꿈속에서 문수보살을 뵈고 문수사를 세웠다고 전한다.

문수사 대웅전은 석가모니를 모신 전각으로, 여러 차례 고쳐 지어졌다. 지금 건물은 고종 13년(1876) 고창 현감 김성로의 후원을 받아 승려 목암이 사찰을 새로 세울 때 다시 지었다고 전한다. 1924년에 해체하고 수리하였는데, ❷ 고창 출신 대목장\*으로 정읍 내장사 대웅전과 서울 조계사 대웅전 건물을 지은 유익서가 공사를 담당하였다.

대웅전은 지붕이 옆에서 보면 사람 인(人)자 모양인 맞배 지붕이고 규모가 앞면 3칸, 옆면 3칸인 작은 건물이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장식하여 짠 공포는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 양식이다. ❸ 규모는 작지만 목조 건축에서 가장 장중하고 복잡한 다포 형식을 갖춘 점이 독특하다. 또한 보통 맞배지붕은 옆면에 공포가 배열되지 않는데 이 건물은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처럼 공포가 배치되어 있다. ❹ 원래 팔작지붕이었던 것을 1924년 해체하고 수리할 때 유익서가 맞배지붕으로 고친 것이라고 전한다.

대웅전 안에는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좌우에 약사여래와 아미타여래로 구성된 17세기 목조삼존불상이 있다. 이 목조 삼존불상은 보물로 지정되었다.

❶ \* 대목장: 주로 궁궐·사찰·주택 등의 큰 건축물을 짓는 목수.



다포 양식과 주심포 양식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사진을 삽입해 직관적인 이해를 도움

- ❶ “~전한다.” 종결 어미를 통해 창건설화임을 명확히 밝힘
- ❷ 현재의 모습으로 변모한 사실과 담당 대목장을 밝힘
- ❸ 다른 건축과 차별화 되는 특징을 설명
- ❹ 개보수 내용을 밝혀, 현재 대웅전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도움
- ❺ 각주 사용으로 전문 용어 풀이



# 남양주흥국사성임당탑

## 南楊州興國寺聖任堂塔

종 목 경기도 유형문화재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 기존 문안

## 남양주 흥국사 성임당탑

南楊州 興國寺 聖任堂塔

경기도 유형문화재 ① 제203호

② 경기도 남양주시 덕릉로 1071번길 58(별내동 2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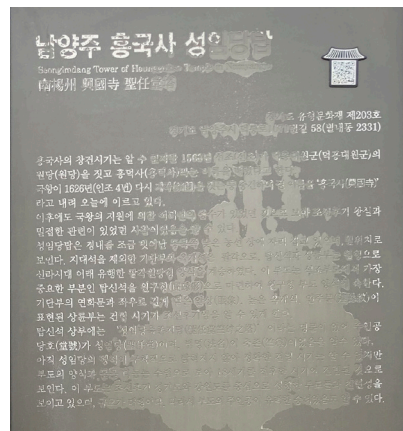
③ 흥국사의 창건시기는 알 수 없지만 1568년 ④ 선조(선조)가 덕흥대원군(덕흥대원군)의 원당(원당)을 짓고 흥덕사(흥덕사)라는 이름을 내렸다고 한다. 국왕이 ⑤ 1626년(인조 4년) 다시 제각(祭閣)을 짓는 등 증진하여 절 이름을 '흥국사(興國寺)'라고 내려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후에도 국왕의 지원에 의한 여러번의 중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조선후기 왕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성임당탑은 경내를 조금 벗어난 동북쪽 낮은 능선 상에 자리 잡고 있으며, 원위치로 보인다. ⑥ 지대석을 제외한 기단부와 옥개석은 팔각으로, 탑신석과 상륜부는 원형으로 신라시대 이래 유행한 팔각원당형 양식을 계승하였다. 이 부도는 석조부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탑신석을 원구형(圓球形)으로 마련하여 원구형 부도 양식에 속한다. 기단부의 연화문과 좌우로 길게 뻗은 안상(眼象), 높은 옥개석, 연주문(連珠文)이 표현된 상륜부는 건립 시기가 조선후기임을 알 수 있게 한다.

탑신석 상부에는 '성임당축존지탑(聖任堂竺尊之塔)'이라는 명문이 있어 주인공 당호(當號)가 성임당(聖任堂)이며, 법명(法名)이 축존(竺尊)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직 성임당의 행적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정확한 건립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부도의 양식과 돌을 다듬는 수법으로 보아 18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도는 조선후기 경기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성행한 부도들과 친연성을 보이고 있으며, 규모가 대형이다. 따라서 부도의 주인공이 유력한 승려였음도 알 수 있다.



훼손이 심해 문안의 식별이 어려움

- ① 지정번호 쓰지 않음
- ② 소재지 쓰지 않음
- ③ 성임당탑이 아닌 유관문화재(흥국사)에 대한 설명이 서두에 위치해 삭제 혹은 문단 순서 변경 필요
- ④ 한문으로 변환되지 않은 오류를 그대로 문안에 적용
- ⑤ 문화재청 연도 표기 미준수
- ⑥ 탑의 특징 묘사를 단순히 나열 하고, 한문으로 된 문양 이름의 풀이가 없어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는 탑의 정확한 위치를 인지하기 어려움

# 남양주 흥국사 성임당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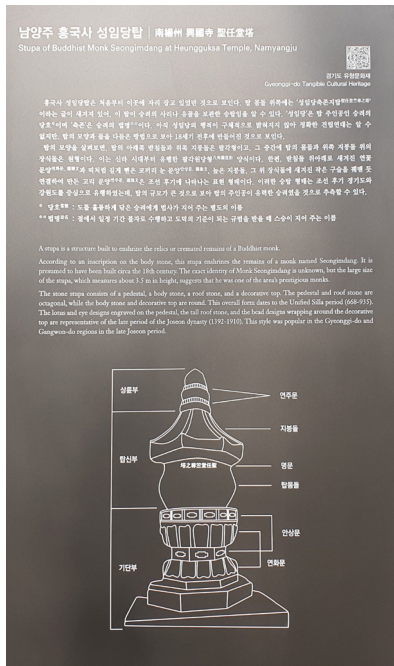
## 南楊州 興國寺 聖任堂塔

### 경기도 유형문화재

흥국사 성임당탑은 처음부터 이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❶ **탑 몸돌 위쪽에는 '성임당축존지탑(聖任堂竺尊之塔)'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어, 이 탑이 승려의 사리나 유골을 보관한 승탑임을 알 수 있다. '성임당'은 탑 주인공인 승려의 당호\*이며 '축존'은 승려의 법명\*\*이다. 아직 성임당의 행적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정확한 건립연대는 알 수 없지만, 탑의 모양과 돌을 다듬은 방법으로 보아 18세기 전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탑의 모양을 살펴보면, 탑의 아래쪽 받침돌과 위쪽 지붕돌은 팔각형이고, 그 중간에 탑의 몸돌과 위쪽 지붕돌 위의 장식돌은 원형이다. 이는 신라 시대부터 유행한 팔각원당형(八角圓堂形) 양식이다. 한편, ❷ **받침돌 위아래로 새겨진 연꽃 문양(연화문, 蓮華文)과 띠처럼 길게 뻗은 코끼리 눈 문양(안상문, 眼象文), 높은 지붕돌, 그 위 장식돌에 새겨진 작은 구슬을 꿰맨 듯 연결하여 만든 고리 문양(연주문, 連珠文)은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표현 형태이다. 이러한 승탑 형태는 조선 후기 경기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유행하였는데, 탑의 규모가 큰 것으로 보아 탑의 주인공이 유력한 승려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❸ \* **당호(堂號):** 도를 훌륭하게 닦은 승려에게 법사가 지어 주는 별도의 이름  
 \*\* **법명(法名):** 절에서 일정 기간 불자로 수행하고 도덕의 기준이 되는 규범을 받을 때 스승이 지어 주는 이름



기존에 문장오로만 파악하기 어려운 석조부도 각각의 명칭과 위치를 표시한 그림을 삽입하여 관람 편의를 도모함

- ❶ 탑의 역할을 밝혀 석축 목적과 해당 문화재의 개념의 이해를 도움
- ❷ 문양 명칭 앞에 설명을 추가하여 각 명칭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움
- ❸ 각주 사용으로 어려운 용어 풀이





## [사례분석]

### 공주 마곡사(2020)

사찰은 신앙과 수행, 승려 공동체 생활의 중심지로 한국 불교의 역사적인 전개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다. 사찰에는 신앙의 대상이 되는 부처님을 모신 불전(佛殿)을 중심으로 탑, 전각, 종루, 요사 등 다양한 건조물들이 종교적인 기능과 위격에 따라 배치되어 있다. 사찰 유형의 안내판의 경우 다음과 같이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 1) 종합안내판: 사찰의 역사, 공간 구성, 소장 문화유산,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등
- 2) 권역안내판: 영역별 기능, 각 공간에 배치된 건조물 소개 등
- 3) 개별안내판: 각 건조물의 기능, 개별적 특성 등





## 공주 마곡사 公州 麻谷寺

충청남도 기념물

1 마곡사는 100여 개에 이르는 충남·대전·세종 지역 조계종 사찰을 관장하는 대본산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7개 사찰 중 하나이다.

2 태화산에 자리를 잡은 마곡사는 봄이 가장 아름답다 하여 "봄은 마곡사, 가을은 감사(春麻谷 秋甲寺)"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이곳은 산과 물이 '쌍태극(雙太極)'을 이루는

명당이라 전란이나 흥년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3 마곡사는 백제 의자왕 때 자장율사가 세웠다고도 하고 신라의 보조 선사 체징(體澄)이 세웠다고도 한다. '마곡'이란 말의 유래는 보철화상이 설법할 때 계곡에 모여든 사람들이 마치 삼발을 이룬 것 같아 '삼골', 즉 '마곡(麻谷)'이라 하였다는 설과 신라의 고승 무염이 중국 마곡사의 법을 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4 고려 시대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찰이었음을 보여 주는 유물로 오층석탑과 대광보전의 본존불이 있다. 조선이 건국된 후에 불교는 힘을 잃었지만, 마곡사에는 왕실의 손길이 이어졌다. 1465년경 세조가 찾아와 직접 쓴 '영산전(靈山殿)'이란 글을 내리며 타고 왔던 가마를 남겨 주었고, 공주목사와 충청감사는 재물을 지원하였다. 임진왜란 때에는 의병의 집결지이기도 했는데 전란으로 절이 황폐해지자 1650년에 '각순'이란 스님이 절을 다시 세워 제 모습을 찾았다. 이때 승려를 모아 놓고 종이를 생산해 나라에 진상하고 기와를 구워 살림을 꾸려갔다.

1782년 큰불이 나서 건물이 모두 탔지만 조정의 지원을 받아 빠르게 제 모습을 찾았다. 1790년 정조의 아들 순조가 태어났을 때에는 마곡사에서 천일기도를 올린 덕분이라 하여 승려들을 힘들게 했던 종이를 진상하는 공역을 없애는 동시에 충청도의 으뜸 사찰로 지정하였다. 그 위상은 일제강점기에도 이어져 전국 31 본산 중 하나가 되었다. 이곳 마곡사에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는데 1898년에 23세의 백범 김구도 마곡사를 찾아와 자취를 남겼다.

5 이곳 마곡사에는 19동의 전각과 12개의 암자가 있다. 마곡천 물길을 사이에 두고 남쪽은 영산전(靈山殿) 등 수행 공간이 있고 북쪽은 대광보전(大光寶殿) 등 교화 공간이 있다.

- 1 마곡사 정의
- 2 주변 경관과 관련한 이야기
- 3 마곡사의 창건 및 이름의 유래
- 4 마곡사의 역사 및 역사인물들과 관련한 이야기
- 5 권역 및 부속 암자

권역안내판

## 공주 마곡사 북쪽 권역(복원)

1 마곡사 북원은 대광보전과 오층석탑이 있는 교화의 공간이다.

2 마곡사는 태화산 산골짜기 평지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경내에 모두 19동의 전각과 12개의 암자가 있는데, 그 위치에 따라 남원과 북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마곡사는 약 8000여 평의 면적에 경내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마곡천 계곡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나뉘어 있어 마치 두 개의 사찰이 자리한 듯 보인다.

3 이 중 북쪽 권역인 북원에는 대웅보전, 대향각, 응진전, 범종각이 있고, 승려들이 생활하는 심검당, 고방, 요사 및 백범 김구의 자취가 남아 있는 백범당과 향나무 등이 있다.

4 마곡사의 가람이 언제부터 지금과 같은 형태로 배치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임진왜란 이후의 기록을 보면, 1650년 각순 스님이 공주목사 이태연의 도움을 받아 폐허가 된 절을 다시 지어 북쪽 구역을 완성하였다고 한다. 이 무렵 예산 안곡사에서 범종을 보내왔고, 1741년(영조 17)에 법당의 중수를 만들었다. 오층석탑의 북쪽에 대광보전을 짓고, 다시 축대 위에 대웅보전이 자리한 '일탑쌍금당(一塔雙金堂)'식의 배치는 매우 희귀한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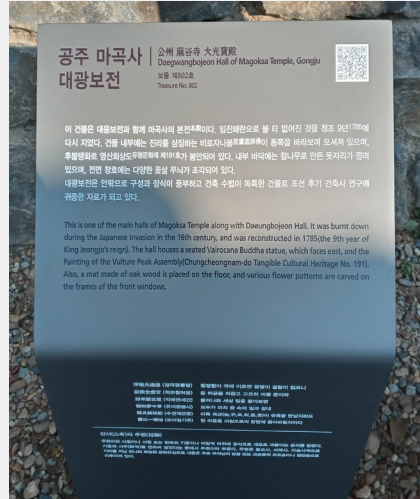
5 마곡사는 한때 승려가 천 명에 이를 정도로 번성하였지만 1782년에 화재로 대법당을 비롯한 천여 칸의 건물이 불에 타는 사건이 있었다. 그 다음 해에도 화재가 일어나 대광보전도 소실된 채 탑과 불상, 대웅보전만 남게 되었다. 이에 제봉당 체규 스님이 중심이 되고 충청도관찰사 심풍지 등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1785년에 대광보전을 다시 세우고 1788년에 표암 강세황이 쓴 '대광보전'의 현판을 걸었다. 대웅보전은 본래 대장경을 보관하는 '대장전(大藏殿)'이었는데 이 시기에 부처를 모신 대웅보전으로 바뀌었다. 1791년 응진전, 1797년에는 심검당도 지었다. 그 후 수차례의 보수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 배치도를 삽입하여 권역을 구성하는 건조물들과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함.



- 1 마곡사 북원 정의
- 2 마곡사 가람배치의 특성
- 3 북원 내 건조물 구성
- 4 마곡사 가람배치의 역사 및 특징
- 5 북원 내 구조의 변경

## 개별안내판



##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公州 麻谷寺 大光寶殿

### 보물

❶ 이 건물은 대웅보전과 함께 마곡사의 본전(本殿)이다. 임진왜란으로 불 타 없어진 것을 정조 9년(1785)에 다시 지었다. 건물 내부에는 진리를 상징하는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이 동쪽을 바라보며 모셔져 있으며, 후불탱화로 영산회상도(유형문화재)가 봉안되어 있다. 내부 바닥에는 참나무로 만든 돗자리가 깔려 있으며, 전면 창호에는 다양한 꽃살 무늬가 조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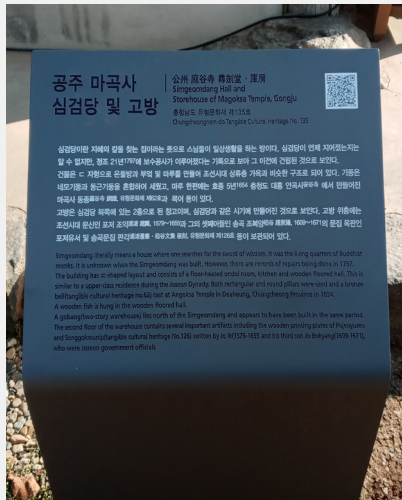
❷ 대광보전은 안팎으로 구성과 장식이 풍부하고 건축 수법이 독특한 건물로 조선 후기 건축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❶ 정의, 건립 시기, 내부에 모셔진 불상 및 불화

❷ 건축적 특징

👍 안내판 하단을 활용하여 전각 기둥에 쓰인 주련에 대한 설명과 각 문구에 담긴 의미를 부가적으로 제공함.

# 개별안내판



## 공주 마곡사 심검당 및 고방 公州 麻谷寺 尋劍堂 및 庫房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① 심검당이란 지혜의 칼을 찾는 집이라는 뜻으로 스님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방이다. 심검당이 언제 지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조 21년(1797)에 보수공사가 이루어졌다는 기록으로 보아 그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② 건물은 ㄷ 자형으로 온돌방과 부엌 및 마루를 만들어 조선 시대 상류층 가옥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 기둥은 네모기둥과 둥근기둥을 혼합하여 세웠고, 마루 한편에는 효종 5년(1654) 충청도 대흥의 안곡사(安谷寺)에서 만들어진 마곡사 동종(麻谷寺 銅鐘, 유형문화재)과 목어 등이 있다.

③ 고방은 심검당 북쪽에 있는 2층으로 된 창고이며, 심검당과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고방 위층에는 조선시대 문신인 포저 조익(浦渚 趙翼, 1579~1655)과 그의 셋째아들인 송곡 조복양(松谷 趙復陽, 1609~1671)의 문집 목판인 포저유서 및 송곡문집 판각(浦渚遺書·松谷文集 板刻, 유형문화재) 등이 보관되어 있다.

- ① 심검당의 정의, 건립 시기, 이름의 유래
- ② 건축적 특징, 관련 문화유산
- ③ 고방의 정의, 건립 시기, 관련 문화유산



2022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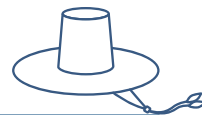
---

# 자연문화재 · 무형문화재



식물 / 명승 / 문화경관 /

지질지형 / 놀이





# 거창원천느티나무

## 居昌原泉느티나무

종 목 경상남도 기념물

지역 경상남도 거창군

### 기존 문안

## 거창 원천 느티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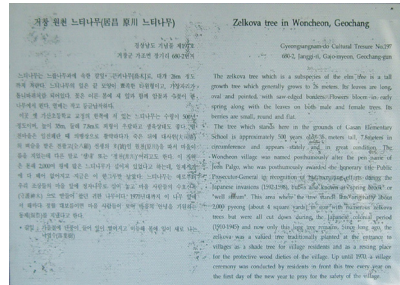
### 居昌原<sup>①</sup>川<sup>②</sup> 느티나무

경상남도 기념물 ② 197호  
 ③ 거창군 가조면 장거리 680-2번지

느티나무는 느릅나무과에 속한 갈잎\*, 큰키나무[喬木]로, 대개 26m 정도 까지 자란다. 느티나무의 잎은 끝 모양이 뾰족한 타원형이고, 가장자리가 톱니바퀴처럼 되어있다. 꽃은 이른 봄에 새 잎과 함께 암꽃과 수꽃이 한 나무에서 핀다. 열매는 작고 둥글납작하다.

이곳 옛 가산초등학교 교정의 한쪽에 서 있는 느티나무는 수령이 500년 정도이며, 높이 35m, 둘레 7.8m로 외형이 우람하고 생육상태도 좋다. ④ 원천마을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하다가 죽은 뒤에 대사헌(大司憲)의 벼슬을 받은 전팔고(全八顧) 선생의 호(號)인 원천(原<sup>①</sup>川<sup>②</sup>)을 따서 마을 이름을 지었는데 다른 말로 “샘내” 또는 정천(井川)이라고도 한다. 이 지역은 본래 2,000여 평에 많은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었다고 하는데, ⑤ 일제시기에 다 베어 없어지고 지금은 이 한그루만 남았다. 느티나무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마을 앞에 정자나무로 심어 놓고 마을 사람들의 수호신목(守護神木)으로 받들어 왔던 귀한 나무이다. 1970년대까지 이 나무 앞에서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동제(洞祭)를 지냈다고 한다.

\* 갈잎 : 가을철에 단풍이 들어 잎이 떨어지고 이듬해 봄에 잎이 새로 나는 낙엽수(落葉樹)



- ① 내 천(川)으로 한자 오표기
- ② 지정번호 쓰지 않음
- ③ 소재지 쓰지 않음
- ④ 관련 인물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이 차지 하는 비율이 높음
- ⑤ 불분명한 정보 기재



문화재 설명 내용은 좋으나, 문장의 흐름이 매끄럽지 못해 아쉬움

# 거창원천느티나무

## 居昌原<sup>1</sup>泉느티나무

경상남도 기념물

2 느티나무는 예로부터 마을 앞에 정자나무로 심어 놓고 마을의 수호신목(守護神木)으로 받들어 왔던 귀한 나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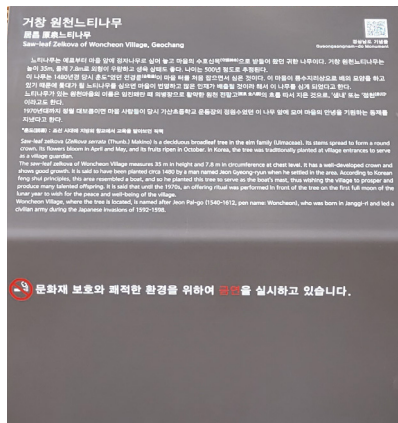
거창원천느티나무는 높이 35m, 둘레 7.8m로 외형이 우람하고 생육 상태도 좋다. 나이는 500년 정도로 추정된다.

이 나무는 1480년경 당시 훈도\*였던 전경륜(全敬倫)이 마을터를 처음 잡으면서 심은 것이다. 3 이 마을이 풍수지리상으로 배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돛대가 될 느티나무를 심으면 마을이 번영하고 많은 인재가 배출될 것이라 해서 이 나무를 심게 되었다고 한다.

느티나무가 있는 원천마을의 이름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한 원천 전팔고(原泉 奎八顧)의 호를 따서 지은 것으로, '샘내' 또는 '정천(井川)'이라고도 한다.

1970년대까지 정월 대보름이면 마을 사람들이 당시 가산 초등학교 운동장의 정원수였던 이 나무 앞에 모여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동제를 지냈다고 한다.

4 \* 훈도(訓導): 조선 시대에 지방의 향교에서 교육을 맡아보던 직책.



- 1 샘 천(泉)으로 한자 표기 정정
- 2 느티나무가 지닌 민속적 가치를 밝힘
- 3 조성 배경인 풍수지리를 설명해 문안이 흥미로움
- 4 각주 사용으로 전문 용어 풀이



노거수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이 이뤄져 흡입력 있는 문안으로 정비됨





## 예천 초간정 원림

### 醴泉 草澗亭 園林

종 목 명승

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 기존 문안

## 예천 초간정 원림

### 醴泉 草澗亭 園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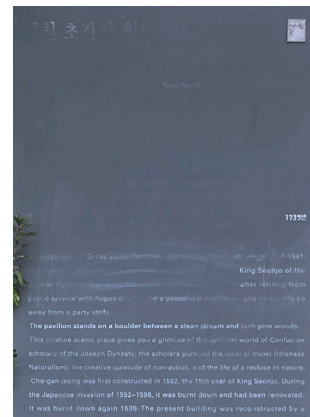
명승 ① 제51호

② 소재지: 경북 예천군 용문면 죽림리 350번지 등

③ 초간정은 조선 선조 대 학자인 초간 권문해 ④ (1534~1591)가 오랜 관직 생활과 당쟁에서 벗어나 자연을 즐기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와 창건한 정자로 맑은 계곡과 푸른 소나무림 사이의 암석 위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시대 사림의 ⑤ 은일(隱逸)생활과 무위자연(無爲自然)을 바탕으로 하는 선조들의 자연관을 보여주는 명승지로 바위를 휘돌아 흐르는 계류가 시원한 운치를 자아내는 등 경관적 가치가 크다. 조선 선조(宣祖) 15년(1582)에 처음 지어진 초간정은 임진왜란 때 불타 버린 것을 중건 하였으나, 인조(仁祖) 14년(1636)에 다시 불타는 등 수난을 거듭했는데,

⑥ 지금의 건물은 초간의 현손이 1870년 중창한 것으로 기암괴석과 주변의 경관이 조화를 이루어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읽기 어려울 정도로 안내판이 훼손됨

- ① 지정번호 쓰지 않음
- ② 소재지 쓰지 않음
- ③ 원림이 아닌 초간정에 대한 설명이 서두에 있어 문장 위치 수정 필요
- ④ 인물의 출생, 사망 연도 표기 지양
- ⑤ 한문 용어 사용에 대한 풀이 필요
- ⑥ 연결성이 낮은 2가지 정보를 한 문장에 담아 전달력이 아쉬움



원림이 아닌 초간정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뤄 아쉬움

## 예천 초간정 원림

醴泉 草澗亭 園林

명승

예천 초간정 원림은 용문면 원류마을 앞 계곡 가의 암반 위에 세워진 초간정과 주변의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진 전통원림\*이다. ① 경치가 아름다운 한국의 자연유산으로 관광지 및 영화·드라마 촬영지로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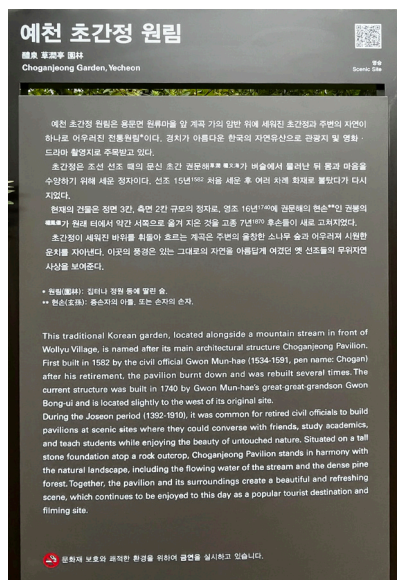
초간정은 조선 선조 때의 문신 초간 권문해(草澗 權文海)가 벼슬에서 물러난 뒤 몸과 마음을 수양하기 위해 세운 정자이다. 선조 15년(1582) 처음 세운 후 여러 차례 화재로 불탔다가 다시 지었다.

현재의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정자로, 영조 16년(1740)에 권문해의 현손\*\*인 권봉의(權鳳儀)가 원래 터에서 약간 서쪽으로 옮겨 지은 것을 고종 7년(1870) 후손들이 새로 고쳐지었다.

② 초간정이 세워진 바위를 휘돌아 흐르는 계곡은 주변의 울창한 소나무 숲과 어우러져 시원한 운치를 자아낸다. 이곳의 풍경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아름답게 여겼던 옛 선조들의 무위자연 사상을 보여준다.

③ \* 원림(園林): 집터나 정원 등에 딸린 숲.

\*\* 현손(玄孫): 증손자의 아들. 또는 손자의 손자.



- ① 현재의 경관적 가치를 설명해 흥미로움
- ② 기존 문장의 위치를 바꾸어 경관의 가치를 설명
- ③ 각주 사용으로 전문 용어 풀이



문안 서두에 원림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 해당 문화재와 유관 문화재(초간정)의 설명 비중이 균형있게 정비 됨



# 안면도 꽃지 할미 할아버지 바위

安眠島 꽃지 할미 할아버지 바위

종 목 명승

지역 충청남도 태안군

## 기본 문안

### 안면도 꽃지 할미 할아버지 바위

지 정 별 : 명승 ① 제69호

② 지정연월일 : 2009년 12월 09일

③ 위치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연리 산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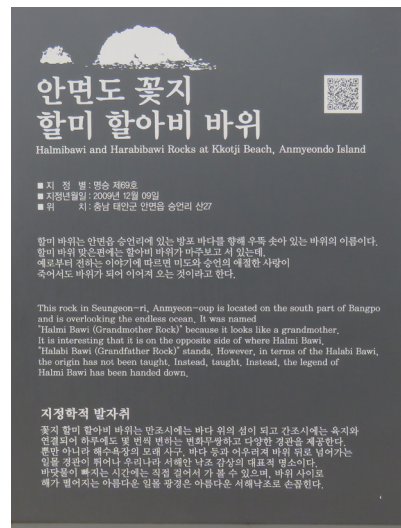
할미 바위는 안면을 승연리에 있는 방포 바다를 향해 우뚝 솟아 있는 바위의 이름이다.

할미 바위 맞은편에는 할아버지 바위가 마주 보고 서 있는데,

④ 예로부터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미도와 승연의 애절한 사랑이 죽어서도 바위가 되어 이어져 오는 것이라고 한다.

#### ⑤ 지정학적 발자취

꽃지 할미 할아버지 바위는 만조시에는 바다 위의 섬이 되고 간조시에는 육지와 연결되어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변화무쌍하고 다양한 경관을 제공한다. 그뿐만 아니라 해수욕장의 모래 사구, 바다 등과 어우러져 바위 뒤로 넘어가는 일몰 경관이 뛰어나 우리나라 서해안 낙조 감상의 대표적 명소이다. 바닷물이 빠지는 시간에는 직접 걸어서 가 볼 수 있으며, 바위 사이로 해가 떨어지는 아름다운 일몰 광경은 아름다운 서해 낙조로 손꼽힌다.



①, ② 지정번호, 지정일 쓰지 않음

③ 소재지 쓰지 않음

④ 설화를 자세히 풀지 않아 아쉬움

⑤ 경관, 관람 포인트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소재목 사용

# 안면도 꽃지 할미 할아버지 바위

## 安眠島 꽃지 할미 할아버지 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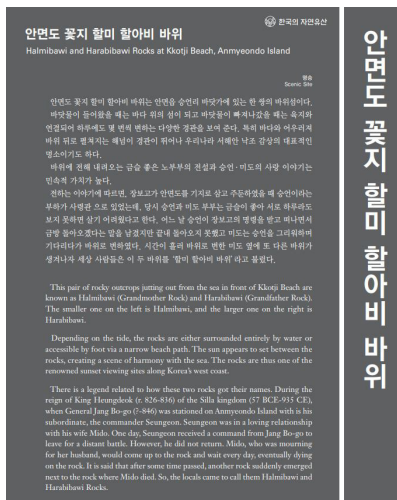
명승

안면도 꽃지 할미 할아버지 바위는 안면읍 승언리 바닷가에 있는 한 쌍의 바위섬이다.

1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는 바다 위의 섬이 되고 바닷물이 빠져나갔을 때는 육지와 연결되어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다양한 경관을 보여 준다. 특히 바다와 어우러져 바위 뒤로 펼쳐지는 해님이 경관이 뛰어나 우리나라 서해안 낙조 감상의 대표적인 명소이기도 하다.

바위에 전해 내려오는 금슬 좋은 노부부의 전설과 승언·미도의 사랑 이야기는 민속적 가치가 높다.

2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장보고가 안면도를 기지로 삼고 주둔하였을 때 승언이라는 부하가 사령관으로 있었는데, 당시 승언과 미도 부부는 금슬이 좋아 서로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살기 어려웠다고 한다. 어느 날 승언이 장보고의 명령을 받고 떠나면서 금방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겼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했고 미도는 승언을 그리워하며 기다리다가 바위로 변하였다. 시간이 흘러 바위로 변한 미도 옆에 또 다른 바위가 생겨나자 세상 사람들은 이 두 바위를 ‘할미 할아버지 바위’라고 불렀다.



- 1 기존 하단에 있던 내용을 서두로 옮겨 문맥의 흐름 매끄러워 짐
- 2 전승설화를 자세히 풀어서 흥미로움

안면도 꽃지 할미 할아버지 바위



#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 慶州 陽南 柱狀節理群

종 목 천연기념물

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 기존 문안

##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慶州 陽南 柱狀節理群

천연기념물 ① 제536호

② 지금으로부터 약 2,000만 년 전(신생대 마이오세) 이 지역 일대에 현무암질의 용암이 흐르고 식으면서 다양한 모양과 방향의 주상절리가 발달한 암석이 형성되었다.

대부분의 주상절리들이 수직 또는 경사된 방향으로 발달한 것과 달리 이곳에는 수평방향의 주상절리가 흔히 발달되어 있으며, 일부에서 부채꼴 형태의 주상절리가 발달함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세 방향의 주상절리가 서로 만나면서 같은 곳에 발달한 것 또한 드문 기록이다.

③ 이곳의 주상절리군은 용암의 냉각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동해의 형성과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귀중한 우리의 자연유산으로 국내의 다른 지역과 뚜렷한 차별성을 가지는 주상절리의 야외박물관이다.



- ① 지정번호 쓰지 않음
- ② 주상절리에 대한 개념 설명 부족
- ③ 문화재의 교육적, 지리적 가치를 설명하는 각 내용에 대한 문장 분리 필요

#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慶州 陽南 柱狀節理群

한국의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양남 주상절리군은 신생대 제3기의 에오세\*(5,400만 년 전)에서 마이오세\*\*(460만 년 전) 사이에 경주와 울산 해안 지역의 활발했던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바위의 기둥 모양의 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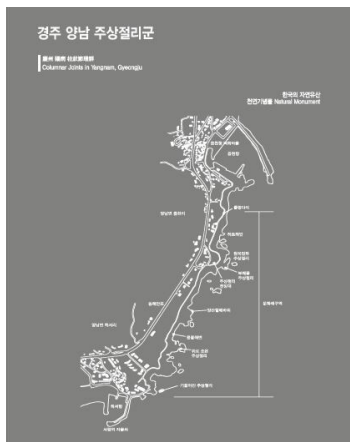
1 주상절리는 지표로 분출한 용암이 식을 때 수축 작용에 의해 수직의 돌기둥 모양으로 갈라져서 생긴 틈을 말한다.

이곳 해변의 1.7km에 걸쳐 10m가 넘는 정교한 돌기둥들이 분포하는데, 2 기둥의 형태가 주름치마, 부채꼴, 꽃봉오리 모양으로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절리가 지표면에 수직으로 발달하는 데 반해 이곳은 수평 방향의 절리가 흔하고 부채꼴 모양의 절리도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다. 또 한 곳에 세 방향의 절리가 발달하여 서로 만나는 것도 드문 경우이다.

3 주상절리군 주변에는 몽돌길, 야생화길, 등대길, 데크길 등 주상절리가 보이는 해안을 따라 산책할 수 있는 파도 소리 길이 조성되어 있다.

4 \* 에오세: 지질 시대의 신생대 제3기를 다섯으로 나눈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하는 시대. 기후는 온난·습윤하였고 산림이 우거져서 석탄층이 많이 퇴적하였다.

\*\* 마이오세: 신생대 제3기를 다섯으로 나누었을 때 네 번째로 오래된 시대. 지금으로부터 2,400만 년 전부터 520만 년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주상절리군 이미지를 삽입해 문화재 전체를 한 눈에 파악하기 쉽도록 함

- 1 주상절리의 개념을 밝혀 문화재 이해를 도움
- 2 형태를 친숙한 형태로 묘사
- 3 문화재 주변 코스도 함께 소개해 관람 포인트를 제안
- 4 각주 사용으로 전문 용어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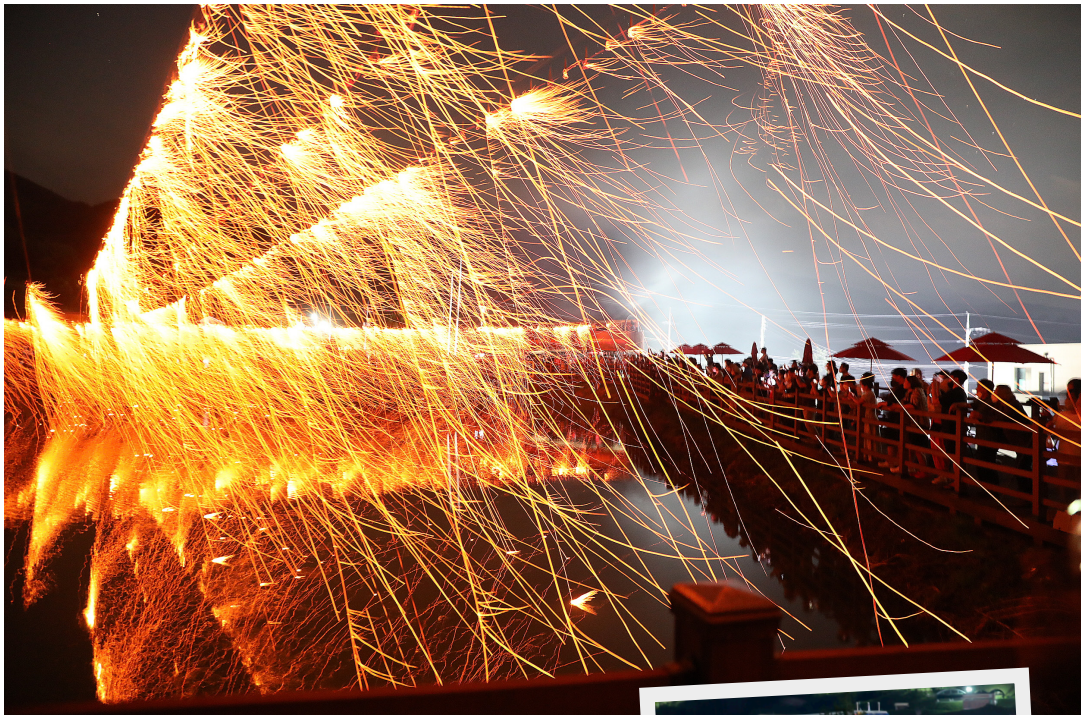


## 무주 안성낙화놀이

茂朱 安城落火놀이

종 목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지역 전라북도 무주군



# 무주 안성낙화놀이

## 茂朱 安城落火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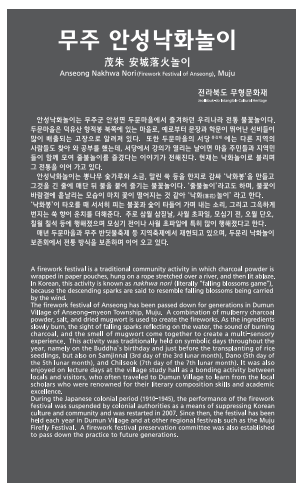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안성낙화놀이는 무주군 안성면 두문마을에서 즐겨하던 우리나라 전통 불꽃놀이이다. 두문마을은 덕유산 향적봉 북쪽에 있는 마을로, 예로부터 문장과 학문이 뛰어난 선비들이 많이 배출되는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❶ 또한 두문마을의 서당(홍감재)에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찾아 와 공부를 했는데, 서당에서 강의가 열리는 날이면 마을 주민들과 지역민들이 함께 모여 즐불놀이를 즐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현재는 낙화놀이로 불리며 그 전통을 이어 가고 있다.

안성낙화놀이는 뽕나무 숯가루와 소금, 말린 쑥 등을 한지로 감싸 ‘낙화봉’을 만들고 그것을 긴 줄에 매단 뒤 불을 붙여 즐기는 불꽃놀이이다. ‘즐불놀이’라고도 하며, 불꽃이 바람결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꽃이 떨어지는 것 같아 ‘낙화(落花)놀이’라고 한다.

❷ ‘낙화봉’이 타오를 때 서서히 피는 불꽃과 숯이 타들어 가며 내는 소리, 그리고 그윽하게 번지는 쑥 향이 운치를 더해준다. 주로 삼월 삼짇날, 사월 초파일, 모심기 전, 오월 단오, 칠월 칠석 등에 행해졌으며 모심기 전이나 사월 초파일에 특히 많이 행해졌다고 한다.

❸ 매년 두문마을과 무주 반딧불축제 등 지역축제에서 재현되고 있으며, 두문리 낙화놀이보존회에서 전통 방식을 보존하며 이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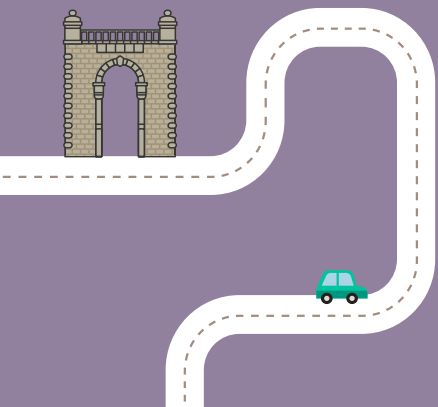


무형 문화재인 낙화놀이를 한눈에 보여주는 사진을 추가해 이해를 높임

- ❶ 낙화놀이가 시작된 유래를 밝혀 흥미로움
- ❷ 문화재 관람 포인트 설명
- ❸ 현재 문화재가 행해지는 곳을 설명해 관람 유도

😊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고, 쉬운 문안으로 쓰여짐





2022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

---

# 근대문화재



근대주거 / 근대교육 / 기타





# 서울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가옥

종 목 국가등록문화재

지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940년경



1953년 전쟁 후



1956년 개축 공사



개축 직후

## 서울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가옥

국가등록문화재

연희전문학교 제3대 교장 원한경(H. H. Underwood, 1890-1951) 박사가 1927년에 직접 지은 사택이다. 원한경 박사는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설립한 언더우드(H. G. Underwood, 원두우, 1859-1916)의 아들로 언더우드가 지은 남대문 인근 사택에서 살다가 근무지인 연희전문학교 서편에 대지를 마련하고 사택을 지었다. 일제 강점기 말기에 강제 추방당한 시기를 제외하고 줄곧 이곳에서 살았다. ❶ 당시 사택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20세기 초 미국에서 유행한 주택 양식을 반영하여 지었으며, 차고(현재의 별관)와 정원, 연못도 조성하였다. 육이오 전쟁으로 집이 크게 파괴되자 원한경 박사의 아들 원일한(H. G. Underwood II, 1917-2004) 박사가 1956년에 다락이 있는 단층 건물로 개축하고 채광과 환기를 위해 지붕에 도머창을 설치하였다.

❷ 1974년 원일한 박사는 사택과 토지 1만여 평을 연세대학교에 기증하였다. 현재 연세대학교는 한국의 첫 기독교 선교사인 언더우드를 비롯하여 한국 근대 교육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던 후손들의 삶과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2003년부터 사택 건물을 언더우드가 기념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가옥의 변천사를 한 눈에 볼수 있는 외관사진을 삽입해 현재 문화재 모습의 이해를 도움

- ❶ 문화재 개·보수 연혁을 설명
- ❷ 소유자의 문화재 기증과 관련 인물을 선양하는 노력을 서술



# 수봉정

## 秀峯亭

종 목 경상북도 기념물

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 기본 문안

## 수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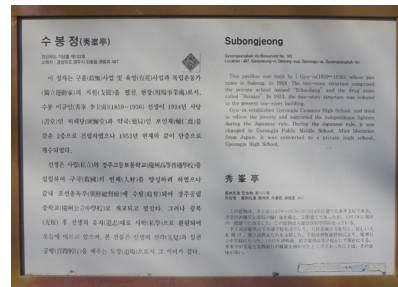
### 秀峯亭

경상북도 기념물 ① 제102호

②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괴릉리 487

③, ④ 이 정자는 구휼(救恤)사업 및 육영(育英)사업과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의 지원(支援)을 펼친 현장(現場事業處)로서 수봉 이규인(秀峯 李圭寅)(1859~1936) 선생이 1924년 서당(書堂)인 비해당(匪懈堂)과 약국(藥局)인 보인재(輔仁齋)를 갖춘 2층으로 건립하였으나 1953년 현재와 같이 단층으로 개수되었다.

선생은 사립(私立)의 경주고등보통학교(慶州高等普通學校)를 설립하여 구국(救國)의 인재(人材)를 양성하려 하였으나 끝내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에 수탈(收奪)되어 경주공립중학교(慶州公立中學校)로 개교되고 말았다. 그러나 광복(光復) 후 선생의 유지(遺志)대로 사학(私學)으로 환원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본 건물은 선생의 선각(先覺)과 실천궁행(實踐躬行)을 배우는 도장(道場)으로서 그 의미가 깊다.



- ① 지정번호 쓰지 않음
- ② 소재지 쓰지 않음
- ③ 조성 배경, 관련 인물, 연혁이 한 문장에 담겨 설명이 장황함
- ④ 문화재 명칭과 역할이 왜 다른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으로 보기 어려운 문장 구성



전체적으로 어려운 단어와 한문 병기가 많아 가독성이 떨어져 아쉬움

# 수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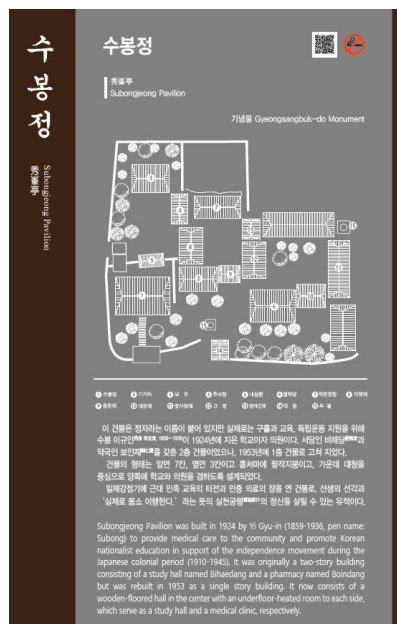
## 秀峯亭

### 기념물

1 이 건물은 정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구호와 교육, 독립운동 지원을 위해 수봉 이규인(秀峯 李圭寅, 1859 ~ 1936)이 1924년에 지은 학교이자 의원이다. 서당인 비해당(匪懈堂)과 약국인 보인재(輔仁齋)를 갖춘 2층 건물이었으나, 1953년에 1층 건물로 고쳐 지었다.

건물의 형태는 앞면 7칸, 옆면 3칸이고 홀처마에 팔작지붕이고, 가운데 대청을 중심으로 양쪽에 학교와 의원을 겸하도록 설계되었다.

일제강점기에 2 근대 민족 교육의 터전과 민중 의료의 장을 연 건물로, 선생의 선각과 '실제로 몸소 이행한다.'라는 뜻의 실천궁행(實踐躬行)의 정신을 살필 수 있는 유적이다.



문화재 전체 도면을 삽입해 전체 공간과 각 건물을 설명

- 1 문화재 명칭과 역할이 다른 이유를 서두에 밝혀 궁금증 해소
- 2 문화재의 가치를 정의해 의미를 설명



한문 병기를 축소하고, 긴 문장도 간결하게 정리하여 이해가 쉬움



# 고양 강매 석교

## 高陽 江梅 石橋

**종 목** 경기도 유형문화재

**지역** 경기도 고양시

### 기본 문안

## 강매동 석교

### 江梅洞 石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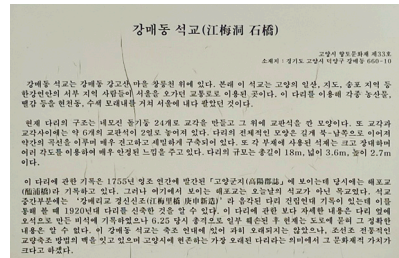
고양시 향토문화재 ① 제33호  
 ②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660-10

강매동 석교는 강매동 강고산 마을 창릉천 위에 있다. 본래 이 석교는 고양의 일산, 지도, 송포 지역 등 한강연안의 서부 지역 사람들이 서울을 오가던 교통로로 이용된 곳이다. 이 다리를 이용해 각종 농산물, 쌀감 등을 현천동, 수색 모래내를 거쳐 서울에 내다 팔았던 것이다.

③ 현재 다리의 구조는 네모진 돌기둥 24개로 교각을 만들고 그 위에 교판석을 깐 모양이다. 또 교각과 교각사이에는 약 6개의 교판석이 2열로 놓여져 있다. 다리의 전체적인 모양은 길게 북-남쪽으로 이어져 약간의 곡선을 이루며 매우 견고하고 세밀하게 구축되어 있다. 또 각 부재에 사용된 석재는 크고 장대하며 여러 각도를 이용하여 매우 안정된 느낌을 주고 있다. 다리의 규모는 총길이 18m, 넓이 3.6m, 높이 2.7m이다.

이 다리에 관한 기록은 ④ 1755년 영조 연간에 발간된 「고양군지(高陽郡誌)」에 보이는데 당시에는 해포교(醞浦橋)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이는 해포교는 오늘날의 석교가 아닌 목교였다.

석교 중간부분에는 ‘강매리교 경신신조(江梅里橋 庚申新造)’라 음각된 다리 건립연대 기록이 있는데 이를 통해 볼 때 1920년대 다리를 신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다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리 옆에 오석으로 만든 비석에 기록하였으나 6.25 당시 총격으로 일부 훼손된 후 현재는 도로에 묻혀 그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이 강매동 석교는 축조 연대에 있어 과히 오래되지는 않았으나, 조선조 전통적인 교량 축조 방법의 맥을 잇고 있으며 고양시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다리라는 의미에서 그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 ① 지정번호 쓰지 않음
- ② 소재지 쓰지 않음
- ③ 교량 건축 방법과 크기를 단순 나열식으로 작성하여 이해가 어려움
- ④ 문화재와 관련 없는 내용

## 1 고양 강매 석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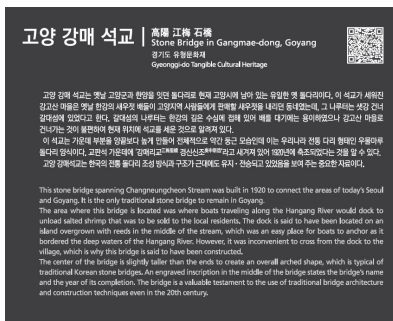
高陽 江梅 石橋

### 2 경기도 유형문화재

3 고양 강매 석교는 옛날 고양군과 한양을 잇던 돌다리로서 현재 고양시에 남아 있는 유일한 옛 돌다리이다. 4 이 석교가 세워진 강고산 마을은 옛날 한강의 새우젓 배들이 고양지역 사람들에게 판매할 새우젓을 내리던 동네였는데, 그 나루터는 셋강 건너 갈대섬에 있었다고 한다. 갈대섬의 나루터는 한강의 깊은 수심에 접해 있어 배를 대기에는 용이하였으나 강고산 마을로 건너가는 것이 불편하여 현재 위치에 석교를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이 석교는 가운데 부분을 양끝보다 높게 만들어 전체적으로 약간 둥근 모습인데 이는 우리나라 전통 다리 형태인 우물마루 돌다리 양식이다. 교판석 가운데에 “강매리교(江梅里橋) 경신신조(庚申新造)”라고 새겨져 있어 1920년에 축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양 강매석교는 한국의 전통 돌다리 조성 방식과 구조가 근대에도 유지·전승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 1 지정된 후 종목 명칭 수정
- 2 승격된 종목명으로 정정
- 3 고양 강매 석교의 쓰임과 가치를 간결한 문장으로 설명
- 4 석교가 세워진 이유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 이해가 쉽고 흥미로움
- 5 석교의 제작 양식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







# 군산 어청도 등대

## 群山 於靑島 燈臺

종 목 국가등록문화재

지역 전라북도 군산시

### 기존 문안

## 군산 어청도 등대

### 群山 於靑島 燈臺

국가등록문화재 ① 제378호

②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산364

이 등대는 청일전쟁 후 ③ 중국 항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축조하였다. 입구의 삼각형 돌출지붕과 이를 장식한 꽃봉우리 그리고 상부로 갈수록 좁아 드는 단면 등이 주변의 바다 풍광과 잘 어우러진다. 내부의 조립식 나선형 철제 계단과 외부 침입자를 차단하기 위한 접이식 철제 바닥판 역시 독특한 형태이다. 불을 밝히는 ④ 등명기(燈明機)를 수운 위에 뜨게 하여 회전시킨 '중추식 등명기(목제의 덕트 시스템)'의 흔적 등 초기 등대의 구성 요소가 잘 남아 있다.



문안이 훼손되어 읽기 어려움

- ① 지정번호 쓰지 않음
- ② 소재지 쓰지 않음
- ③ 축조한 주체가 생략되어 중국 항로를 활용할 목적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 ④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이 부족

# 군산 어청도 등대

群山 於靑島 燈臺

국가등록문화재

1908년

## 1 군산 어청도 등대는 청일전쟁 후 중국 항로의 중요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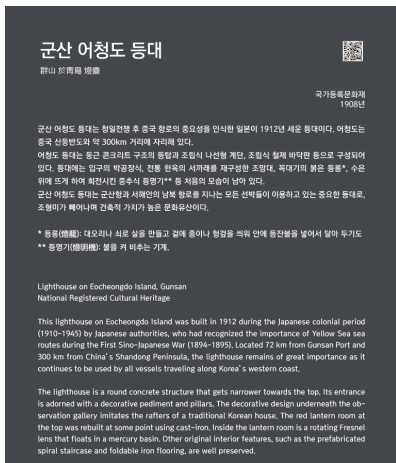
인식한 일본이 1912년 세운 등대이다. 어청도는 중국 산둥반도와 약 300km 거리에 자리해 있다.

어청도 등대는 둥근 콘크리트 구조의 등탑과 조립식 나선형 계단, 조립식 철제 바닥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등대에는 입구의 박공장식, 전통 한옥의 서까래를 재구성한 조망대, 꼭대기의 붉은 등롱\*, 수은 위에 뜨게 하여 회전시킨 중추식 등명기\*\* 등 처음의 모습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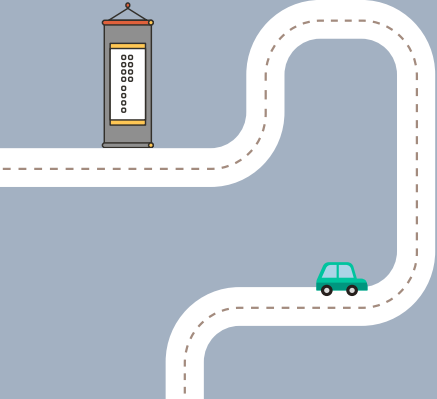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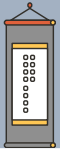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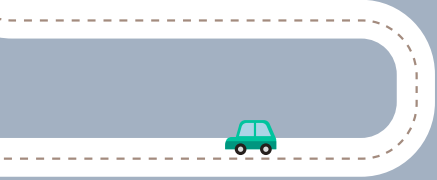
군산 어청도 등대는 2 군산항과 서해안의 남북 항로를 지나는 모든 선박들이 이용하고 있는 중요한 등대로, 3 조형미가 빼어나며 건축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이다.

4 \* 등롱(燈籠): 대오리나 쇠로 살을 만들고 곁에 종이나 형꺽을 씌워 안에 등잔불을 넣어서 달아 두기도

\*\* 등명기(燈明機): 불을 켜 비추는 기계.



- 1 등대를 세운 주체를 밝혀,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등대 목적을 명확히 설명
- 2 축조 후 오늘날까지 등대의 역할과 쓰임이 이어져 오고 있음을 설명
- 3 문화재의 가치를 밝힘
- 4 각주 사용으로 어려운 용어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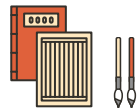
2022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

---

# 동산문화재



회화 / 생활유물





# 조선태조어진

## 朝鮮太祖御眞

종 목 국보

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 기존 문안

## 태조어진

### 太祖御眞

국보 1 제317호

정전의 한가운데 감실을 두고 여기에 태조어진을 모셔놓고 있다. 청룡포를 입고 있는 전신상 어진으로 건국자의 위엄이 서려 있다. 2 1872년(고종 9)에 새로 모사한 어진이며, 구분은 초상을 물에 씻어내고 백자항아리에 담아 진전 북쪽에 묻었다. 태조어진을 봉안한 감실 안에는 습기와 냄새를 제거하고 병충해를 막기 위해 부용향을 담은 붉은색의 향주머니를 넣어 두었다. 감실 앞쪽에는 어진을 호위하는 운검 한 쌍을 세워두었으며, 정전 좌우편으로 용선, 봉선, 흥개, 청개 등 의장물을 배치하였다.

태조어진 | 太祖御眞  
The Portrait of King Taejo

국보 제317호  
National Treasure No. 317

정전의 한가운데 감실을 두고 여기에 태조어진을 모셔놓고 있다. 청룡포를 입고 있는 전신상 어진으로 건국자의 위엄이 서려 있다. 1872년(고종 9)에 새로 모사한 어진이며, 구분은 초상을 물에 씻어내고 백자항아리에 담아 진전 북쪽에 묻었다. 태조어진을 봉안한 감실 안에는 습기와 냄새를 제거하고 병충해를 막기 위해 부용향을 담은 붉은색의 향주머니를 넣어 두었다. 감실 앞쪽에는 어진을 호위하는 운검 한 쌍을 세워두었으며, 정전 좌우편으로는 용선, 봉선, 흥개, 청개 등 의장물을 배치하였다.

This eoin is the portrait of 'Uiso Lee, Seonggyo who founded the Joseon Dynasty. Only the eoin in Gyeongju was kept unharmed while the other portraits kept in other regions such as Gyeongju, Pyeongyang, etc. were all burnt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between 1901-05. As the eoin deteriorated, it was burned and buried in the 5th reign of King Gojong (1872). The portrait in Gyeongju is a newly painted one copying the one kept in Yeoncheon, in Seoul. This eoin depicts King Taejo's full figure seated on a chair and wearing Joseon's royal crown when he wore white working and a gomyongpo (a royal robe) with his hands joined evenly. Shadowing techniques on the wrinkles of his face and robe, the brilliant colors of the chair and the mane and the gold-plating effect of the dragons on his shoulders make the painting more graceful. The dynasty's founder's dignity remains vivid beyond the time.



문화재 보호와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글꼴을 실사하고 있습니다.

- 1 지정번호 쓰지 않음
- 2 문화재청 연대 표기법 미준수



전체적으로 내용이 짧고, 어진이 아닌 어진을 모신 장소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아쉬움

## 1 조선 태조 어진

朝鮮 太祖 御眞

국보

2 조선 태조 어진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이다.

3 전주는 태조 이성계의 선조들이 살았던 조선 왕실의 본향이다. 조선은 건국 후 태종 10년(1410)에 조선 왕실이 일어난 전주에 태조의 어진을 봉안하였다. 그 후 경기전에 모신 태조 어진이 낡아서, 고종 9년(1872)에 영희전\*의 태조 어진을 모사\*\*하여 다시 모셨다.

태조 어진은 전주를 비롯해 태조가 태어난 영흥, 고구려의 왕도 평양, 신라의 왕도 경주, 고려의 왕도 개경 등 지방 5곳에 모셨으나 현재는 전주 경기전의 태조 어진만이 유일하게 남아 있다.

4 어진 속의 태조 이성계는 평상시 집무할 때 입는 청색의 곤룡포에 모자인 익선관을 쓰고 검은 가죽신을 신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 위엄과 권위가 돋보이게 그려져 있다. 가슴과 어깨에는 왕을 상징하는 다섯 발톱을 가진 용이 그려져 있으며 비단의 뒷면에 색을 칠하여 색감이 앞으로 배어나오게 하는 배채법으로 그려 색감이 은은하고 깊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태조 어진은 경기전의 태조 어진을 옮겨 그린 한양 영희전의 어진을 고종 9년에 다시 옮겨 그린 것으로, 조선 초기의 어진 제작 기법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조선 태조 어진은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 어진 박물관에 모셔져 있으며, 경기전 정전에 있는 것은 1999년에 원본을 그대로 옮겨 그린 복제본이다.

5 \* 영희전(永禧殿): 조선시대 태조·세조·원종·숙종·영조·순조의 어진을 모셨던 한양의 전각

\*\* 모사(模寫): 어떤 그림을 본보기로 그와 똑같이 본을 떠서 그림

### 조선 태조 어진

국보

朝鮮 太祖 御眞

조선 태조 어진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이다. 전주는 태조 이성계의 선조들이 살았던 조선 왕실의 본향이다. 조선은 건국 후 태종 10년(1410)에 조선 왕실이 일어난 전주에 태조의 어진을 봉안하였다. 그 후 경기전에 모신 태조 어진이 낡아서, 고종 9년(1872)에 영희전\*의 태조 어진을 모사\*\*하여 다시 모셨다.

태조 어진은 전주를 비롯해 태조가 태어난 영흥, 고구려의 왕도 평양, 신라의 왕도 경주, 고려의 왕도 개경 등 지방 5곳에 모셨으나 현재는 전주 경기전의 태조 어진만이 유일하게 남아 있다.

어진 속의 태조 이성계는 평상시 집무할 때 입는 청색의 곤룡포에 모자인 익선관을 쓰고 검은 가죽신을 신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 위엄과 권위가 돋보이게 그려져 있다. 가슴과 어깨에는 왕을 상징하는 다섯 발톱을 가진 용이 그려져 있으며 비단의 뒷면에 색을 칠하여 색감이 앞으로 배어나오게 하는 배채법으로 그려 색감이 은은하고 깊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태조 어진은 경기전의 태조 어진을 옮겨 그린 한양 영희전의 어진을 고종 9년에 다시 옮겨 그린 것으로, 조선 초기의 어진 제작 기법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조선 태조 어진은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 어진 박물관에 모셔져 있으며, 경기전 정전에 있는 것은 1999년에 원본을 그대로 옮겨 그린 복제본이다.

\* 영희전(永禧殿): 조선시대 태조·세조·원종·숙종·영조·순조의 어진을 모셨던 한양의 전각

\*\* 모사(模寫): 어떤 그림을 본보기로 그와 똑같이 본을 떠서 그림

### Portrait of King Taejo of Joseon

This portrait enshrined in the main hall of Gyeongju Shrine depicts the founder of the Joseon dynasty (1392-1910), Yi Seong-gye (1335-1408), known posthumously as King Taejo (r. 1392-1398). Made in 1999, it is a copy of a portrait made in 1872 that had been kept in the shrine until the 2000s and which was moved in 2010 to the nearby Royal Portrait Museum to ensure its preservation. The 1872 portrait, designated as a National Treasure in 2012, is of particular value as it is the only remaining Joseon-period portrait of Joseon's founding king.

The first portrait of King Taejo enshrined at Gyeongju Shrine was made in 1409 based on the original 1398 portrait. In 1688, the 1409 portrait was used to create a portrait for Yeongju Shrine, a shrine in the capital dedicated to the Joseon kings. By 1872, the 1409 portrait had deteriorated, so the 1688 portrait was used to create a new portrait for Gyeongju Shrine. Thus, despite having been made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1872 portrait preserves the characteristic features and style of the early Joseon period.

Painted on a silk canvas, the portrait uses a coloring technique whereby paint is applied to the back of the canvas to let it seep through to the front, thus creating deep and subtle colors. The king is depicted in an imposing and stately manner appropriate for a founding king. He is seated on a throne wearing his daily uniform, consisting of a blue robe, a winged cap, and black leather boots. The shoulders and chest of the robe are decorated in gold with designs depicting five-clawed dragons, a symbol of the king.

- 1 문화재청 누리집 기준 명칭 수정
- 2 문화재의 개념을 먼저 밝힘
- 3 어진 조성 배경과 어진의 희소성을 밝혀 가치를 드러냄
- 4 어진 내용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를 쉽게 설명
- 5 각주 사용으로 부연 설명



# 남이흥장군 일가 유품

## 南以興將軍 一家 遺品

종 목 국가민속문화재

지역 충청남도 당진시

### 기존 문안

## 남이흥장군 일가유품

### 南以興將軍 一家遺品

중요민속문화재 ① 제21호

② 조선중기의 무신인 남이흥장군(1576~1627)이 사용했던 물건들과 문중에 전해 내려오는 유물들로 녹구 1벌과 인조(仁祖)의 하사품인 곤룡포 1벌, 호패 7점이 1970년 지정되었고 2004년 고문서 13점, 영정 1점, 생활자료 10점, 복식 6점 등 총 30점의 세부유물을 추가로 지정하였다.

남이흥장군 일가의 유품들은 복식 자료를 비롯하여 ③ 고서와 서한 영정, 교지, 호패 등이 다양하게 남아 있어 17세기 초의 생활상과 복식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글자색과 바탕색이 모두 밝아 가독성이 낮은 디자인

- ① 지정번호 쓰지 않음
- ② 인물, 유물 성격, 문화재 지정 연혁 정보가 한 문장에 담겨 설명이 장황함
- ③ 어려운 단어 사용

# 남이흥장군 일가유품

## 南以興將軍 一家遺品

### 1 국가민속문화재

남이흥 장군 일가 유품은 조선 중기의 무신인 남이흥(南以興, 1576~1627) 장군이 사용했던 물품과 문중의 유물이다.

1970년에 녹피방령포(鹿皮方領袍)\* 1벌과 인조(仁祖)에게 받은 곤룡포(袞龍袍)\*\* 1점, 호패(戶牌)\*\*\* 7점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고, 2004년에 고문서 13점, 영정 1점, 생활자료 10점, 복식 6점 등 총 30점이 국가민속문화재로 추가 지정되었다. 남이흥 장군 일가 유품은 옷을 비롯해 2 옛서적과 편지, 영정, 교지, 호패 등 다양하여 17세기 초의 생활상과 복식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 3 \* 사슴 가죽으로 만든 갑옷 받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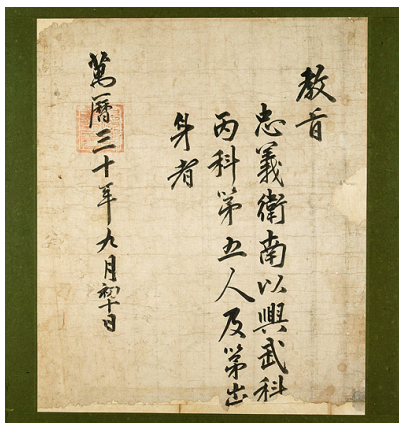
\*\* 임금의 옷.

\*\*\* 조선 시대에 신분을 증명하던 패.



유물관 안에 전시되어 있는 유품 사진을 외부에 설치된 안내판에 소개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

- 1 수정된 종목 명칭 표기
- 2 쉬운 단어로 수정
- 3 각주 사용으로 어려운 용어 풀이



남이흥장군 급제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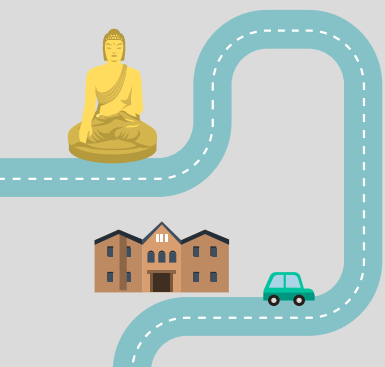


남이흥장군영정



남이흥장군호패





# II

---

## 2022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1.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목적
2.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추진과정
3. 2021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대국민 인식조사
4.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Q&A



## Ⅱ.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 1.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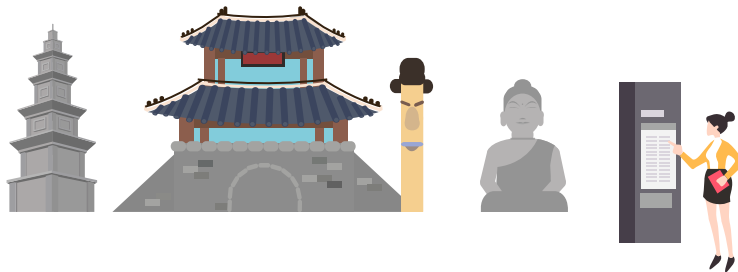
#### 1) 문화재와 문화재 안내판 개념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 종류는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 등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문화재 종류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지정주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국가지정	국보	보물	국가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시·도지정	시도유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	시도기념물		시도민속문화재	시도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							

문화재 안내판은 관람객에게 공공언어로 문화재의 정보와 가치를 알리기 위한 설치물입니다. 문화재 안내판의 종류에는 해설안내판과 기능성 안내판이 있습니다. 해설안내판은 각각의 성격에 따라 문화재 전체 영역을 종합하여 설명하는 종합안내판, 문화재 전체 영역 중 권역을 설명하는 권역안내판, 개별문화재 한 건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개별안내판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1개 이상의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문화재 안내판의 종류

해설안내판			기능성 안내판
종합안내판	권역안내판	개별안내판	
규모가 크고 다수의 건축물이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곳에 설치	종합안내판이 있으면서, 문화재 내 여러 개의 공간이나 건축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곳에 설치	특별한 이야기가 있거나 권역 내에 포함되지 못한 문화재가 있는 경우 설치	길 찾기(동선유도·편의 시설 등), 금지·주의, 공공(픽토그램 등), 정보알림판, 임시
문화재명, 문화재 이야기, 전체 지도, 연표	문화재명, 문화재 이야기, 권역 지도	문화재명, 문화재 이야기	

## 문화재 안내판 종류별 예시



종합안내판(경복궁)



권역안내판(수원 화성\_평지북성)



개별안내판(수원 화성행궁\_낙남헌)



기능성 안내판(양산 통도사)

## 2)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하는 이유

문화재 안내판은 현장에서 문화재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편의시설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문화재 안내판은 전문용어와 한문,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관람객이 문화재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더불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외형이나 부적절한 위치 등으로 문화재의 품격을 떨어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2018년부터 국민 누구나 문화재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안내판, 다양한 이야기를 반영한 흥미로운 안내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쉬운 안내문안 등을 목표로 국민 누구나 문화재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안내판 정비 연차별 추진 현황

대상 문화재	'19년	'20년	'21년	'22년	합계
정비완료 건수	1,714건	1,047건	702건	650건*(예상)	4,11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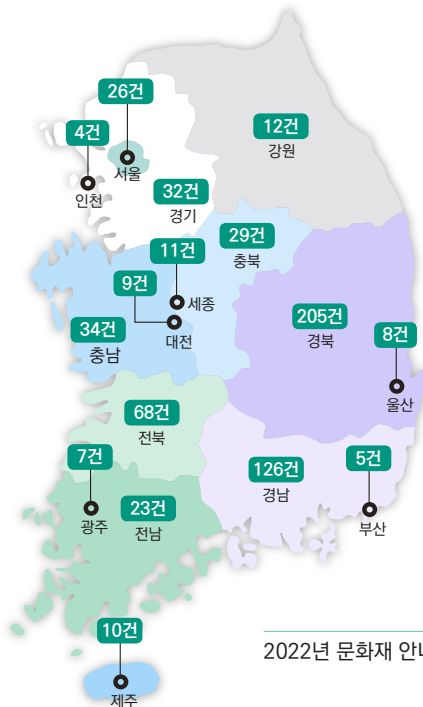
\* 전년도 미완료 이월 건수 41건 포함

## 3) 2022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현황

2022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정비 건수

(22.11. 29. 기준 / 단위 : 문화재 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26	5	4	7	9	8	11	32	12	29	34	68	23	205	126	10	609



2022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정비 건수 총계 609 건

## 2.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추진과정

###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추진단계

<p><b>01</b></p>  <p><b>문화재 안내판 실태조사 및 사업 신청</b></p>	<p>(전년도) <b>수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 안내판 실태조사</li> </ul> <p>(전년도) <b>3~4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 안내판 국고보조사업 신청</li> </ul> <p>(전년도) <b>5~8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 내용 확인 및 정비대상 문화재 선정</li> </ul>
<p><b>02</b></p>  <p><b>안내문안 작성 및 시민자문단 검토</b></p>	<p><b>3~4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자문단 구성(문화재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및 계획서 제출</li> </ul> <p><b>3~5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내문안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른 문안 작성</li> </ul> <p>* 참고: 사례로 보는 문화재 안내문안 작성 가이드라인(문화재청, 2018.12.)</p> <p><b>5~6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내문안 시민자문단 검토</li> </ul>
<p><b>03</b></p>  <p><b>국영문 감수 및 문안 확정</b></p>	<p><b>6~8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국어원, 지역별 국어문화원을 통한 국문 감수</li> <li>⊗ 한국학중앙연구원을 통한 영문 감수</li> </ul>
<p><b>04</b></p>  <p><b>안내판 제작 및 설치</b></p>	<p><b>9~11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 안내판 설치업체와 계약</li> <li>⊗ 문화재 안내판 최종 디자인 확정 및 설치 위치 검토</li> <li>⊗ 문화재 안내판 설치 및 주변 정비</li> </ul>
<p><b>05</b></p>  <p><b>DB 등록 및 사후 관리</b></p>	<p><b>11~12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DB등록(문안/사진)</li> <li>⊗ 안내판 점검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 사후 관리</li> </ul>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의 첫 단계는 우리 지역 문화재 안내판의 실태조사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재 안내판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안내문안의 내용은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적절한지, 안내판의 설치 위치나 디자인이 문화재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등을 파악합니다.

이후 오래되거나 훼손이 심해 식별이 어려운 안내판, 전문용어가 많아 읽기 어려운 안내판, 문화재 관람에 방해가 되는 안내판을 정비사업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문화재청은 안내판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안내문안의 작성과 검토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지자체별로 '시민자문단' 운영을 지침으로 안내했습니다. 지자체별로 구성된 시민자문단은 문화재에 관심이 많은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안내문안의 작성과 검토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시민자문단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3명에서 10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으며 온라인(전자우편, 자문 의견서 등), 오프라인(자문회의 등), 설문조사의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 시민자문단 구성

구분	참여 분야	
자문단원 (3~10명 내외)	전문가	문화재, 역사, 건축, 조경, 국문, 영문, 디자인, 스토리텔링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지역주민	지역의 문화재에 관심이 있는 교사, 학생, 문화유산해설사, 문인, 시민단체 등
	공무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문화재 담당

시민자문단은 안내문안의 작성 과정에 참여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내문안의 난이도가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에 적절한지, 문안의 내용에 흥미를 느낄 만한 요소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이외에도 안내판의 설치 위치나 안내판 관련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업 담당자는 시민자문단의 의견을 적절히 수렴하여 안내문안에 반영합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절차에 따라 시민자문단의 검토를 거쳐서 확정된 안내문안은 지자체별로 국·영문 감수기관에서 감수를 진행합니다. 국문 감수는 국립국어원 및 지역별 국어문화원에서 진행하며, 영문 감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을 통해 진행합니다.

### 안내문안 감수체계

구분	기관명	감수대상	비고
국문	국립국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li> </ul>	무료
	국어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을 제외한 나머지) *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li> <li>• 국가등록문화재</li> <li>•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li> </ul>	유료
영문	한국학중앙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내판 정비사업 하는 모든 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li> </ul>	유료

국·영문 감수를 통해 안내문안이 확정되었으면, 안내판 설치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 안내판의 디자인을 검토하며 안내판이 문화재와 적절하게 어울리는지, 안내문안의 여백, 글자체, 글자 크기가 읽기에 방해되지 않는지 등을 자세히 검토합니다.

이후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할 때 안내판의 크기가 문화재를 가리지 않는지, 일반인뿐만 아니라 어린이, 휠체어, 보행 보조기기 사용자 등에게도 접근이 편리한지, 안내판 재질이 문화재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등을 검토하여 진행합니다.

### 문화재 안내판 배치 개선사례(밀양향교)



개선 전



개선 후



##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세부 기준

문화재 안내판의 크기	• 안내판은 인간체격기준척도를 지향한다,
	• 문화재를 가리거나 관람객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 안내판이 다수 설치될 경우 종류와 위계에 따라 크기를 달리 적용한다.
문화재 안내판의 배치	• 어린이, 휠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눈높이와 시선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안내판이 관람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배치한다.
	• 문화재와 중첩되거나 조망을 훼손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안내판은 빛반사, 눈부심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출처: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별표 2])

문화재 안내판을 새롭게 정비하였다면, 설치 후 15일 이내에 문화재 안내판의 재질, 설치 일자, 유형별 안내판 적용 여부, QR코드 적용 여부, 국·영문 안내문안, 안내판 원경·근경·안내문안 상세사진 등의 DB 관련 자료를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추가적인 변경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 관리·점검하여 관람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등록 방법

행정망에서 <http://e-heritage.go.kr> 접속 → 지자체 통합 로그인 클릭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 문화재정보 - 문화재 안내판 점검표 - 문화재 안내문안 정보 - 신규등록



### 3. 2021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대국민 인식조사

#### 1) 조사 목적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대한 인식 및 평가와 정책수요 등을 조사·분석하여 향후 본 사업의 개선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주)경기리서치연구소에서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2) 주요 조사내용

##### 조사내용

조사 분야	조사 항목
본 문항	I. 사업인식 1. 사업 인지도 1-1. 인지경로 2. 사업 의의 3. 사업 필요성  II. 사업평가 4. 사업 개선효과 5. 사업 만족도 6. 사업 기대효과 7. 사업 우려 점  III. 정책수요 8. ICT 도입 찬반여부 8-1. 선호 기술유형 9. 필요 정책방안 10. 건의 및 요망사항
표본의 특성	1) 성별 2) 연령 3) 학력 4) 직업 5) 거주지

### 3) 조사 설계

#### 표본설계

모집단	전국 만 16세 이상의 성인남녀
표본크기	1,000명
표본추출	*비례층화표본추출법(Proportionate Stratified Sampling)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pm 3.1\%p$
조사기간	2021. 11. 18. ~ 11. 25.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

#### 표본구성표

특성 지역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전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체
서울특별시	3	3	15	16	15	15	15	15	38	43	86	92	178
경기도	4	4	20	19	22	21	25	24	52	56	123	124	247
인천광역시	1	1	4	3	5	4	5	4	11	12	26	24	50
부산광역시	1	1	4	4	4	4	5	5	14	17	28	31	59
대구광역시	1	1	4	3	2	3	3	3	9	11	19	21	40
대전광역시	1	1	3	2	2	2	3	3	6	7	15	15	30
광주광역시	1	1	2	2	2	2	3	3	7	7	15	15	30
울산광역시	0	0	3	1	3	3	3	3	7	7	16	14	30
세종특별자치시	1	1	3	0	4	5	4	4	4	4	16	14	30
강원도	1	0	3	2	2	2	2	3	7	8	15	15	30
충청남도	1	1	3	2	3	3	4	3	9	10	20	19	39
충청북도	1	1	3	2	2	2	3	2	7	8	16	15	31
전라남도	1	1	2	2	2	2	3	2	9	10	17	17	34
전라북도	1	1	3	2	2	2	3	3	8	9	17	17	34
경상남도	1	1	4	3	5	4	6	5	14	16	30	29	59
경상북도	1	1	4	2	3	3	4	4	13	14	25	24	49
제주도	0	0	3	3	3	3	2	2	7	7	15	15	30
합 계	20	19	83	68	81	80	93	88	222	246	499	501	<b>1000</b>

## 4) 조사 결과

### I. 사업인식

#### 1. 사업 인지도

- 약 13.5%의 국민이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의 인지도가 15.6%로 나타나 여성에 비해 약 4.2%p 높게 나타남.

#### 2. 인지경로

- 인터넷 웹사이트 50.4%, 대중매체 40.7%, SNS 39.3% 등이 주요 인지경로로 분석됨.(중복응답)
- 10/20대의 비교적 가장 젊은 층은 SNS를 통한 인지가 60.7%로 가장 높게 나타나서 30대 이상의 연령대와 주된 인지경로에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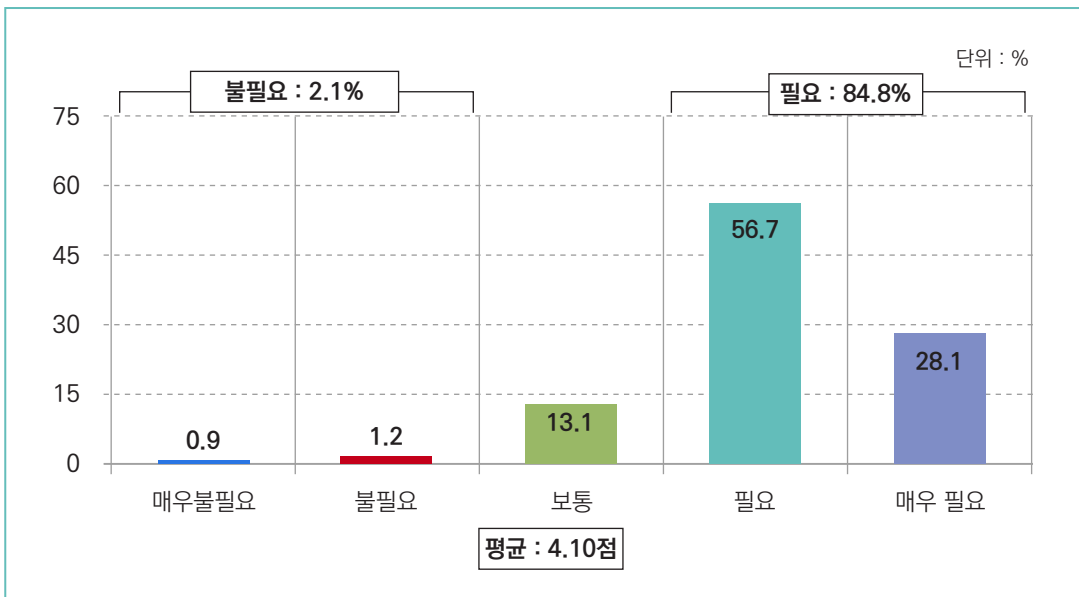
#### 3. 사업 의의

- 문화재 가치에 대한 국민 이해증진이 52.6%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 가장 주된 사업의의으로 분석됨.

#### 4. 사업 필요성

- 필요하다는 긍정평가가 84.8%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5점 척도로는 평균 약 4.10점으로 나타나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사업 필요성



## II. 사업평가

### 1. 사업 개선효과

- 효과가 높다는 긍정평가가 72.2%로 월등히 높게 나타난 반면, 낮다는 부정평가는 5.6%에 불과, 5점 척도로는 평균 약 3.81점으로 나타나 본 사업을 통한 개선효과를 높은 수준으로 평가함.
-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층에서 개선효과를 더 높게 평가함.
- 고학력층일수록 사업을 통한 개선효과를 더 높게 평가함.

### 2. 사업 만족도

- 만족한다는 긍정평가가 74.3%로 월등히 높게 나타난 반면, 불만족이라는 평가는 2.8%에 그침.  
5년 척도로는 평균 약 3.86점으로 나타나 본 사업에 대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임.
- 사업의 개선효과가 높다고 평가한 층일수록 본 사업의 만족도가 훨씬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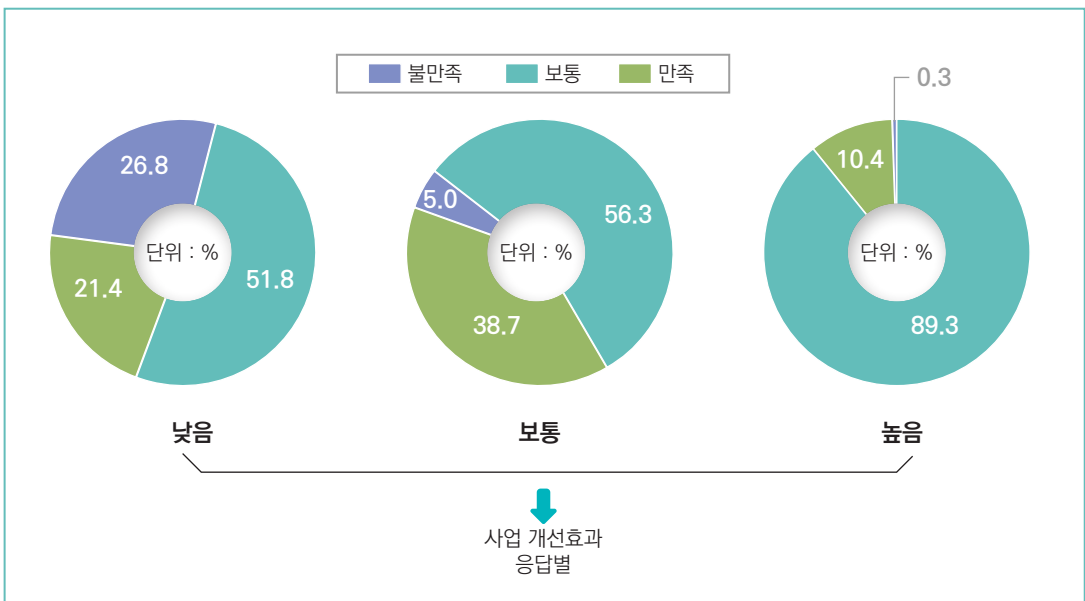
### 3. 사업 기대효과

- 문화재에 대한 국민 이해증진과 문화재 안내판 보수/정비의 계기가 가장 큰 기대효과로 평가됨.

### 4. 사업 우려 점

- 불필요한 정비 실시, 역사적 왜곡발생 우려, 문화재 본래가치 전달에 한계 등이 주요 우려 점.
- 문화재 본래가치 전달에 한계라는 우려는 5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사업 개선효과 응답에 따른 사업 만족도



### III. 정책수요

#### 1. ICT 도입 찬반여부

- 찬성 또는 부분찬성 한다는 긍정평가가 약 97.4%로 나타나 국민 대다수가 도입자체는 찬성하는 것으로 분석됨. 단, 문화재 전반에 도입하는 것보다 선별적 도입하자는 부분찬성도 절반에 달함.
- 남성은 찬성 기조가 여성은 부분찬성 기조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남.

#### 2. 선호 기술유형

- 위치기반 O2O 서비스, AR/VR 기술, QR코드/NFC 등이 도입 시 선호하는 주요 기술유형으로 나타남.
- AR/VR 기술은 10/20대의 젊은 층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고, 위치기반 O2O 서비스는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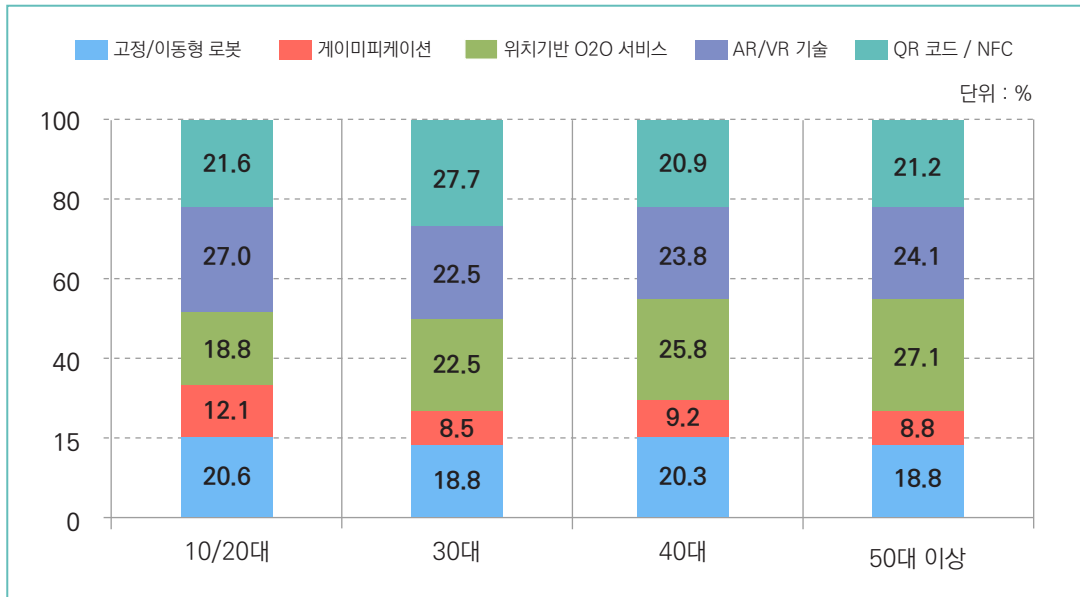
#### 3. 필요 정책방안

-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정비사업을 위한 예산확보, 관람객의 문화재 보호의식 증진 등이 필요한 주요 정책방안으로 나타남.
- 5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특히 높게 꼽음.

#### 4. 건의 및 요망사항

- 이해하기 쉽게 정비요망, 확실한 고증요망, 정비를 통한 문화재 보존, 홍보필요 등의 의견도출

연령별 선호 기술유형



## 5) 결론 및 시사점

### ④ 사업 인지도 제고

본 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층에서 사업의 개선효과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본 사업을 이해하고 있는 층에서 변화된 개선효과를 더 높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에 대한 긍정 평가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본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인지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기본 소통채널로 하되, 연령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주요 인지경로를 통한 접근방안이 요구됨. 즉, 10/20대의 젊은 층은 SNS, 50대 이상의 고령층은 대중매체 같은 Targeting된 경로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④ 사업의 개선효과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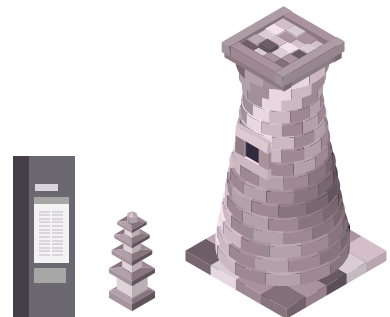
사업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됨. 이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이 사업의 영속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사료됨. 또한, 이러한 사업의 개선효과는 사업의 만족도에도 정의 영향(가설검증 참조)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사업의 개선효과를 증진시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④ 문화재에 대한 국민 이해증진

본 사업의 가장 큰 의의와 기대효과로 국민들은 문화재에 대한 국민 이해증진을 꼽고 있음. 이는 본 정비사업을 통해 사업수행 주체가 추구해야 할 가장 큰 가치는 역시 문화재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을 확인시켜줌.

### ④ ICT 기술 도입검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문화재 안내판에 ICT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국민 공감도가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다만, 문화재에 따라 선별적으로 도입하자는 부분찬성 의견도 절반에 가깝게 높게 나타난 만큼,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하게 ICT 기술을 융합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4.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Q&A

### Q \_ 시민자문단 구성이 어려운데 꼭 구성해야 하나요?

A \_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지침에 따라 시민자문단 구성은 필수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시민자문단 구성을 필수로 넣은 이유는 안내판 정비 시, 시민들에게 직접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고 흥미로운 문안 작성을 위함입니다. 시민자문단의 개념은 “검토”에 가깝기 때문에 문안이 시민들의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 Q \_ 문화재 안내판 외관만 정비하고 문안의 변동이 없을 때도 시민자문단을 구성하나요?

A \_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은 문안 정비를 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문안 정비가 계획에 없으더라도 가급적 기존 안내판의 문안 내용이 어렵지 않은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문단 운영 방식은 지자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방식은 온라인(전자우편, 자문의견서 등), 오프라인(자문회의 등), 설문조사의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 Q \_ 시민자문단에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이 각 1명씩 구성이 되어야 하나요?

A \_ 꼭 각 1명씩 구성될 필요는 없습니다. 시민자문단은 안내문안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너무 어렵지 않은지, 알고 싶은 정보가 잘 담겨 있는지 확인, 검토하는 과정이므로 지역주민을 포함해서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Q \_ 전문가는 누구로 구성해야 하고, 전문가에 학예사가 포함되어도 되나요?

A \_ 전문가는 문화재, 역사, 건축, 조경, 국문, 영문, 디자인, 스토리텔링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이면 누구나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학예사는 전문가보다는 공무원으로 분류해 구성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자문단 구성

구분	참여 분야	
자문위원 (10명 내외)	전문가	문화재, 역사, 건축, 조경, 국문, 영문, 디자인, 스토리텔링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지역주민	지역의 문화재에 관심이 있는 교사, 학생, 문인, 문화유산해설사, 시민단체 등
영문	공무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문화재 담당



**Q \_ 문안 작성 시, 문화재 소유자, 관리자 등 관계자와 의견 절충이 어려워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A \_** 문화재 안내판은 객관적 사실을 핵심 정보 위주로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문화재 관계자에게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의 목적과 취지 등에 관해 공감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찰의 경우, 전문 불교 문화재 연구기관(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 동국대 문화재연구소, 성보문화재연구원 등)의 자문을 받아 안내문안을 작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Q \_ 감수를 꼭 지정된 국립국어원, 국어문화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받아야 하나요?**

**A \_** 국문 감수는 국립국어원 및 국어문화원, 영문 감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국·영문 감수기관 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국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 타 국어문화원으로 변경 가능)

**2022년 국립국어원 및 전국 국어문화원 현황**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02-2669-9667	
세종국어문화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02-735-0991	
한글문화연대 국어문화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02-780-5084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051-200-7180	
경북대학교 한국어문화원	대구광역시 북구	053-950-7497	
인하대학교 국어문화원	인천광역시 남구	032-860-8394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	광주광역시 북구	062-530-0313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	울산광역시 남구	052-259-1911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경기도 안산시	031-400-4513	
강원대학교 한국어문화원	강원도 춘천시	033-250-8138	
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	충북 청주시	043-261-3450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충남 천안시	041-550-5391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전북 전주시	063-220-3095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원	경북 경산시	053-810-3561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경남 진주시	055-772-0761	

## 2022년 영어 안내문안 감수기관

기관명	대표 전자우편	연락처	비고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heritage@aks.ac.kr	031-728-9884	

\* 필요 시 영어 안내문안 작성도 지원함

### Q\_ 영문 감수는 꼭 국문 감수가 완료된 후에 받아야 하나요?

A\_ 영어 안내문안은 국문의 직역이 아닌 의역(발췌번역)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문안 작성이 완료 되면 동시에 국·영문 감수가 가능합니다.

### Q\_ 제2외국어(중국어, 일본어 등)는 따로 배정된 감수기관이 있나요?

A\_ 일본어, 중국어 등 제2외국어는 문화재청 필수 감수 언어가 아닙니다. 별도로 지정된 감수기관은 없으며,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Q\_ DB 입력이 어려울 시, 자료를 제출하면 DB 입력 지원이 가능한가요?

A\_ 네. 지자체의 업무부담 경감 차원에서 (사)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에서 DB 입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법) 전자우편으로 사진 3장 및 감수 완료 안내문안 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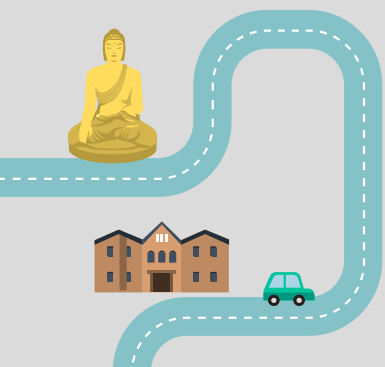
\* 안내판 포함 원경, 근경, 세부문안 고화질 사진 파일 각 1장

\* 전자우편: heritagesign@kchua.org

### Q\_ 문화재 안내판 지정번호 가림조치를 진행해야 하나요?

A\_ 문화재 지정번호제도 개선 추진에 따라, 2021년부터 안내판에서 지정번호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등록 및 시도지정·등록문화재 모두 해당합니다.





#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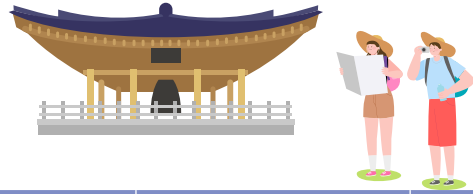
---

## 2022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찾아보기



### Ⅲ. 찾아보기

광역시	시군구	종목	문화재명	분류	페이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등록문화재	서울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가옥	근대문화재-근대주거	82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관동묘려	건축문화재-사묘재실	20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	보문산마애여래좌상	불교문화재-불교조각	50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유형문화재	장군 영평사 목조나한상 및 복장유물 일괄	불교문화재-불상	56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서생포애성	사적-관방유적	36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유형문화재	고양 삼천사지 대지국사탑비	불교문화재-불교조각	52
		경기도 유형문화재	고양 강매 석교	근대문화재-교량	86
	남양주시	경기도 유형문화재	남양주흥국사성임당탑	불교문화재-탑	60
	용인시	경기도 유형문화재	정조 어제 채제공 뇌문비	건축문화재-비석	22
		경기도 기념물	용인 왕산리 지석묘	사적 - 묘역	38
충청남도	당진시	국가민속문화재	남이흥장군 일가 유품	동산문화재-생활유물	94
	아산시	사적	아산 맹씨 행단	건축문화재-주거시설	18
	태안군	명승	안면도 꽃지 할미 할아비 바위	자연문화재-문화경관	74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삼괴정	건축문화재-누·정	16
		천연기념물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자연문화재-지질지형	76
	경상북도 기념물	수봉정	근대문화재-근대교육	84	



광역시	시군구	종목	문화재명	분류	페이지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성주성산관	건축문화재-관아건축	8
	안동시	경상북도 기념물	고산서원	건축문화재-향교·서원	12
	영천시	보물	수도사 노사나불 괘불탱	불교문화재-탱화	54
	예천군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예천향교	건축문화재-향교·서원	10
명승			예천 초간정 원림	자연문화재-명승	72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기념물	거창원천느티나무	자연문화재-식물	70
	산청군	경상남도 기념물	산청단성사직단	사적-종교·신앙	34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문수사대웅전	불교문화재-건조물	58
	군산시	국가등록문화재	군산 어청도 등대	근대문화재-기반시설	88
	무주군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무주 안성낙화놀이	무형문화재-놀이	78
	전주시	사적	전주 경기전	사적-종교·신앙	32
국보			조선태조어진	동산문화재-회화	92
전라남도	함평군	보물	함평 고막천 석교	건축문화재-교량	14

## ● 사례분석 찾아보기

광역시	시군구	종목	문화재명	페이지
경상북도	안동시	사적	안동 도산서원	24
경기도	수원시	사적	수원 화성	40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기념물	공주 마곡사	62

## 2022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집

---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처	문화재청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전화	042-481-4744, 4742
홈페이지	<a href="http://www.cha.go.kr">http://www.cha.go.kr</a>
기획 및 편집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사)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
디자인/제작	(주)칸디자인뱅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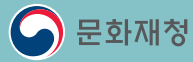
---

발간등록번호 11-1550000-002177-01  
ISBN 978-89-299-2736-3 93600

저작권자 © 문화재청

이 책의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내용의 일부나 전부를 인용,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

2022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집



ISBN 978-89-299-2736-3 93600